안전하고 편리한 구독신청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해결하십시오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
대표 (02)2004-8211~2

현대불교

buddhanews.com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1월 11일(음력 12월 12일) 수요일 (주간) 제 560 호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불서 2천권 기탁
지속적인 동참 약속



불모 허길량씨

신축 법당 불상 지원
훼손된 경우 교체도



'이불할매' 정억순 보살

좌복 5천개 '보시'
제작에 분주한 나날

더이상 남의 일 아니다

군종교구-본사 '2006 군포교합시다' 캠페인에 각계 지원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와 본사가 공동으로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계 각층에서 지원품이 답지하는 등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불교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송광사 서울 분원인 법련사(주지 보경)는 이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며 불일출판사에서 발간한 불서 2000권을 기탁해 왔다.

법련사는 그동안 호신불 카드 3만개를 제작해 군장병들에게 나눠 주었고 <운명의 변화> 등 불서 1만권 이상을 군법당에 기증해왔다.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은 "군생활을 할 당시 군종병으로 열악한 군포교 현실을 몸으로 느껴왔다"며 "불서 한권이 군 장병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군법당에 불서 보내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오, 보응, 일섭, 우일 스님으로 내려오는 불모의 계보를 잇고 있는 허길량씨는 신축되는 군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 좌상(동불)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본사에 전해왔다.

허씨가 이같은 발심을 하게 된 동기는 40여년동안 부처님을 조성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군법당 부처님을 봉안하는 일이 가장 보람 있었기 때문. 허씨는 "노후에 군법당 부처님 봉안을 혼자라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군포교를 위해 캠페인을 펼친다는 소식을 접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같은 결심을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2면에서 계속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조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49-864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몸무게 31kg
극도의 근력 저하
하체 감각 이상 징후



지율 스님 병원 입원

안동 토굴에서 일산 동대병원까지

지율 스님이 1월 5일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스님의 건강을 우려하던 지인들과 국민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지율 스님의 건강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관계자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으며 병실을 지키고 있다.

지난해 9월 중순 이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춘 지율 스님은 전국을 돌며 만행을 계속했지만 100일 단식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도반 스님 절과 토굴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 12월 초 지율 스님은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낸 세영 스님이 주지로 있는 여주 신륵사에 잠시 기거했으나, 12월 8일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도망치듯 신륵사를 빠져 나와 허름한 민가를 개조한 경북 안동의 토굴에 머물러 왔다.

지율 스님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한 움직임은 주위 스님들 사이에서 은밀히 진행됐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낳을 수 있었기 때문.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과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1월 1일 모처에서 만나 "지율 스님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부산의 천성산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지율 스님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천성산의 생명들과 함께 생을 마감하겠다는 지율 스님의 의지는 완고했다. 사회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정부와 한국고속철도공단측의 무성의한 행태에서 더 이상의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을 지키는 스님의 요청으로 건강검진을 위해 토굴을 찾았던 신현수 안동병원장과 병원 입원을 간곡히 요청하려던 김휘동 안동시장 등은 만나지도 못한채 돌아가야만 했다. 은사스님과 사숙스님, 도반스님 등 주변사람들의 간곡한 요청이 결국 지율 스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입원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1월 4일 밤 최종적으로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입원하기로 했지만, 지율 스님은 마음을 바꿔 1월 5일 새벽 대구 시내 병원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율 스님이 의지할 수 있는 핵심 측근들이 영남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때 대구 경북대병원에 입원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입원 수속까지 마쳤으나 주위 스님들과 불교환경단체 실무진들이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월 5일 3시 15분경 일산불교병원으로 후송됐다.





1월 5일 세영 스님(안동 신륵사 주지)이 안동의 토굴에서 지율 스님을 업고 나오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날 오후 일산불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는 지율 스님. 사진=박재완 · 유철주 기자

오후 3시 15분께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지율 스님은 이불과 모자로 전신을 뒤집어 쓴 채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세영 스님과 동생 조경자씨, 의료진의 보호를 받으며 응급실을 지나쳐 바로 외과계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스님을 취재하러 몰려든 취재진을 피하기 위한 병원측의 조치.

이불과 모자 틈으로 얼핏 보이는 지율 스님의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을 만큼 야위어 손이 닿는 것조차 위태로워 보였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에 후송된 후에도 계속 치료를 거부하고 있어, 천성산의 뭇생명과 함께 하겠다는 스님의 고행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담당의 김영권 교수(중환자실장)는 "스님은 오랜 단식으로 인해 체중이 31kg에 불과하며, 기력이 떨어져 극도의 근력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마비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하체는 감각이상 징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상적인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의지를 북돋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동 · 일산=박봉영 · 유철주 기자

종단협 신년하례

16일 조계사 대웅전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회장 지관)는 1월 16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키로 했다.

불교계 지도자 150명을 비롯해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관계인사, 종단 주요단체 인사 200여명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할 이날 법회는 지관 스님의 신년 법어,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의 발원문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 4시에는 종단협 이사회가 열린다. 김주일 기자

'상락원' 명칭 변경

승가원 장애아동 요양시설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인 '상락원'이 올해부터 '승가원장애아동요양시설'로 명칭을 변경한다.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은 최근 "지난 12월 15일 열린 제2차 임시이사회에서 경기도 이천에 새로 건립되는 승가원자비복지타운과의 균형발전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해 상락원의 명칭변경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승가원은 기존의 소쩍새마을을 경기도 이천으로 이전해 불교최대 장애인시설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새롭게 건립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완공된다. 이은비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해인사 동당 수좌 도견 스님


도반의 향기 17면
'심청이 선생님' 이은우씨

능가 스님의 '4강3륜' 5면
자원봉사법과 교계 과제 4면


개의 해 사찰 '명견' 9면
스스로 '공부' 점검 18면
법계도를 설치미술로 23면
2006년 건강캘린더 27면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 일시: 2006년 1월 21일(토) 오후 2시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법당



■ 장 소 : 만해마을(강원도 인제군)

올해는 '선거의 해'

조계종, 14대 중앙종회의원 · 교구본사 9곳 주지선출

선거법 개정 논의 활발 예상… '공명선거' 도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올해 선거의 해가 될 전망이다.

교구본사 9곳의 주지와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임원 · 이사장 선출 등 종단 운영의 흐름을 판가름하는 주요 선거가 잇따라 열리는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 등 관련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선거는 10월에 치러질 제14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 체제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종단운영의 주도권을 놓고 여당격인 '일승회'와 야당인 '미래를 여는 승가회(前 보림회 금강회)'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13대 때와 마찬가지로 전문성을 갖춘 젊은 소장파 스님들의 진출 등 '세대교체'가 이뤄질지 관심거리다.

'중앙종회의원선거법'에 따라 직선과 간선으로 81명(각 교구본사별로 4~2명씩 총 61명과 비구니 10명, 직능별 20명)을 선출하는 종회의원은 승랍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종단의 주요 입법과 대의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올해는 제2교구 용주사를 비롯해 역대 가장 많은 9곳의 본사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이는 실제 주지를 뽑는 교구본사 23곳의 약 5분의 2에 달하는 규모. 조계종도 지방자치 강화라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총무원 중심의 종무행정이 교구본사로 이양되는 추세다. 따라서 교구본사 주지의 영향력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해인사 월정사 봉선사 등의 사례처럼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주지들의 등장은 지역 불교계의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주지 선거에 쏠린 관심이 크다.

가장먼저 2월에 용주사가 현 주지 정락 스님의 후임을 선출한다. 이어 5월에 제9교구 동화사(주지 지성)와 제10교구 은해사(주지 법타)도 주지 임기가 만료된다. 또 제6교구 마곡사(주지 진각), 제11교구 불국사(주지 종상)는 7월, 제16교구 고운사(주지 혜성)는 8월, 제24교구 관음사(주지 용주)도 10월에 새 주지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가 예정돼 있다.

사실상 방장의 지명으로 주지가 선출되는 총림사찰인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명공 · 제18교구)는 11월에, 영축총림 통도사(주지대행 현문 · 제14교구)도 방장 후보 초우스님의 중앙종회 추대와 관련한 논의가 끝난 후에 주지 선출 절차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 요구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전망이다.

청정선거실현승가운동본부 수완스님은 올해 열릴 각종선거와 관련해 "1994년 종단 개혁이후 지금까지도 선거로 인한 승단의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제14대 종회의원선거이전에 교구총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무원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관련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지관스님 BBS대담서 황우석 · 강정구 교수관련 '발언'

"정부, 황박사 연구지원 해야"

강교수 관련 '시각차' 인정 "중도 정신으로 화합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1월 2일 불교방송과의 신년대담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황우석 박사 사건에 대한 불교지도자로서의 입장을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관 스님은 이날 "황 박사가 불교신자이기 때문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나는 황 박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은 정치적 · 사적인 부분에 소홀했던 것이 한 원인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누구라고 밝힐 순 없지만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다"며 황 박사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분야이든 남보다 앞서나간다면 박수를 쳐줘야 한다"며 "정부도 (황 박사의 연구를) 지원해야한다"고 말해 국내 줄기세포 연구가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또 배아줄기세포의 생명윤리 논란과 관련해 "어떤 종교에서는 성체줄기세포는 괜찮고 황 박사 연구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서양윤리에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한편, 지관 스님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해서도 "70대 노인과 30대 청년의 생각이 같을 수 없듯, 진보와 보수 이념갈등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부처님의 중도를 깨달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념간의 조화를 이룰 것"을 주문했다. 또 "사회의 갈등과 반목은 자기입장만을 고집하는데서 비롯되므로 상생과 화합을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은 이와 함께 올해 종무행정의 역점을 △이웃과 함께 하는 종단 △포교역량 강화 △인재양성에 두고, 주요 사업으로 '해외교구 신설'과 '금강산 표훈사 복원불사'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1월4일 이명박 서울시장의 신년예방을 받고 조계사 일대의 성역화 불사에 서울시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조계사 '국민의 사찰'로 거듭날 것"

이명박 시장, 지관스님 예방해 지원 약속

지난해 잇따른 종교편향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서울시장이 신년인사차 1월 4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최근 유력 대권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종교적 발언과 관련해 일었던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이날 만남에서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주변 불사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조계사와 정비 불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 청계천과 인사동, 우정국로, 조계사로 이어지는 구간은 시민들의 걷기 코스로 제격"이라면서 "한국 불교 1번지 조계사는 국민의 사찰이자,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공간인 조계사 주변정비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데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5일에는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도 지관 스님을 예방하고 오찬을 함께 했다.

조용수 기자

동국대 이사장 · 총장 선거도 '대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위원장 원택)의 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동국대도 일부 이사와 총장의 임기가 올해 만료된다. 특히 지관 스님(현 총무원장) 과 이사장 현해 스님의 임기가 5월이면 끝나게 돼, 새 이사장 선출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동국대 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의 복수추천으로 중앙종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

홍기삼 총장의 임기도 올해 마무리된다. 그동안 동국대는 관례에 따라 교수회 직선으로 1, 2위 득표자를 선발해 이사회에서 선임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동국대 이사회는 경주 교수회가 추천한 부총장 후보를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조용수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1면에서 이어짐

허씨는 군법당은 있는데 부처님을 모시지 못한 경우나 불상이 낡고 훼손된 경우, 특수소재(FRP)로 만들어진 조잡스러운 불상 교체도 무상 지원할 계획이다.

'사랑의 이불할매'로 전국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수천채의 이불을 보시했던 정억순 보살도 좌복 5천개를 제작해 군법당에 전달하고 싶다며 본사에 기탁 의사를 밝혔다.

정보살은 좌복에 '조국을 위한다면 무엇인들 아까우랴'라는 문구를 상단에 새기고 머리가 닿는 부분을 표시하기 위한 마크도 수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낮에는 재료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고 밤에는 솜을 넣을 통을 바느질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평소 '충효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지론으로 충효사상을 강조해온 정 보살은 "보시한 좌복에 앉은 젊은 군 불자들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나라를 위하고 부모을 위하는 이 나라의 동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포교 후원 체계를 갖추고 궁극적으로는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김두식 기자

파키스탄 · 미국 구호 나서

조계종, 현장방문 성금전달

조계종이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 난민과 태풍 카트리나로 피해를 입은 미국 난민 돕기에 발 벗고 나섰다.

조계종은 1월 9일 사회부장 지원스님과 사회국장 해용 스님등을 대표단으로 미국과 파키스탄에 파견했다. 총무원은 파키스탄에 1억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 지난해 8월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피해가 컸던 미국 뉴올리언스 재해민들에게 성금 1억40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4급 승가고시 3월3일 실시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는 3월 3일 중앙승가대에서 4급 승가고시를 치른다. 응시를 원하는 스님은 1월 23일~2월 17일까지 각 교구본사에 접수하면 된다.

남동우 기자

'대장경학' '이체자' 특별분과 신설

한국불교학결집대회, 다채로운 기획 눈길

4월22~23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제3회한국불교학결집대회(대회장 종림 · 이하 결집대회)가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대회조직위(위원장 이중표)는 대장경학 및 이체자 관련 특별분과를 신설키로 확정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신설되는 분과는 △'천년으로 이어지는 대장경의 가치(가제)'라는 분과 △경북대 남권희 교수 등 국내 서지학자들로 구성되는 대장경학 관련 분과 △연세대 이규갑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불교 이체자 분과 △강원분과 등이다.

이 가운데 '천년으로 이어지는 대장경의 가치(가제)' 분과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결집대회 조직위가 공동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 10인으로 분과를 구성해 국제학술회의 성격을 띠게 됐다. 또 강원분과는 강원 학인 스님들의 결집대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직위는 송광사 원경 스님을 분과장으로 내정했다.

박익순 기자

본사사령

김두식
이은희
命 편집국 기자

2006년 1월 3일

태고종립 동방불교대학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한국불교의 동량을 가꾸고 배출하기 23년, 전통불교문화가 여러분의 얼과 숨결로 승화되는 곳,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法緣을 기다립니다.

학 과	교 육 내 용	모집인원	비 고
불교학과	불교의 교리 · 사상 · 역사와 경전, 종단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한 포교와 복지과목 등을 이수하고 기초불교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승가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주요 내전 및 종학 등 대승교화 종단의 위상을 담보하는 교과를 이수하고 기초불교 의식을 배운다.	100명	2년제
범패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교신행 및 사찰운영에 필요한 각종 재의식 등 전통불교의식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50명	2년제
불교미술학과	불교학의 기본교육과 불화 · 단청을 비롯한 불교미술 전반의 체계적 학습을 위한 미술의 이론 · 실기를 겸수한다.	50명	3년제

구 분	일 자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05. 12. 26(월)~ 2006. 2. 3(금) 17:00	본교 교학처 www.dongbang.org 인터넷 교부 · 접수
전형고사 (필기 · 실기 · 면접)	2006. 2. 10(금) 10:00~17:00	본교 강의실 및 실기실
합격자 발표	2006. 2. 13(월)	개별통지 본교 홈페이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등록	2006. 2. 13(월)~2.17(금)	계좌입금: 농협 029-01-130257 동방대

3. 지원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
나.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4. 지원방법
가. 불교학과는 정규 및 통신반의 선택지원이 가능하다.
나. 승가학과 ·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는 정규반만 지원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인터넷 원서접수한 후 출력하여 사진 부착)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마. 반명함판 사진 3매 바. 전형료 50,000원

◆제출방법
가. 본교 교학처 직접방문 및 우편 이용.
나. 인터넷 교부 · 접수는 원서접수한 후 출력하여 사진을 부착하고, 여타 제출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교학처로 방문 제출한다.
다. 주소 :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학생과

구 분	필기고사 불교상식	실기고사	면 접	합 계
불교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승가학과	60%(60점)	·	40%(40점)	100%(100점)
범패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불교미술학과	30%(30점)	40%(40점)	30%(30점)	100%(100점)

가. 태고종 승려로 출가득도하기 위해서는 향후 종단의 선교육 후득도 제도시행에 따라 본교(전체학과 해당)를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
나. 불교학과 통신생은 본교 홈페이지 사이버 음원강의 및 통신강의CD를 통해 교육한다.
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라. 승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종단의 합동득도수계를 증명할 수 없는 지원자는 삭발여부를 불문하고 승복을 착용할 수 없다.
마. 승적증명서나 수계증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재가불자는 나머지 서류만 제출한다.
바. 전형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가.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출가희망자에게는 종단의 합동득도교육(태고총림 선암사에 입방하여 전통행자교육 및 승려의 습의를 수행함) 때 특혜를 부여한다.
나. 졸업생 전원에게 태고종단 2급 정포교사 자격증을 수여한다.
다. 졸업생 중 출가승려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선덕(善德)법계를 품수한다.
라. 졸업생 중 재가승려(전법사)에게는 태고종 5년 법랍경력의 수교(修敎)법계를 품수한다.
마. 범패학과 졸업생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바. 불교미술학과는 각종 공모대전 참여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국가고시)을 대비하여 특강을 실시한다.
사.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을 부여한다.

지방학생들의 교육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1982년 10월 18일 태고종립 불교포교사전문대학으로 개교.
1983년 6월 1일 동방불교대학으로 개명.
1990년 3월 1일 범패과 개설 및 기숙사 개설.
1991년 3월 1일 불교미술과 개설.
2004년 3월 1일 승가과 개설.
2005년 2월 28일 제22회 졸업식, 1,043명 졸업생 배출.
2005년 12월 20일 승가과 · 범패과 · 불교미술과를 승가학과 · 범패학과 · 불교미술학과로 공칭, 학과개념 부여 / 불교미술학과 2년제에서 3년제로 전환

문의처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136-823 서울시 성북구 성북2동 330-586
☎ (02)745-2030~2 FAX (02)744-3461
홈페이지 www.dongbang.org

대안교육 투자 나서자

유리한 여건 갖추고도 공식기관 없어
일부 설립 시도, 무관심으로 줄줄이 무산
불교 이념 실현할 새 포교방안으로 봐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3월 전국 비정규 대안교육기관을 각종학교(各種學校)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설립기준, 교육과정,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을 규정하는 대안학교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안교육의 중요성은 물론 유리한 여건을 갖춘 불교계의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불교계는 공식대안교육기관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척박한 실정이다.

2006년 1월 현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총 25곳 대안학교 중 종교계열 대안학교는 15곳. 기독교 단체나 개인이 만든 학교가 9곳, 원불교가 6곳이다. 반면 불교계는 전무하다. 비인가 기관인 '실상사 작은학교' 만이 불교가 운영하는 유일한 대안학교다.

물론 불교계에서도 그동안 새로운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노력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NGO 단체나 복지기관이 주도한 이러한 노력은 종단과 사찰, 불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대부분 무산됐다.

진각종 희당학원은 2007년 대안학교 설립을 목표로 3년 전 '희당학원 비전안'을 발표했으며, 참여불교재가연대는 2001년 경북 청도에 약 2천 5백여 평의 부지까지 매입하는 등 야심차게 대안학교 설립에 뛰어들었으나 이사장과 실무진 교체 등으로 인해 좌절됐다. 역삼청소년수련관 역시 작년 3월 '청소년대안학교 몽(夢)'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나 학생부족을 이유로 1년만인 현재, 잠정 휴교한 상태다.

대안학교를 추진했던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불교계의 의식부족과 만성적인 무관심이 가장 힘들다"고 토로했다. 종단은 종립학교와 청소년교화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청소년 수련원과 각 사찰 청소년법회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소년교화에 자족하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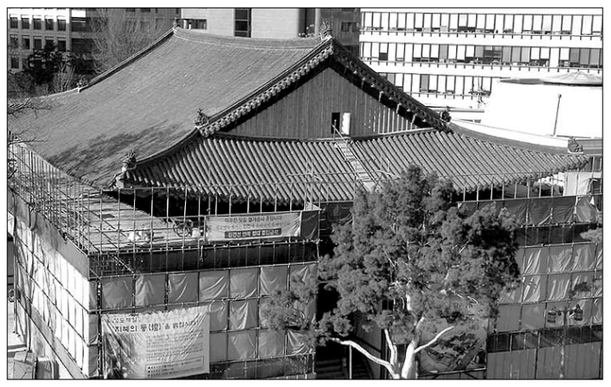
그러나 대안교육 관계자들은 불교계가 대안교육에 뛰어들 경우, 단기간에 활성화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은 매우 많은 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안학교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의 교구본사가 사찰수련을 정례화해 대안교실로 운영하거나 지역 포교당 및 불교계복지기관이 대안학교를 설립하는 방법, 23곳에 이르는 교계 종립학교와 대안학교가 연계를 시도하는 방법 등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 사찰과 단체를 넘어 종단 차원의 활성화 방안 수립도 중요하다.

실상사 작은학교 이경재 대표교사는 "대안교육을 '학교부적응자에 대한 교육'으로 볼게 아니라 '불교적 교육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포교방안'으로 보아야 한다"며 관련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인식 확산, 대학생불자연합회 등 청년신행단체의 교육을 통한 불교대안학교 지도자 양성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진정한 불교대안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선입견 재고와 종단 및 사찰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외형 살짝 드러낸 조계사 대웅전

'한국불교 일번지'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 대웅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 127호)이 3년간의 보수 공사를 끝내고 지붕을 덮고있던 가설 덧집을 철거해 외형을 드러냈다. 조계사는 현재 진행중인 내부 단청작업을 오는 6월까지 완료해 모든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내원암 소송 친일파 후손 패소

전통사찰 등록·점유취득 시효 조건 충족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땅 찾기 소송에서 내원암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지난 12월 30일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들이 남양주 내원암 일대 4만 8000여평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토지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이해창 후손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민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동관 557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원암은 1962년 전통사찰 등록과 함께 이 땅을 평온하게 점유해 오면서 1982년까지 점유취득 시효인 20년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강 부장판사는 "심리 결과 이해창이 제국주의 협력 대가로 해당 토지를 하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소송을 각하하지는 않는다"고 밝히며 이해창이 친일 대가로 내원암 일대 토지를 취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강 부장판사는 "봉선사와 내원암이 친일행위자 토지소유권 인정법규 자체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도 피고의 승소가 인정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각하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내원암 주지 재문 스님은 "2000만 불자와 함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는 친일파 후손들의 후안무치한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원암측 변호를 맡아온 송상교 변호사도 "친일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 이모씨를 비롯한 21명은 지난해 말 내원암 일대 땅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내원암 등을 상대로 토지소유권 확인소송을 냈었다.

유철주 기자

새만금 향한 만행 조계사서 출발

13일 새만금국민회의 주최

올 4월말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새만금을 찾아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이하 새만금국민회의)가 만행을 떠난다.

새만금국민회의는 1월 1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조계사를 출발, 오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를 방문한다. 이어 어민간담회를 열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어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새만금국민회의 관계자는 "수많은 갯벌 생명체와 더불어 살아가던 어민들, 새만금 갯벌을 살려달라고 호소하던 수많은 생명지킴이들이 작은 희망도 지속될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며 "이번 만행은 새만금의 생명을 향해 떠나는 마지막 여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0-0301 박봉영 기자

불교박람회 참가신청 봇물

2006한국불교박람회(www.bexpo.org)가 3월 23~26일 행사를 앞두고 관련기업들의 참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개최되는 대형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사찰건축 부문의 (주)풍산을 비롯한 대기업과 교계 대표기업인 고령기와, 법종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새롭게 불교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생업체들의 참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도 특징이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웅전 양식을 직접 지어 부스를 조성하거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로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찰난방과 소방 등과 같은 특수한 분야에도 부스를 따로 설치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잔여부스에 대한 접수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전시품목은 '사찰건축 및 첨단포교' '전통차, 웰빙관' '불교장례문화' '불교용품' '여행사' 등. (02)736-0993 강지연 기자

여성 성직자 모임 삼소회 30여명

세계 종교지도자와 만난다

불교, 가톨릭, 원불교 등 서로 다른 종교 여성성직자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 소속 회원 20여명이 2월 7일부터 23일까지 각 종교 지도자들을 친견하는 성지순례길에 나선다.

이들은 2월 6일 전남 영광 원불교 성지에서의 기도 모임을 시작으로 다음날부터 인도 바라나시, 영국 런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교 성지, 파키스탄의 이슬람 성지, 로마 바티칸 성지 등을 답사한다. 특히 이번 방문 일정중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티베트 불교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세계 성공회 지도자인 캔터베리 대주교 등과의 친견이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파키스탄에도 들러 구호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삼소회 회원인 진명 스님은 "만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주제는 '종교간의 화합과 세계평화'"라며 "이번 답사도 각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이 서로 다른 각 종교의 이해를 돕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마련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성지순례를 계획한 것은 사실 2003년부터다. 각자의 출가하게 된 사연과 수행과정을 정리한 에세이집 <출가(솝리刊)>를 그해 펴낸 것도 이번 성지순례의 경비 마련을 위해서였다. 2년에 만에 성사된 이번 순례는 LG그룹과 대한항공의 적극적인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031)969-4736 김주일 기자

수덕사,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수탁

충남 복지활동 활성화 기대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주지 법정,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덕사 지부)가 지난 12월 29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수탁자로 선정됐다.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사진)은 700평 부지에 건평 433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컴퓨터 교육실, 오락실, 취미교실 등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향천사 부설 어린이집 원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동준 스님이 관장으로 내정됐으며, 3월말 개관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덕사 주지 법정 스님은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으로 충남권 불교계의 사회복지활동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수덕사를 비롯한 충남 불교계가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진정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할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두식 기자

강정구 교수 문제 갈등
"즉각 파면"-"직위 복원"

강정구 교수 문제로 동국대가 갈등을 겪고 있다.

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주형) 소속 100여명은 1월 2일 동국대 명진관 앞에서 '강정구 교수 파면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총동창회원 중 주로 50대 이상이 모인 대회에서 강 교수 즉각 파면 등을 결의했다.

그러나 '강정구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원회'측과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를 반대하는 동국대 졸업생들'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직위해제 반대 서명 명단을 공개했다.

남동우 기자

인드라망공동체 특강
'서울에 부처님 나툰다'

생명존중의 부처님이 서울에 나툰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가 주최하는 특강을 통해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1월 12일부터 1월 20일까지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교육센터에서 '서울에서 부처 만나기' 두 번째 강좌를 연다. 강좌는 1월 12일 '탄생과 발심', 13일 '출가와 수행', 19일 '깨달음과 전법', 20일 '열반'을 주제로 오후 7시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사는 상임대표 도법 스님이 맡는다. (02)576-1886 박봉영 기자

진흥원 설립 30주년 기념
청소년 명상캠프 열려

격월간 <불교와문화>와 월간 <불광>은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1일까지 괴산 다보사 다보수련원에서 제2회 청소년을 위한 명상캠프를 진행했다. 70여 청소년과 10여 학부모 등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나도 부처님처럼'을 주제로 요가, 음악명상, 목탁염불 등을 체험했다. 특히 부처님의 생애를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계획을 세우는 시간도 마련돼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불교와문화>와 <불광>은 사찰 및 불교단체의 수련회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봉영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1월 5일 부터 □ 입학일 : 2월 27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사찰-지역연합체-종단 잇는 시스템 구축 시급

오는 2월부터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각 시·군·구에 설치돼 있거나 설치되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교육 및 안전보장 체계를 갖추고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자원봉사활동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자원봉사활동을 공적자원으로 전환해 활동 폭과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불교계의 자원봉사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얼핏 생각하면 불교계와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지역불교의 위상, 나아가 한국불교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은 이제 그 종교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조계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탑골자원봉사센터' 소속 어르신 자원봉사자들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위)와 신행단체 불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월 시행 자원봉사활동법으로 본 불교계 과제

정부, 예산 적극 지원 … 자치단체 스스로 복지 해결
지역 자원봉사센터가 종교활동 중심지될 가능성 커
개신교·가톨릭 복지 인프라 규모, 불교계의 3배 넘어
사찰별 자원봉사팀 구성·정보공유 네트워크 마련해야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민간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 설치와 전국단위 자원봉사단체의 정보연계 및 활동 중심체로서의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안전관리(보험가입 등) 등을 체계화해 자원봉사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겠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또한 지역단위 자원봉사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개입, 지원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부 개입 형태의 자원봉사시스템은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자원봉사활동을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은 1973년 정부차원의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읍면동 단위까지 3천여 개의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약 700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등록돼 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핵심과 의미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핵심은 각 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두고, 이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즉,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활동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돼 있다. 우선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복지를 지역민 스스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시민중심의 사회활동이 보다 활발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각 정보가 몰려들게 된다는 점이다. 자원봉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지시설 봉사 외에도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센터가 종교 활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일례로 모 지역의 경우 2004년 자원봉사센터 예산 가운데 2~3억원이 20여 자원봉사팀의 활동비로 지원됐는데, 이 20여 팀 대부분이 개신교의 청소년 자원봉사단체와 교회 노인무료급식팀이었다. 이처럼 활동여하에 따라 특정종교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위상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각 복지시설에 봉사자들을 연결해주는 자원봉사센터의 역할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특정 종교의 비중이 클 경우 당연히 그 종교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해지게 되고, 결국 특정 종교의 포교(선교)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 불교 자원봉사활동 현황

조계종 복지재단에 따르면, 불교 복지시설은 조계종 복지재단 산하시설 100여개를 포함해 모두 550여 개(비인가 포함) 정도로 추산된다. 그리고 이들 시설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불자 자원봉사자 수는 대략 100만명 정도로 추측된다. 물론 이 수치는 한 번 이상 활동을 한 봉사자의 수다. 실질적인 활동가는 30만명 정도인 것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은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시설(비인가 포함)은 대략 2000여 개 정도. 이 가운데 불교계 시설 550여개를 제외한 1300~1400여 곳이 개신교와 가톨릭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불교보다 3배 이상 시설수가 많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자원봉사자 수는 불교와 단순비교해 3배 이상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갖는 의미다. 각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불교의 3배 이상 된다는 것을 말한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미칠 영향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시행되면 불교보다는 시설 수나 자원봉사자 수가 월등히 많은 개신교와 가톨릭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개신교와 가톨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복지활동의 영역과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불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현 상태대로라면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의 불교 활동이 위축되면서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불교가 대비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불교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부산의 경우 부산불교복지협의회를 축으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부산에서 복지를 말하려면 불교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성을 구축하고 있다. 부산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교도시로 자리잡게 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복지에서의 불교위상이 결국 그 지역의 불교위상과도 직결되며, 앞으로는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본지가 전국 15곳의 불교복지시설 관계자에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으나, 법안 내용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만큼 사회변화와 법제도 변화에 둔감하다는 반증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원봉사도 필요하지만 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회적 흐름과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 등 몇몇 뜻있는 복지계 인사들은 서둘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단위사찰-지역연합체-종단'으로 이어지는 자원봉사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늘려 지역 자원봉사센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필수요건이라고 말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이용권 국장은 △사찰별로 자원봉사팀을 구성해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 자원봉자자 교육을 사찰과 지역 사암련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하며 △자원봉사활동 팀을 늘리고 △사찰별로 자원봉사활동 담당자를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볼렌티어 21의 송인주 전략사업기획 국장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면 수요와 공급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체계를 갖춰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경우 올해 안으로 생활권 단위 자원봉사센터가 1500곳 이상 들어서게 되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

구미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진오 스님은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것도 관건이지만 모범적인 모델과 사례를 정해 벤치마킹을 해야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단위사찰 단독으로는 쉽지 않다. 조계종의 경우 복지재단이 교육과 시설위탁을 지원하고 사찰과 연계해 활동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물론 자치단체의 사암련 차원에서 종단을 가리지 않고 범불교적인 연계활동을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명우·노병철 기자

2006학년도 일반전형 모집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2006년 의료시장 개방 / 한국 개원 가능

www.njutcm.edu.cn

중국 남경 한의과대학 학생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20명 (내신 80점 이상)	· 건강진단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사과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세계 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건강진단서)
· 접수마감 : 2006년 1월 13일까지

5. 문의처
· 주 소 : 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86322539 / 팩스 : 25-8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02)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 남경중의약대학 자매대학
원광대 한의대학
대전대 한의대학
삼화불교대학 분교

한국 총장 손 혜 인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읽고 외우고 실천하면 행복"

범어사 능가 스님 '운명 바꾸는 사강삼륜 실천운동' 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꿈꾼다. 그러나 다짐은 늘 작심삼일로 그친다. 삶의 방향을 바꿔 확 달라진 인생을 살고 싶은 의욕이 넘쳐나는 새해 첫달, 범어사 내원암 회주 능가(84 · 사진) 스님이 펼치고 있는 '운명을 바꾸는 사강삼륜(四綱三倫) 실천 운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강삼륜은 인생사강(人生四綱)과 인간삼륜(人間三倫)을 합한 말이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과 인간관계속에서 행해야 할 도덕을 가리킨다. 천지 만물에 감사(感謝)하자, 누구에게나 겸허(謙虛)하자, 많은 이에게 음덕(陰德) 쌓자, 수시 수처에서 참회(懺悔)하자는 가르침이 인생사강이고, 인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참다운 인간이 되려면 '오직 올바른 것만을 가려서 사는 사람이 되고, 오직 남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오직 부지런하고 끈기 있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삼륜이다.

세수 80세를 넘긴 능가 스님 평생의 수행과 공부를 단 한 장의 인쇄물에 함축해 놓은 사강삼륜의 가르침은 지극히 단순하다. 인쇄물을 받아 든 혹자는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네'하고 밀쳐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강삼륜에는 사람의 도리와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덕목을 일목요연하게 담기 위해 1년여 동안 동서고금을 망라한 철학서, 종교서적을 다시 탐독하며 종교를 초월한 진리를 축약한 노스님의 눈물겨운 자비심이 담겨있다.

스님은 지난해 연말 사강삼륜의 뜻을 풀이한 인쇄물을 만들기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인쇄소를 지켰다.

또한 평소 대중법문을 하지 않던 스님이 대중 법회를 자청하며 사강삼륜의 기초와 뜻을 풀이했고 실천을 간곡하게 당부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4월 (재)나옹불교전도협회를 통해 30년간 불교성전 법보시 운동을 펼치겠다고 발원한 스님이 이제 다시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팔십 평생의 수행을 응축한 실천덕목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방향타를 쥐어주기 위한 법보시를 시작한 것이다.

스님은 "사강삼륜은 인류역사 속에서 증명된 고정불변의 진리를 담고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자기운명을 바꾸고 자유로울 수 있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놓은 것이다. 불교라는 종교적 가르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이요, 인생의 기초가 담겨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실천덕목을 책상머리나 잘 보이는 벽에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읽고 외우며 실천한다면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인생사강(人生四綱)

천지 만물에 감사(感謝)하자
누구에게나 겸허(謙虛)하자
많은 이에게 음덕(陰德) 쌓자
수시 수처에서 참회(懺悔)하자

인간삼륜(人間三倫)

오직 올바른 것만을 가려서 사는 사람이 되자
오직 남에게 이롭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오직 부지런하고 끈기있게 사는 사람이 되자

1년여 철학서 · 종교서적 탐독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 일목요연하게

특히 스님은 "천지만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다른 것은 저절로 연결돼 이해가 된다"며 "내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천지만물이 수고를 하고 있다. 밥, 공기, 의복, 남편, 자녀 심지어는 내 몸속의 장기들이 작동을 잘 해주니 내가 살고 있는 것이다.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는 그 무엇과 만물의 작용덕에 살고 있으니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것이며 그 감사함을 안다면 절로 겸허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코팅까지 해 벽에 걸 수 있도록 돼있는 사강삼륜 인쇄물을 받아든 불자들은 "노스님의 간곡한 부탁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며 "앞으로 매일 이 가르침을 새기며 실천해서 참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051)508-6779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창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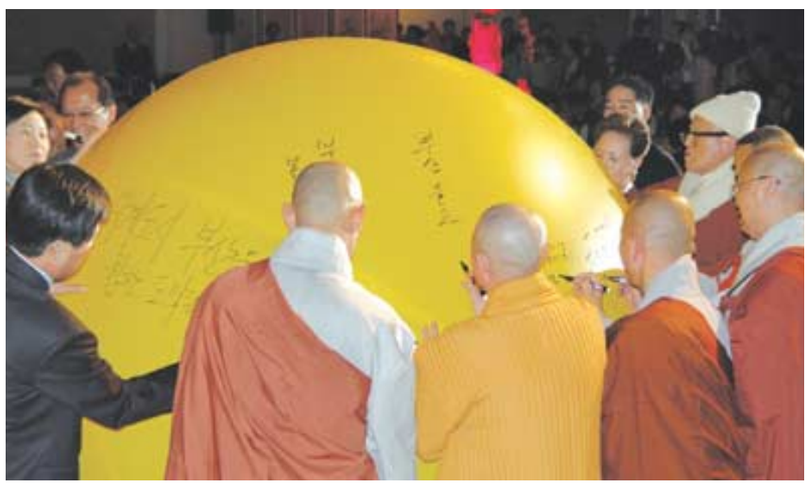
17일 코모도호텔서, 부산 경남 지도자 33명 이사로

부산 경남 불교여성 지도자들의 연대와 여성불자들의 정체성을 찾아나기 위한 부산불교여성개발원이 창립된다.

1월 17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창립 기념 법회를 봉행하는 부산불교여성개발원 초대 원장은 전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이영숙 코모도 호텔 대표가 맡았다.

또한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이숙자 한국유니세프 부산지회장, 선양복지원 김수현 이사장, 박태규 사회복지법인 홍익 대표이사, 김영순 홍법사 합창단장, 김춘자 범어사 원효암 신도, 민화옥 영빈관 대표, 천양자 안국선원 신도회장, 신혜숙 여성인권센터 대표 각 사찰 신도회장 및 신행단체장 등 33명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051)851-4166

천미희 기자



새 희망 풍선에 담아…

불기 2550년 부산불교계의 새해 원력을 담은 신년하례법회가 봉행됐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대성)와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 공동 주최로 1월 5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륨에서 열린 신년하례법회에는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식전행사, 법요식, 축하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부의장 지혜 스님,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삼광사 주지 도원 스님을 비롯 허남식 부산시장, 설동근 교육감, 김광삼 본사 사장 등 부산의 승가와 재가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사진=천미희 기자

표충사 청각장애인 템플스테이

1월 14일~15일 1박2일 동안 각 지역 농아인협회 간부로 구성된 한국농아인협회 정치아카데미 1기 수강생 60여명이 표충사 템플스테이에 참석한다. 수화합창단 8명과 수화통 역을 위한 진행요원도 표충사를 찾는다. 표충사에서 농아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템플스테이가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장작불 지피는 온돌방, 대나무 숲 산책 등 자연과 교감하는 템플스테이로 유명한 표충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농아인들은 주지스님과 차담 나누기, 수화 찬불가 공연, 한계암 답사, 108배 등을 체험하게 된다.

표충사는 둘째, 넷째 주말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첫째 셋째 주말은 20명 이상 신청 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한 평일이라도 20명 이상이 신청하면 언제라도 템플스테이를 열고 있다. (055)352-1070 천미희 기자

49일간 큰스님 초청법회 개최

부산불교교육원(원장 박동범)은 '재개원 기념 49일 큰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있다.

1월 4일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의 법문을 시작으로 49일간의 법회를 입재한 부산불교교육원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원허 스님(혜원정사 주지), 혜총 스님(감로사 주지),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범산 스님(영주암 주지), 정여 스님(여여선원 주지) 을 초청, 법문을 듣는다. (051)466-4080 천미희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박용하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기획실장

부산 불교 복지는 불과 15년 만에 눈에 띄는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고 각 복지 분야의 앞서가는 모델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때론 행정당국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사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부산 불교 복지의 오늘 뒤에는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박용하(48 · 기봉) 기획실장의 뛰어난 행정력이 있었음을 부정하는 이는 드물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이사장 혜총 스님도 "마음 진실하지, 신심 깊지, 게다가 행정에까지 밝으니 불교복지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 실장은 불교가 곧 복지임을 강조한다. 복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 곧 불교적 가르침에 있기에 수행에도 고삐를 늦추지 않으며 행정 실무 능력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힘을 쏟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위탁기관 수가 늘어나고 사회복지법인 불국토에서 '늘 기쁜 마을' '내원' 등 불교 사회복지법인이 파생되면서 '불교계가 하면 성공한다'는 인식전환에 성공했다. 타 종교계의 견제를 받을 만큼 불교 복지만의 전문성과 역량도 키워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성공 뒤에는 더 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위탁 경쟁에서 무수히 떨어지며 좌절도 맛봤다. 그러나 94년 개금복지관 위탁을 위해 2년 전부터 준비작업을 하고, 98년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위해서는 95년부터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하면서 불교 복지가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박 실장의 행정력은 구슬 꿰기였다.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단위 사찰별로 드러나지 않게 진행돼 왔던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돕기 등을 제도권내의 복지사업으로 꿰어내는 일을 진행했다. 또한 불교적 복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위해 '불교사회복지연구원'도 설립했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 불교를 빼고 청소년 분야를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아성도 쌓았다.

"불교에는 복지 자원이 많다"는 박 실장은 "지금까지가 불교복지 기반 조성, 자원 개발, 확산의 시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불교복지의 역량을 연대하고 불교복지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 불교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도 만만찮다.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도나 행정이 뒷받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박 실장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불교계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혼모, 성폭력 등 복지 영역을 세분화, 전문화해가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불교적 가르침을 복지와 접목한 프로그램 연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박 실장의 구슬 꿰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경쟁력을 갖춘 종무 행정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실장은 전문 행정가로서뿐 아니라 개금복지관 관장을 맡으며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보였다.

"은퇴하는 날까지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이고 싶어요. 정년을 채워서 퇴직하면서 늘 불교복지 발전을 위해 부처님 심부름을 하고 또 보다 나은 불교복지의 미래를 위해 끝없이 공부하고 노력할 겁니다."

타 종교 견제 받을 만큼 전문성 역량 키워
불교와 복지 접목한 프로그램 개발에 진력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대구불교계, 서문시장 대형화재 피해상인 돕기 나서

화마 딛고 불심으로 희망 찾자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신도들이 1월4일, 화재피해를 당한 상인들에게 따끈한 차를 나눠주고 있다.

1월 5일, 대구 서문시장은 여전히 매캐한 화기가 진동하고, 대형화재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잃은 피해상인들의 절규와 호소, 울부짖음이 가득했다. 설날을 앞두고 활기에 넘쳐야 할 2지구 상가건물은 붕괴위기를 맞아 검게 그을린 채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냈고, 아직 남아있는 두 대의 소방차와 주위를 점검하는 소방대원들이 29일 악몽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지난 12월 29일, 영남지역 최대의 재래시장 중 하나인 대구 서문시장에 발생한 대형화재는 2지구 1160여 개의 상가를 고스란히 잿더미로 만들었다. 오갈데 없는 상인들은 서문주차 빌딩 앞에서 대체 상가 마련을 요구하며 추위도 아랑곳없이 연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상인 중 60~70% 이상이 불자로 추정되는 가운데 지역불교계가 피해상인 돕기에 나서 큰 위로가 되고 있다.

서문시장 불자 상인들로 구성된 서문자비거사림회(회장 김강식)는 화재가 발생하자 조계종 9교구 봉황 봉사단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는 소방관을 도우며 즉각적인 활동에 나섰다. 회원중 5명이 피해를 입는 등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서문자비거사림회는 누구보다 서문시장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 피해상인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불교계에 전달하고 도움을 주선하는 등의 안내도 도맡았다.

대구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도 3일 총무국장 선광 스님, 허석구 신도회장과 함께 서문시장을 방문해 피해상인들을 위로하고 스님과 신도들이 모금한 성금 이천만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지성 스님은 "이번 화재를 서문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모두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대구 사원주지연합회(회장 법혜)도 7일 성도절 기념 대법회에서 성금을 모금한 후 피해상인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장엄정토회(회장 김상길)의 주관 하에 스님과 전 신도가 하나 되어 피해상인 돕기에 나섰다. 불자 상인들의 구체적인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1월 4일부터는 서문주차빌딩 앞에서 컵라면과 따뜻한 차를 나눠주며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또, 16일부터는 피해상인 돕기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기수별 모금활동도 벌이고 있다. 영남불교대학은 상인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매일 3교대로 15명씩 나와 봉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서문자비거사림회 김강식 회장은 "이처럼 어려운 때 불자들이 나서 부처님의 동체대비사상을 실천하며 부처님 정법수호의 계기가 돼야한다"며 불자들의 자비행을 요청했다. 글 · 사진=배지선 기자

서문자비거사림회 상황파악 및 도우미 나서
동화사 스님 신도들 모금한 성금 전달 위로
영남불교대 15명씩 3교대 봉사 활동 벌여

경북도 불교유산 2건 도지정문화재로

문수사 묘법연화경 · 서악사 석가모니후불탱


구미 문수사 '묘법연화경'


예천 서악사 석가모니후불탱화.

경상북도는 구미 문수사 소장 묘법연화경과 예천 서악사 석가모니 후불탱화를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것을 1월 2일 예고했다.

구미 문수사 묘법연화경은 1477년 조선 성종때 고산 화엄사에서 간행한 목판본으로 당시의 서체와 양식, 도각 등이 잘 드러나 있고, 예천 서악사 석가모니 후불탱은 1770년 제작된 선묘화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의 상단에 넓적한 풍대가 그려져 있으며, 사천왕상이 둥근 원속에 배치된 점이 다른 불화에서 찾기 힘든 특징이다.

경상북도는 한달간의 공고를 거쳐 이들 불교유산을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성주사암련 시무식

성주사암연합회(회장 법원, 천불사 주지)는 1월 4일 천불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지역불교를 이끌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시무식에서 회장 법원 스님은 "성주사암연합회 운영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을 구상중이며,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이끌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3년 임기동안 지역불교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 발족

'붓다의 향기-겨울날의 축제' 갖고 15일 출범

수익금 전액 불우이웃돕기에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가 1월 15일 오후 1시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김흥국, 현철, 조항조 등 유명한 불자 가수들이 출연하는 대규모 행사 '붓다의 향기-겨울날의 축제'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지부장 송시향)는 대구 여래선원 주지 해선 스님을 지도법사로 약 20여명의 회원이 모여 발족을 준비하고 있고, 약 30여명의 지역불자들이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과 의성 운람사 주지 동경 스님을 각각 후원회 총재와 지도법사로 추대하고 후원회(회장 이용우) 발족도 준비하고 있다.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 '여명의 소리'에는 대한불자가수회장 김흥국씨가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2부에는 박완일 교수의 초청강연이 이어진다. 3부 '겨울날의 축제'는 김흥국, 조항조, 현철 등 유명한 불자 가수들이 대거 출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2004년 전국체전을 기획한 오필영씨가 무대기획을 맡아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의 화려한 출발을 알릴 예정이다. 지도법사 해선 스님은 "지난해 12월 김흥국씨를 만난 자리에서 타종교에 비해 불자가수에 대한 교계 지원이 열악해 원로가수들의 개종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를 발족시켜 이끌겠다는 발원을 세우게 됐다"고 밝혔다.

행사 참가비는 1만원, 대한불자가수회 대구지부는 행사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 소년소녀가장돕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053)583-8001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첨단, 자연이 만난 아이들 공간

3월 준공앞둔 대구 '참좋은 유치원'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동 1301-20번지에 높게 솟은 참좋은 유치원은 외형을 완전히 갖추고 마무리작업이 한창이다. 2003년 8월 시작한 불사가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물론 실내 내장작업이 만만치 않지만 굵직한 틀이 잡힌 상태. 천진면목 동자들이 뛰어다니는 유치원을 상상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대지 508평, 건축연면적 2500여 평,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은 규모면에서 지역 최고다. 참좋은 유치원 건물의 다른 명칭은 옥불보전. 그대로가 부처님 성전인 셈이다. 들어가는 입구 3층 높이에는 8m 규모의 관세음보살을 봉안할 예정이다.

지하1, 2층은 주차장, 기계실, 식당이 들어서고 1층부터 3층까지가 유치원 전용 공간이다. 유치원에는 30명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는 15개 학급이 들어선다. 교실마다 어린이 화장실과 사물함, 학부모 참관실이 따로 있고, 각 층의 자료실은 물품 목록 버튼을 누르면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최첨단 기계 설비를 할 예정이다. 그 외 유치원에는 양호실과 전시실, 탁아실, 사진관, 사물놀이실, 멀티미디어실, 전통기악실, 다례실, 무용실, 음악실, 피아노실 등이 마련되는데 무엇보다 2층에 들어서는 방송실과 스튜디오가 이색지다.

스튜디오는 약 50여 평정도의 공간에 불과하지만 최첨단 방송장비와 조명시설을 갖추게 된다. 어린이들의 다양한 활동과 불교 상담활동 등을 녹화해 불교계 방송매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방송실은 원아들이 직접 참여해 방송 활동을 하고 각 교실에서 방송을 듣고 볼 수 있도록 꾸며진다.

4층과 5층은 약 14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고, 6층과 7층은 도심속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다. 화장실이 딸린 20개의 개인 방사가 층마다 있고, 중간에 대중선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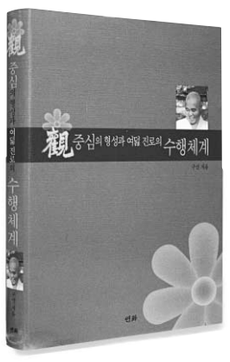
지하부터 7층까지 그야말로 참 좋은 유치원이다. 그러나 참 좋은 유치원의 숨겨진 자랑은 8층에 있다. 어린이 실내 수영장과 생태공원이 들어서는 8층은 영남불교대학 대관음사 옥상에 모셔둔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어 하늘법당이라고도 한다. 어린이 수영장은 자연채광을 고려해 투명한 재질의 지붕을 덮고, 야외생태공원에는 연못과 8각 정자가 마련된다.

영남불교대학은 3월 준공을 하면 영남불교대학 입학식을 옥불보전 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유치원은 2007학년도에 개원할 계획이다. (053)474-8228 배지선 기자

양호실 멀티미디어실 등 마련 2층 방송실 눈길
부처님 볼 수 있는 야외생태공원 유치원의 백미



대승불교 최고의 수행체계
觀 중심의 형성과 여덟 진로의 수행체계




구선 지음
312쪽 / 값 18,000원

이끌려가지 않고 이끌어가는 삶,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의 역량을 갖추고자 하는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見性을 넘어 成佛로 가는 법

스스로의 인과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갈구하는 자들의 필독서 - 자재정사 정오스님
나는 어디에서 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에 대한 명료한 해답을 제시하는 책 - 동아대학 이재기 교수
극단적 선택에서 벗어나고, 자기 업식을 제도하고, 인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 김종영 행정학 박사

수련회 안내
- 서울 수련회(산본) : 매달 둘째 주 토요일 ~ 수요일
- 연화사 수련회 : 매달 넷째 주 주중
수련회 장소와 정확한 일정은 홈페이지(http://www.kwan.or.kr/) 또는 전화(054-682-7770)로 문의 바랍니다.
※ 위의 수행을 통해 면역성질환과 성인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여덟진로의 수행체계와 선정법과의 관계

선정 / 여덟진로	일선정 一禪定	이선정 二禪定	삼선정 三禪定	사선정 四禪定
중심의 일 心 → 無心	중심자리를 인식하고 편안함을 세운다	중심분리를 통해 중심을 표면과 이면으로 나눈다	표면은 철벽, 이면은 텅 비워진 상태	철벽이 허물어져서 텅 비워졌다
근본의 일 識 → 無念	안팎의 경계를 아무렇지 않은 마음으로 대한다	표면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관여되지 않는다	이면의 비워짐에 의지를 집중한다	표면의 공과 이면의 공이 합일을 이루었다
면모의 일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이 서로 장애가 되지 않는다 (색의식의 발현)	의식의 일치를 이룬다 (수의식의 발현)	존재목적을 설정하고 이치를 타파하며 자기사상을 갖춘다 (상의식의 발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 (행의식의 발현)
각성의 일	표면적 유위각 (색의식의 발현을 원활하게 이룰 수 있는 각성)	미세적 유위각 (미세망념을 제도할 수 있는 각성)	돈독한 미세적 유위각	일시적 무위각
자기제도	장부순화 (옴수련을 통한 장부순화, 중심의 편안함을 통한 장부순화)	척추순화 (척추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갈비뼈 순화 (갈비뼈에 내장된 업식의 순화)	위장 소장 대장의 순화, 황정의 형성과 꼬리뼈순화, 채약
교류성의 확 보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계에 충실한다	인과적 관점의 교류를 행한다	교류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조화적 관점에 입각한 교류를 행한다
존재목적의 실 현	있는 그대로 본다	혼의식을 일깨우고 외부의식과 교류한다	색계뿐만이 아니라 무색계에서도 자기를 실현한다	조화의 성취
인 식 의 틀 깨 기	경계를 대하는 아무렇지 않은 마음을 공고히 한다 (근본의 인식에 충실한다)	증극을 자극해서 선천기를 표출시키고 그로써 중심이 철벽이 되도록 한다	자성의 공을 증득한다	오기의 조화와 무상삼매의 증득

※ 이하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상수멸정(想受滅定)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세상 觀 수련회(http://www.kwan.or.kr/)를 참조바랍니다.

태평이가 전하는 태평농 이야기



이영문 지음 / 368쪽 / 값 10,000원

'때가 되어 갈 줄 아는 것이 계절이고 때가 되어도 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람이다. 때를 모르는 것은 신간 뿐,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순응할 줄 안다.'

이 책은 농사를 통해 자연과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경상도 외딴 곳 별학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태평꾼 이영문이 전하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만나본다.

태평농법!!
이것은 단순히 농사짓는 방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이미 태평농법을 삶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흙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라고 주장한다.
적게 먹는 즐거움도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삶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사람과 자연, 아니 자연 속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가 어찌 농사짓는 법으로 만족할 사람인가?
그에게 모든 것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기에 외부로부터 단절당한 섬이라는 문화권에서 새로운 문명을 열어 가려고 하는 것이다.
- 최진룡(국립경상대학교 농대 교수)

도서출판 연화 TEL 02)302-8145, 054)682-7770 / FAX 054)682-8155 http://www.kwan.or.kr

“쉼없이 정진해 부처가 됩시다”

광주사암련, 성도절기념 도문 스님 초청법회
광산구불교협 창립 축하…포교대상 시상도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1월4일 개최한 도문 스님 초청 특별법회에 1천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해 법문을 듣고 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향)는 1월 4일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도문 스님 초청 성도절 특별법회’를 봉행했다.

광산구 불교협의회 창립축하법회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천운, 조계종 前 포교원장 암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현고, 동구불교협의회장 지각, 남구불교협의회장 상운 스님 등 사암 스님과 박광태 광주시장, 송병태 광산구청장 등 지역기관장, 이상진 광주 전남신도회장, 백남용 광주전남 포교사단장 등 신행단체장, 재가불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초청법사 도문 스님(죽림정사 조실)은 법어를 통해 “우리도 쉬지않고 정진하여 부처가 되어야 한다”며 “참선, 염불, 간경, 주력, 불사수행으로 업장소멸과 혜안을 구족하는 불교 5대수행”을 강조했다.

이날 창립된 광산구불교협의회 초대회장 성오 스님(마하보리사 회주)은 인사말에서 “광주에서도 불교 불모지로 불리는 광산구 불교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이 모였다”며 “불국정토를 이루는데 승 · 속이 하나되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송병태 광산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인류의 스승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은 인류 모두의 축제일이다”며 성도절과 광산구불교협의회 창립을 축하했다.

이날 포교대상 시상식에서 한국전통불교영산회(회장 혜형)와 자비신행회(이사장 현장)가 단체상을 수상했다. 또한 도신(광주교도소 교화위원), 무심 스님(성연사 주지)과 민상홍(한마음선원 합창단)가 공로패, 이호준(시청불자회장), 이개호(전남도청불자회장), 진화 스님(증심사 주지)이 감사패를 받았다.

성도절 법회에 이어 광주불교 승보회(회장 광민)도 조대여고 임정아 양 외 8명의 학생에게 장학증서와 기금을 전달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인터뷰

광주 광산구 불교협 초대회장 성오 스님



“종파 초월해 포교·나눔 앞장”

“부처님이 6년 고행끝에 깨달음이란 큰 과제를 성취한 뜻 깊은 날, 불자들이 하나되어 정진과 포교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게 되어 기쁩니다”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1월 4일 창립법회를 개최한 광주 광산구불교협의회 초대회장 성오 스님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를 풀게 됐다”며 “종파와 승속을 초월해 화합으로 불법 홍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광주의 5개구 가운데 광산구는 가장 교세가 열악해 불교 불모지로 불리고 있다”며 “28개 회원사찰과 불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빠른 시일내에 호남불교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또 “지역 사암과 연대해 체계적인 불교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이웃사랑 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성오 스님은 백양사 강원을 졸업하고 심향사 주지 및 조계종 중앙종회 11대, 12대 종회의원 역임했다.

재소자 독경 · 찬불가 경연
선각종, 장흥 교도소 위문



대한불교 선각종(총무원장 정암)은 지난 12월 29일 장흥교도소 대강당에서 ‘제5회 독경 및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불자 재소자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정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우리가 자리해 있는 이 자리가 그대로 법당이며 수행도량이다”며 “부지런히 정진해 참 나를 찾자”고 말했다. 기념식에 이어 영산작법 전수자 도담 스님과 문하생, 미륵사 합창단이 전통 작법의식, 찬불가 등의 불교의식을 선보였다.

경연대회에서는 본선에 오른 10팀의 불자 재소자들이 출연해 독경과 찬불가 등 경연을 펼쳤다.

한편 이날 장흥 선산사(주지 진법) 신도회는 재소자들에게 내복과 떡,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준엽 기자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
전승관 건립 힘모으기로



한국불교 태고종 충북교구종무원(원장 월담)은 1월5일 충북교구종무원사인 청주 반야정사에서 종무원장과 각 지역 분원장을 비롯한 대덕 원로 스님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시무식(사진)을 갖고 전승관 건립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무식에서는 또 혜광 스님(단양 금수사 주지)과 도관 스님(제천 도선정사 주지)이 단양과 제천 분원장에 임명됐다. 혜철 대전 · 충북지사장

통일법회로 새해 활짝열어
광주 동구불교협, 신년하례



광주동구불교협의회(회장 지각)는 지난 1월 4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신년하례 및 통알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동구지역 사암 스님과 재가불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지각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동구불교협의회는 연등축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등을 주최하며 지역불교를 이끌어 왔다”며 “새해에도 광주 불교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부처님, 역대조사와 스님, 재가불자들이 신년인사를 나누는 통알의식을 갖고 새해를 맞이했다. 이준엽 기자

생활 속 불교문화

‘진묵대사와 고시래’

야외에서 음식을 먹기 전에 조금씩 떼어내 던지는 것이 ‘고시래’다.

백과사전의 풀이에 따르면 “고수래 · 고시례 · 고씨네 등으로도 불리며 지신(地神)이나 수신(水神)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고 무사히 행사를 치르게 해달라는 기원과 잡귀 추방의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있다.

국내 최대 곡창지대인 호남평야 만경 뜰에는 진묵대사(震默一玉, 1562~1633)가 ‘고시래’의 원조로 알려져 오고 있다.

효심 깊은 진묵대사는 어머니 조의(調意)부인이 돌아가자 김제 만경 화포리 불거촌(佛居村)에서 장사를 지낸다. 이곳은 진묵대사 탄생지로 천년간 향이 끊이지 않는다(無子孫 千年 香火之地)는 명당터이다. 지금도 이곳 진묵대사 모친 묘에는 해마다 수십만명의 참배객이 줄을 이어 향을 올리고 있다.

이곳에서 내려오는 구전에 따르면, 만경뜰을 지나던 진묵대사는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로부터 공양 받을 때마다 음식을 조금 떼어내 어머니를 위해 들판에 던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농부들도 진묵대사 어머니를 부르며 음식을 나눴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의씨에게 예’를 올린다는 말이 ‘고씨네’ ‘꼬시래’ ‘고시래’ 등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불거촌 초입에서 만난 송봉철(75 · 율리부락)씨는 “일하다가 술이나 밥을 먹을 때 ‘허~이, 꼬시래’ 하고 음식을 나누면 집안이 잘되고 농사가 잘되지. 꼬시래는 하는 사람도 좋고 받는 이도 좋다고 허거든”이라며, 마치 진묵대사 모친을 부르는 듯 모습을 취한다.

불거촌은 약 3만~4만평 규모의 야트막한 구릉이다. 진묵대사 모친 묘 주위에는 성모암(주지 종우)과 조앙사(주지 송헌)가 자리해 있다. 몇 해전만 해도 진묵사라는 절까지 무려 3곳의 사찰이 함께한 진묵성지이다.

특히 성모암은 지난 2002년 진묵대사 모친 묘 옆에 ‘고시례전’을 건립해 고시래 의미를 계승하고 있다. 전각 안에는 진묵대사와 모친 조의부인 영정이 모셔져 있다. 조앙사 진묵전에도 진묵대사와 모친 조의씨, 누이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효심깊은 진묵대사, 공양 받을 때마다
어머니 위해 음식 조금 떼 들판에 던져


전북 김제시 조앙사 조사전에 봉안된 진묵대사 영정(가운데)과 누이(왼쪽)와 모친(오른쪽) 모습.

불거촌에서 나고 자란 조앙사 주지 송헌 스님은 “진묵대사가 고시래를 한 연유는 유주무주 고혼을 위한 헌식의미였지만 후대에 오면서 부처님 화신으로 불리는 진묵대사의 영험력에 의지해 소원을 비는 의미가 담겨있는 듯하다”며 “고시래가 기복이 아닌 작복(作福)의 실천행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이준엽 기자

▲성모암: (063)544-0416 조앙사: (063)542-5585 ▲교통편: 자동차로 서해안고속도로 동군산 IC, 만경 IC에서 ‘대야컴문소-김제’간 도로이용. 버스나 기차로 김제에서 만경 화포리행 시내버스 이용(30분 간격)

양주 대원정사(大願精寺) 3년 천일 지장기도 동참 안내

제방의 도량을 탐방하며 수행정진 하던 중 지장도량 건립 불사의 뜻을 세워 1986년 양주 일영리에 대원사(大願寺)라 명명하여 자그마한 지장도량을 창건하였으나, 관광유원지화 되면서 수행도량의 유지가 어려워 1989년 현재의 이곳에 부지를 확보하여 천막과 비닐하우스 등 임시가건물에서 8년 동안 밤낮없이 불사성취 원력기도 수행과 땀의 결실로 현재의 도량을 건립하였습니다. 중생의 약하고 나태한 심신과 모든 흩어진 것들의 근원을 한곳에 모으는 의미에서 대원정사(大願精寺)라 사찰명을 개명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장대불 입상(35자) 좌우보처 도명존자 무독귀왕, 삼살개 조성봉안을 시작으로 육지장 입상, 명부전(영가 장기 보존), 대웅전, 천당과 지옥 등 불교 관광지를 조성하여 고통 받는 중생들의 안식처와 의지처로 가꾸고 성취해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소납의 기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3년 천일 지장기도를 발원하오니 뜻깊고 인연있는 불자님들은 수희 동참 바랍니다.

대원정사 주지 해련 합장

3년 천일 지장기도 기도시간

- 지장대불 철야정진기도
  - 시간 : 매주 토요일 밤 11시 ~ 새벽 4시
  - 장소 : 지장대불 앞
- 신중기도 : 매월 음력 1일 – 3일
- 산신불공기도 : 매월 음력 3일 오후 7시
- 약수터 용왕 불공기도 : 매월 음력 8일 오후 7시
  - 매일 : 새벽 3 ~ 6시 / 오전 11시 ~ 1시 / 오후 5시 ~ 7시

천일기도 동참안내

- 스님 백회 공양 참회기도
  법당에 가족등(황금색)을 올리고 3년 천일기도 회향때 스님 100분을 모시고 대중공양을 올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는 큰 행사입니다. 동참하신 분들의 이름을 현판에 각인하여 그 큰 공덕을 오래 전할것입니다.
  - 매일 / 매월 / 3년
- 법당 황금색등 (가족단위) 1달 / 3년
- 외부 기도 등 (1인 한등 / 2인 한등)
  - 100일간 / 49일간 / 21일간


2005년 8월 31일 (벽제 동아석건에서 조성)
지장보살님, 무독귀왕, 도명존자를 모시는 도중에 맑은 날씨임에도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20분간 내려 도명존자의 두 눈에 눈물 자국형상을 남기고 하늘은 다시 청명해 졌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벽제 동아석건에서 조성)
오후 3시 10분 지장보살님께서 육환장을 손에 쥐시자 화창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무지개가 지장보살님의 머리위에 1시간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 대원정사에서는 납골당과 수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농협 201058-52-053979 (박경자)

대한불교조계종 고령산 앵무봉 대원정사 주지 석해련 합장
주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고령산 앵무봉 (장흥유원지 내) 전화 031)855-5501~3

동방불교대 졸업해야 '수계 자격'

태고종 종도교육체계 강화 '선교육 후득도제' 시행

학과명칭 변경…불교미술학과 3년제로 연장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도 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다진다.

태고종은 종립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수계 자격을 줄 방침이다.

태고종은 올해를 '선교육 후득도' 제도정립 시행의 원년으로 정하고 동방불교대학 역할을 강화해 향후 4년 내 종도교육기관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동방불교대학을 졸업하고 득도하는 스님에게는 법랍 5년의 경력을 인정해 선덕(善德) 법계를 품수할 방침이다. 재가승려(전법사)에게도 법랍 5년 경력의 수교(受敎) 법계를 품수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 같은 종단 방침에 의해 동방불교대학은 학과 명칭과 학제 운영 시스템을 정비했다. 현재의 '승가과'를 '승가학과'로, '범패과'를 '범패학과'로 바꿨다.교육 커리큘럼도 실기나 기능중심이 아닌 이론교육에 비중을 더 많이 두었다. 실기교육을 기반으로 하되 학적 토대 구축도 이뤄나가겠다는 의도다.

그동안 2년제로 운영돼 오던 불교미술학과도 올해부턴 3년제로 전환된다. 단청장만 있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분야가 단청장과 불화장으로 나눠지면서 보다 내실있는 전통미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동국대와 위덕대, 금강대 등 기존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강사진들도 대폭 초빙한다. 18명의 전문 교수진들이 학교 측과 연계해 학사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하춘생 동방불교대 교학처장은 "올해 이론 중심으로 새로 짜여진 동방불교대의 커리큘럼은 철저히 출재가자들을 아우르는 태고종도들의 재교육에 맞춰져 있다"며 "입학생 비율을 보면 기존 종도들이 70%, 일반인들이 30% 정도인 상태"라고 밝혔다. 하 처장에 따르면 일반 입학생중 10% 정도는 실제로 출가를 하는 상황. 동방불교대는 이미 종도교육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운산 종무원장 스님이 지난 1월 3일 신촌 봉원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안에 종도재교육 연수시설과 동방불교대의 새 부지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힌 것도 종도 교육에 치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태옥 동방불교대 교학국장은 "빠르면 금년 내로 종단은 하드웨어인 교육 시설지원을, 동방불교대는 소프트웨어인 종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호흡을 맞춰 체계적인 교육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태고종 총무원 2기 집행부 부장급 인사

기획 백운 교무 법안 재무 동우 문화 묵원 교임 기봉 스님

태고종은 1월 5일자로 2기 집행부를 이끌어갈 총무원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부장에 백운 교무부장 스님을, 교무부장에 법안 기획부장 스님을, 재무부장에 동우 교임부장 스님을, 문화부장에 묵원 사업부장 스님을, 교임부장에 기봉 문화부장 스님을 각각 전보 발령했다. 한편 월해 총무부장, 법현 사회부장, 성중 호법부장은 유임됐다.

이와함께 총무원 실무 종무행정 업무를 올해부터는 3개 팀으로 나누는 실무팀 책임제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실무국장 인사도 단행했다.

이에 총무팀국장에는 법타 재무팀국장을, 재무팀국장에는 법륜 총무팀국장을, 각각 전보발령하고 교무팀 국장에는 휴암 총무원 사서실장이 겸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운산 총무원장 스님은 장진호 총무원장 사서를 문화과장에 전보발령하고, 총무원장 사서에 성오 스님을 새로 임명했다.

김주일 기자

각종단 새해 힘찬 출발

조계종 "종단발전 다지는 소임 다하길"

태고종 전승관 불사 완공의 해로

천태종 북녘동포에 자비법음 전파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가운데)을 비롯한 주요 종무직 스님들과 종무원 대표가 시무식 축하 떡을 절단하고 있다.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 종무기관이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거행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는 소속 종무원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무식을 갖고 2006년을 힘차게 출발했다.

시무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공직에 있는 자가 이권을 취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면 법이 어지러워진다"며, "스스로 종단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할 종무원이라는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도 1월 3일 오전 11시 신촌 봉원사에서 '2006년도 신년하례 및 종단 시무식'을 봉행했다.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비롯해 남파 승정원장, 인공 중앙종회의장, 월운 중앙사정원장 스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운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가장 중요한 종단의 사업은 전승관 불사의 완공"이라며 "내주부터 임원 스님들과 전국을 순회하며 전승관 불사의 참 취지를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태종(총무원장 운덕)도 1월 3일 오전 10시 단양 구인사에서 시무식을 가졌다. 2백 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시무식에서 운덕 총무원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병술년 새해 우리종단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던 대북사업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사부대중이 함께 힘을 합쳐 북녘동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법음을 홍포하자"고 격려했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정)은 1월 4일 오후 2시 서울 통리원 종의회 회의실에서 2006년 병술년 시무식을 봉행하고 희망찬 종무행정의 새출발을 다짐했다.

회정 통리원장은 "올 한해는 진언과 염송, 찬불가 등 진각종 소리문화의 체계화를 정립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고 그 사업에 힘쓰자"고 밝혔다.

대승종(총무원장 법천)은 1월4일 오후 1시 서울 신당동 흥도사에서 종도대회 및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 **조동종**(총무원장 심월)도 강서구 둔촌동 총무원 법당에서 **원융종**(총무원장 법륜)은 12시 구로동 총무원 법당에서 시무식 및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법상종(총무원장 해월)도 1월 4일 오후 2시 평택 총무원에서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주일 · 조용수 기자

나눔의 온정기 우리이웃 현대불교신문 · buddhanews.com

나눔현장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

음식 나누며 온정 전해

"필요한 물건을 골라갈 수 있으니까 좋지"

최한배(74 · 영등포구 대림동) 할아버지는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방문하기 위해 신길6동까지 오랫만에 외출했다. 이 가게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다.

15평의 작은 매장 안에는 다섯 개 묶음으로 포장된 라면, 진공 포장한 김치와 밑반찬들, 쌀과 각종 3분요리식품, 설탕, 식용유 등이 선반마다 빼곡히 들어차 있다. 또 다른 방문객인 김숙자(69 · 영등포구 신길6동) 할머니는 세 가지 물건을 집어 들었다.

"쌀하고 김치랑 쌀떡이랑 좀 가져갈꺼여. 겨울이라 먹을 것이 곤궁했는데 이렇게 쌀떡을 가져갈 수 있으니 올해는 떡국도 끓여먹을 수 있겠구먼."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이 운영하는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영등포구 내에 사는 기초생활수급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료품을 공급하는 복지시설이다.

이곳의 식품은 모두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증받아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한 달에 한번, 세 가지 품목을 선택해 가져갈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11시에서 5시까지.

아직 하루 이용자는 평균 5~7명 수준. 하지만 "매장도 깨끗하고 물건도 풍부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점차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신길복지관은 지난해 영등포구로부터 푸드마켓 위탁업체로 선정 된지 3개월만인 12월 28일에 개소했다. 자치구 협의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푸드마켓을 지역 복지관이 위탁운영하는 것도 이례적이지만, 무엇보다도 불교계 복지관의 푸드마켓 운영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더욱 뜻 깊다.



한달에 한번 무료로 음식을 가져갈수 있는 영등포구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둘러보고 있는 어르신.

저소득층 주민대상 식료품 무료공급

작년말 문열어…입소문에 이용객 늘어

신길복지관은 앞으로 영등포구 생활수급권자 8000명이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장지연 재가복지팀장은 "불경기라서 기부문화가 크게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음식을 나누는 온정으로 삶의 희망을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마켓은 기업과 불자들의 자발적인 기탁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13곳의 기업이 따뜻한 나눔의 정신을 보여주며 기탁을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탁자가 필요하다.

푸드마켓에 후원물품을 내고자 하는 기업이나 불자는 푸드마켓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동참할 수 있다. (02)843-1377

이은비 기자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의 번영의 수호신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만사형통의 불화!



높이 88cm, 폭58cm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등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난을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코튼 판화용지에 28도 옵셋판화인쇄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려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제작된 수월관음도는 집안에 모시는 순간부터 삼재를 소멸하고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도 물리치며 시작부터 풍요롭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는 불화로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로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돌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밤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

관세음보살 福 지갑

병술년 원하는 재물을 얻고 소원 성취하리라!!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는 금강저도 부착

60년만에 온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 해다. 세상사는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동서남북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삼재를 소멸하고 악귀와 잡귀를 쫓고 승리하는 **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안돼던 장사와 사업이 잘되고, 사업실패로 좌절하던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포기했던 돈이 들어오고, 쌓여있던 재고가 팔리고 증권과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 벽축원불공**을 드려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사찰에도 최고!

불교TV와 123개의 다양한 채널 3개월간 시청료 무료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사찰이 크게 늘고 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화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고화질 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게임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월시청료 23,000원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산간벽지사찰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12월말까지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맥파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린다.** 문의전화(02)741-4477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어험, 예불은 이렇게 하는거야." 진도 불장사의 견공 하마가 스님과 신도와 함께 예불을 올리고 있다. 하마는 목탁소리나 염불소리만 나면 법당에 들어와 예불에 동참한다.

우리도 불성 있다구요 '왈왈'

병술년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화두 주인공 사찰안내 · 예불동참 · 절 수행 등 맹활약

'개의 해' 맞은 사찰명견

2006년 병술년(丙戌年)은 개(犬)의 해다. 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친근한 동물이다. 1700 공안 중 대표적인 화두인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의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의 주인공도 바로 개다.

특이한 것은 전국의 사찰에서도 견공들이 명물로 맹활약하고 있다는 점이다. 십 수년 간 절을 지키며 도량석과 새벽예불, 좌선 등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개, 신도와 탐방객들을 사찰 구석구석까지 안내하는 개, 스님과 함께 절 수행을 하는 개 등 전국의 견공들은 지금 '불성을 가진 존재'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고려시대 조성된 지장탱에는 지장보살의 애견인 선청(善聽)이 중앙 하단에 그려져 있다.

 # 대승사 '종무원' 백구

경북 문경시 산북면 사불산(四佛山) 자락에 위치한 고찰 대승사에는 보물 제991호 금동보살좌상만큼이나 유명한 개가 있다. 바로 경내 주차장에 자동차가 도착하면 어김없이 뛰어나오는 '백구'다. 백구는 벌써 2년째 사찰 안내 소임을 맡고 있는 '종무원'이다.

백구의 모습은 1월 4일에도 다르지 않았다. 오전 10시경 2대의 자동차에 나눠 탄 10여명의 신도들이 주차장에 도착하자 백구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타나는' 영화제목의 존재처럼 모습을 드러냈다. 매일 보는 식구처럼 '뜨거운 포옹' 인사를 나눈 백구와 신도들은 자연스럽게 대웅전을 향해 오른다.

신도들이 옆문을 이용해 대웅전에 들어갔으나, 백구는 신발장 앞에 앉아서 기다린다. 신도들이 참배를 마치고 나오면 공양간을 비롯한 다른 전각으로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짜 '친절한 백구씨'다. 임태분(56 · 문경시 점촌동)씨는 "백구는 개가 아니다"고 잘라 말한다. "백구가 '개'라면 결코 사찰 안내와 등산로 탐방 등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어떻게 개가 한 번도 짖지 않을 수 있느냐?"며 개가 아닌 이유를 조목조목 나열했다. 실제로 백구는 대승사에 온 이후로 한 번도 짖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 '꼬리 흔들기'로 탐방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안거 때마다 대승사를 찾아 살림을 보살피고 있는 안정영(59 · 대구시 수성구 파동)씨도 "백구는 등산객들의 길 안내를 위해 400~500m에 이르는 산길을 마다않고 오르내리고 있다"며 백구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대승사 주지 탄공 스님도 점심 공양 후 백구와 함께 경내를 거닐며 방선을 한다. 탄공 스님은 "백구가 종무원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니 틀림없이 전생에서부터 불교와 적지 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골굴사 '보살' 동아

올해 열네 살이 된 동아는 경주 골굴사의 '살아있는 보살'이다. 한 살이 되기 전 골굴사로 와 오늘까지 절과 함께 한 '산 증인'이다. 한창 때는 스님보다 먼저 일어나 스님들을 깨웠고 도량석과 새벽예불에도 빠지지 않는 모범 '불자'였다. 또 스님들이 참선을 할 때도 좌복 하나를 차고 앉아 삼매에 빠지곤 했다.

지금도 골굴사의 신도들과 수련회에 참석했던 시민들은 '동아보살'을 보러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고 있다고 한다.

골굴사의 한 종무원은 "동아는 언제나 주지스님의 방인 화쟁료를 지키고 있다"며 "일반 불자들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는 것 같다"고 치켜세웠다.

 # 죽림정사의 공부하는 마야

대구 동화사에서 지난해 8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계율대법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마야는 대구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마야는 계율대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동화사 통일기원대전 계단 밑에 웅크리고 앉아 법문을 들었다. 처음 마야가 왔을 때 관심을 보이지 않던 신도들도 마야가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자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라"며 축원을 아끼지 않았다.

마야가 절에 오게 된 인연은 마치 옛날 고승들의 출가 상황을 보는 듯하다. 죽림정사의 한 신도가 마야를 데리고 법회에 참석했는데, 마야는 법회가 끝났음에도 다시 집으로 가려 하지 않아 죽림정사에 '주석'하게 됐다고 한다. 누런 리트리버 종인 마야는 지금도 법회가 열릴 때마다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 열성파 '불자'다.

 # '절생활 1년이며 절한다' 불장사 하마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의 주인공 개보다 더 뛰어난 하마. 진도 불장사에서 절을 하고 불공을 올리는 개 하마는 진도를 대표하는 진돗개다. 하마는 법당에서 목탁소리나 염불소리만 나면 경내에 있다가도 법당으로 들어와 스님, 불자들과 함께 예불을 드린다.

하마가 절을 하기 시작한 것은 3개월 전. 다른 개들과 달리 예불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던 하마는 불장사 주지 북산 스님으로부터 절하는 방법을 '배웠고' 지금은 어느 불자 못지않게 절을 잘한다.

북산 스님은 "하마는 관세음보살 정근을 유달리 좋아한다"며 "개의 해를 맞아 하마와 불자들에게도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고 말한다.

유철주 기자



대승사 백구가 신도를 대웅전으로 안내하고 있다.



'참선하는 개' 경주 골굴사의 동아. 염주를 목에 둘렀다.

법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대구 죽림정사 마야.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꿔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 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앞면 / 뒷면
달마 관음 지장 소원성취 건강부 사고방지

◀ 달마카드
소재 : pp금장 달마도 부적카드
규격 : 50mm × 75mm
※ 50장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연꽃 차걸이
※ 50개이상 주문시 사찰이름을 새겨드립니다.


달마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 농협 949-02-315451(정정애)

문화원형사업 아시나요

생활양식, 전통문화, 예술, 이야기, 대중문화, 신화, 역사 기록 등의 내용을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Culture Content). 일본은 '사무라이' 라는 아이콘을 활용해 세계시장에 일본 문화를 각인시키는데 성공했고 중국은 '쿵푸' 를 비롯해 다양한 무술로 세계인을 매료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하면 떠올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류의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지만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문화원형의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감로탱 속에 나타난 인로왕보살을 게임제작에 활용하기 위해 2D캐릭터로 만든 모습. 한서대학교 애니메이션 영상연구센터 제작.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이란?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사업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문화원형에 기초한 차별성 있고 지속적인 문화콘텐츠개발을 통한 창작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역사, 전통, 풍물, 전승,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원형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를 제공하고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2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이 사업은 매년 자유공모, 지정공모 및 정책공모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에 필요한 창작소재 개발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지원된 예산만도 500억이 넘으며 개발된 소재들은 현재 그 내용에 따라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캐릭터, 만화, 음악, 예술, 출판, 방송영상, 디자인, 패션, 공예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어떤 작품들이 선정됐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2년부터 매년 공모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141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2005년 선정되어 과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35개 과제를 제외한 모든 과제들은 문화콘텐츠닷컴(www.culturecontent.com)에 공개되어 있다.

이들 자료들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으며 시나리오, 캐릭터 개발 등 문화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선정된 과제 가운데는 불교소재 과제도 많다. '만봉스님 단청문양의 디지털화를 통한 산업적 활용방안 연구 개발', '한국 불화에 등장하는 인물 캐릭터 소재 개발', '게임제작을 위한 문화원형 감로탱의 디지털 가공', '사찰건축 디지털 세트 개발' 등 직접적인 불교소재만도 10여편이 넘는다. 지난해에는 '앙코르와트의 디지털콘텐츠화', '한국 승려의 생활문화 디지털콘텐츠화' 등 주제를 정해 놓고 공모자를 선발할 정도로 불교 소재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높은 편이다.

불교계는?

그동안 불교 기관에서 불교 소재 과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곳은 2005년 '앙코르와트의 디지털콘텐츠화' 과제에 선정된 동국대학교 전자불전연구소 뿐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 부다피아 등 불교계 IT 관련 단체에서도 일부 공모사업에 응모한 경험은 있지만 선정되지는 못했다.

매년 공모 통해 과제 선정, 예산 지원
불교 소재 관심높은 반면 응모 적어
만봉 스님 단청·감로탱 등 선정되기도
전문성 갖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일각에서는 공모 선정 심사위원들의 불교 전문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시각적인 효과가 띄어난 일반 기업을 선정하는 경향이 높다는 불만도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불교계의 관심 부족과 아이디어 부재가 이같은 현상을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를 잘 모르는 일반 기업이 불교 관련 과제를 수행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교리를 잘못 해석해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교 기관이나 단체에서 문화원형 디지털화사업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김기헌 문화원형사업팀장은 "2006년에도 과제 공모를 통해 문화원형 창작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불교가 문화원형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기관이나 단체에서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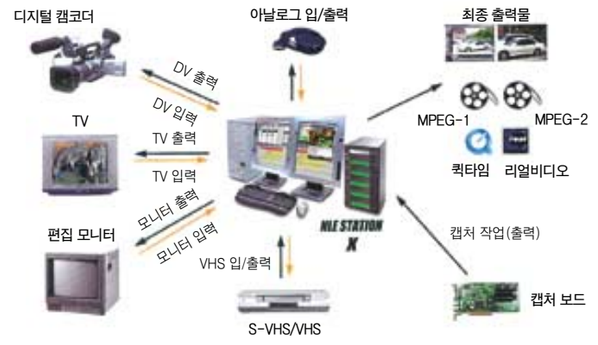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우리 가족 영상 만들기 1

애물단지 캠코더 이젠 신행도구로

손쉬운 편집 방법 등 제시

요즘 웬만한 가정에서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캠코더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폰 등이 보급되면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계들이 늘어만 가고 있다. 하지만 막상 사 놓기만 했지 어떻게 촬영하고 편집해야 할지 몰라 영상 촬영 기능을 사용하지 않거나 캠코더는 아예 서랍 속에 넣어 놓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에 한두번 영상 촬영을 하다가 흥미를 못 느껴 제대로 된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사용하지 않는 캠코더나 기타 영상 촬영 기기의 사용법을 배워보자. 누구나 자신의 추억거리를 손쉽게 촬영하고 자신이 원하는 형태나 내용으로 편집할 수만 있다면 캠코더는 더 이상 비싸고 필요 없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 나아가 신행생활을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촬영해 두었다가 다양한 형태로 편집해 두고두고 즐길수 있고 결혼식 비디오도 한번 보고 책장에서 먼지만 쌓이게 놓아 둘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더욱 깊어가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으로 편집하여 즐길수도 있다.

신행생활 측면에서도 우리 절의 스님이 법문하는 것을 촬영해 법회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스님의 법문을 들려줄 수도 있고 사찰 행사를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 해외에 있는 불자들에게 까지도 우리 사찰의 소식을 알릴 수도 있다. 특히 영상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불교를 쉽고 재미있게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 포교 활성화도 기대된다.

본 코너에서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법에서부터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활용법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또한 오디오 믹싱, 자막 편집, 웹 스티리밍, DVD나 비디오 제작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도 함께 소개해 궁극적으로는 신행활동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김두식 기자

핸드폰 하나면 쇼핑 '끝'

CJ몰 모바일홈쇼핑 본격화, 마하몰도 개시 눈앞

"이젠 휴대폰으로 쇼핑하세요."

CJ몰(www.cjmall.com)은 최근 '모바일 CJ몰' 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모바일 쇼핑 시대를 활짝 열었다.

'모바일 CJ몰' 에는 상품 이미지, 상품 기술서, 상품평 등 다양한 상품 조회는 물론 적립금과 쿠폰 사용 등 상품 결재까지 기존 쇼핑몰에서의 모든 기능을 휴대 전화상으로도 가능하게 구현해 놓았다.

무선인터넷 요금만 부담하면 이동통신사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CJ홈쇼핑에서 생방송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도 휴대폰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해 PDA를 통해 쇼핑 서비스를 실시한 불교전문 쇼핑몰인 마하몰(mahamall.co.kr)도 모바일 쇼핑을 준비하고 있다. 모바일 쇼핑 서비스가 시작되면 다양한 불교 관련 용품은 핸드폰 하나만으로 구매 할 수 있어 불교 상품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스님용 참선시트

스님들의 법회 및 기도 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할수 있도록 설계되어 장시간 사용 시에도 몸을 편안하게 하며, 마루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참선하는 선객이나 기공 수련자들에게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참선 및 기공수련 시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기공수련시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격180,000원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醫通(의통)·신병(빙의·해리) 기적의 치유법 전수반 모집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최면사 神 치유명상가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최면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 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며 내공 외공을 소유한다.

● **神치유명상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現卍 신선암 주지
現神 임상최면 협회장
現참 선공 협회장
現神 치유명상 협회장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특별전수과정
목요반 ● 개강일: 2006. 1. 12 18:00 - 22:00 (12회 과정)
금요반 ● 개강일: 2006. 1. 13 18:00 - 22:00 (12회 과정)
전 수 비 300만원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조상천도비법	칠차원 생명법
자비손 치유법	전생 치유법
음성 내공법	
빙의·해리 치유법	내생 치유법

◆ 교육후 참선공 자격증 神임상최면 자격증 神치유명상가 자격증 발급.
◆ 지도자과정 전수 후 사회활동 하실 분 협회에서 적극 추천·후원 합니다.
◆ 불치병, 난치병, 신병 상담 환영. 주지스님이 직접 상담.

卍 신선암 참선공협회. 神치유명상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1번)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시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기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종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광짝,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사고/대행/대여/재활용/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곶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급 안내
준비되어있는 아이템
무료로 유통사업하실 분
불교선물 상품
특허출원중 SBS방송된 상품
성공이 보장된 아이디어 상품
• 조건:불자님, 유통경험있는분
017-533-1356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	각	사	바라나비	경
안		륙	시			
식	49재	재	식	물	충	전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하단)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문의 (02)2631-2205,1305

사찰의 모든행사
지극정성으로 해드립니다
생전 예수재 49재 천도재
바라춤 나비춤 살풀이
산신재 용왕재 각종의식
010-8758-0606
월광 합장

모든 불공의식을 저렴한 보시금으로 지극정성껏 해드립니다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범음범패, 회신곡
011-850-0176

역학 관상학 개인지도
"계절이 운명을 바꾼다"
저자 김창규 원장 직접 강의
◐ 적중률 높은 학설 쉽게 단기간 완성
◐ 공부를 하였으나 자신이 없는 분 비법전수
미래음양회 010-9959-8894
02-2231-8894
서울 지하철 2,4,5호 동대문운동장 해승빌딩3층

점안식, 천도재, 49재, 천수바라, 작법, 태평소, 사찰 재·의식
행사해 드립니다
010-9444-1608
무아 합장

주방보조(여)구함
55세미만, 경력무관함
국가보훈대상자 숙식하실분 환영
삼천사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소재지: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02)385-8205

역학방문지도
명리학, 관상, 수리신점
초보에서 고급까지 창업책임지도
스님 특별대우
자연이치가 곧 명리이다
해임법사 ※전화상담환영※
02)3437-8433

학인스님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 제2기 범음범패 학인스님을 모집합니다
49재의식,천도재,천수바라작법
011-9601-6676

老母모시고 사는 비구승 입니다
작고(규모) 적고(금액) 아담한 암자 (절터) 저렴한 보시가격에 구합니다
※老스님, 보살님 모시고 사찰관리도 좋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부전·기도스님 등 기타 노모를 모시고 살아 갈 수 있는 곳 연락주십시요
010-7281-2885

기도하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북 영주
011-9342-9850

산좋고 물좋은 아주 깨끗한 내원암에서 신심있는 공양주를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경북 예천
054)653-1180

행자, 공양주 모십니다
▷서울 종로
02)396-3405

젊고 건강하신 분으로 사찰음식 경험 풍부하고 신심이 견고하여 대중화합에 능숙한 분을 공양주 보살님으로 모십니다
(능력별 차별보시 100-150만원)
063)353-0396
010-7770-3223

불교유치원 조리사구함
숙식가능한자
▷강원지역
011-9129-5108

의식여법하게 하실 부전스님, 기도스님 (백일기도가능) 비구스님 모십니다
063)564-2861

와불조성불사에 능력있는 화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성남
011-212-9810

염불수행이나 기도정진하실 스님 및 제가불자께서는 연락바랍니다
011-856-4578

공양주보살님
(40~50대)
부전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승려일것)
011-538-1529

사찰함께 불사하실분이나 소자본으로 사찰운영 하실분 찾음
법당1동 요사채3동
삼성각1동 용신각1동
010-3088-5890

절에서 처사 겸 운전기사 원함
나이 53세.
1종 대형면허 있음
010-6476-6026

사무원 구함
(PC가능자)
공양주 구함
(경북 상주)
054)531-9357
010-9357-6966

비구 부전자리 원합니다
개인사찰이나 보살님이 운영하는 사찰을 책임지고 운영하고 싶습니다
017-571-55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 ~ 60대
054)971-7561

행자수행스님 되실분
(45세 미만 남·녀)
체계적 교리와 수행, 사찰 총무겸 사무원 모심
(피시가능자, 구미지역)
010-3131-1094

공양주보살 및 막일할 처사구함
▷보시 각 80만원
행자모집합니다
010-3070-3535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9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화:02)720-5719 / 02)720-56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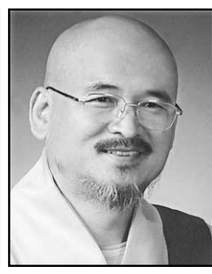
대한불교전통조계종 행자모집
스님 되실 분 남 0명 · 여 0명
• 5개월 수행 후 전국사찰 소임 • 사찰 등록하고자 하는 분 환영
경북 칠곡군 지천면 황학리 황룡사
054)972-3174 / 011-502-3966

행자[예비스님, 남·여]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성지아파트 3동202호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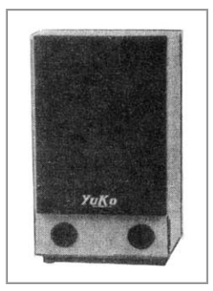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 사주, 작명, 궁합, 택일 • 기초부터 5개월
• 대상 : 누구나 가능 • 주4회, 1일 1시간씩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지하철 시청역 6번출구에 있는 골목 50m

기치유사 수련생 모집
기치유사 양성반
일반적인 질병 외에도 원인 모를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 합니다.
모집대상 대체의학 관련자, 체육 건강분야 지도자, 포교사, 간병인, 대체요법에 관심있는 일반
수업기간 오후 2 : 30 ~ 5 : 00 매주 토요일 주 1회 / 9주 과정
개강일자 2006년 1월 14일 (토) 오후 2 : 30
수련회비 80만원(9주)
기치유(기치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십니까? www.gichiu.com 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치유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더라도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중증의 상기병, 안면 통증, 간경화, 통풍, 암 류마티스, 당뇨 뿐만 아니라 원인모를 질병에도 치유효과가 크다.
수련지도 : 윤한흥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주)명상신문 논설위원
참고서적 : 기치유와 기공수련 / 기치유학(윤한흥 지음)
문의 www.gichiu.com 02-3482-5032
후원 한국기치유연구회 Energy Healing Center / (주)명상신문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승광불교전통미술원



•불 상
•탱 화
•개 금
•원형조각
•불사상담
•천불삼천불
•불교용품
귀의 삼보 하옵고....
대덕 큰 스님의 성원으로
불교미술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수 있도록
지도 편달 바라옵니다
전 화 02-491-5336, 02-494-7478
공 방 031-595-6557, 031-595-6558
휴대폰 011-226-5336
e-mail : 0112265336@nate.com
목우 손동술 합장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국민건강을 생각하며 100% 천연으로 만들었습니다
山寺조청 웰빙 자연당
• 각종 요리, 무침, 조림 등 반찬 만드실 때
• 떡, 빵, 과일 드실 때 • 고추장, 김치 담그실 때
1100g×2병 = 18,000원
옛날 방법 그대로 만든 순수한 맛,
이제는 물엿 대신 산사조청 웰빙 자연당을 쓰십시오.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 동해안 ● 법당: 25평 ● 요사: 50평 ● 부지: 270평 ● 가액: 6억
● 위치: 충남 ● 법당: 15평 ● 요사: 30평 ● 부지: 3,000평 ● 가액: 3억5천
● 위치: 전남 ● 법당: 18평 ● 요사: 37평 ● 부지: 15,600평 ● 가액: 6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김해시내사찰 -25억 명당,납골당절치
2.서울시내큰사찰구함
● 기도스님,노전,부전스님
● 공양주,법당 화주보살님
● 종무직,경리 사무장 처사
● 49재,천도재,점안식

※ 사찰일자리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순창
● 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8천 7백만원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전면 오서리 탑동
● 대지 : 600평 법당 : 25평 요사 : 37평
● 가액 : 3억

055)271-8496
011-768-8744

사찰 안내

● 위치: 가평 ● 대지: 97평 ● 법당: 30평 ● 요사: 46평 ● 가액: 1억9천
● 위치 : 경남 ● 부지: 630평 ● 법당: 20평 ● 요사: 3동52평 ● 가액: 2억5천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사찰안내

● 위치 : 원주 구곡단지내
● 대지120평 건평80평 1층 50평 요사, 2층 30평 대웅전
● 가액 : 5억 5천만원 (은행 1억8천 설정)

※ 비구니 스님 수행처로 적합

010-9292-4828

토굴안내

● 위치: 강원도 원통 고속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전체평수: 1,400평 대지: 300평, 건평: 24평 황토2중 흑벽돌집
● 신축한지 1년 토굴 또는 별장으로 적합함 부처님 신중탱화등 다 모셔져있음
● 가액: 1억7천만원

016-337-9736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532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천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군 의령읍 ● 부지: 30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청) ● 구법당 15평(목조단청) ● 요사채 40평 ● 기타 : 산신각,석등 ● 가액 : 2억 9천 ● 백년고찰로 산세 계곡이 아주 좋음
● 위치: 부산 광역시 소재 ● 부지 300평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채 : 60평 ● 산신각 5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특징: 전통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 북구 경대교부근 신축건물
● 평수 : 5층 건물 중 4, 5층 사용
● 4층 법당 50평, 요사채 40평 (방4) 5층 스님실 25평(방2)
● 보증금 2000, 월170(전세가)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도심포교원 최적지 최고의 구조

011-820-4617

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영덕 풍력단지 내 영덕대게 특구지역
● 평수 : 940평 전용허가 200평
● 진입로 포장 상수도 완비

010-7109-3281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112-60호 당고개역에서 1분거리
● 법당 : 실평수 18평 1층 반지하 17평, 옥상 다락방
● 부지 평수 33평
※ 건강상 문제로 '급' 양도
● 유타원지역으로 허가됨
● 가액 : 3억 3천만원

02)939-2800
011-894-2809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불로동 4층건물의 3층
● 평수 65평, 법당 50평, 주방1, 방3,
● 미타불, 관음보살, 지장보살 소불 200불
● 가액 : 1700백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1-509-1525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갈월동
● 평수 : 6평
● 삼존불, 후불탱화
● 포교원하던자리이며 기거할 수 있음
● 총가액 : 600만원 보증금 100만원 월 30만원

02)718-0327

사찰터 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돌로둘려싸인 팔각정 천하절경명산으로 소문난 명승고적지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최요지
● 대지 : 54평
● 1층 요사, 2층 법당
● 가액 : 3억 2천만원

※ 사찰양도, 운영하실분 연락 바랍니다

011-9557-4922

토굴 안내

● 위치 : 경주시
● 내용 : 물이 있고 개울옆에 절 있음
● 법당 완벽
● 전국적으로 신도가 방문함.
● 가액 : 3천5백만원

011-829-7738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역 옆, 큰길에서 50m)
● 평수 20평
● 가액 : 보증금 5백만원에 월 50만원(권리금 3백만원)

※ 즉시법회 가능

02)302-6941
019-501-3590

포교당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우체국옆
● 시설(40평), 법당, 삼존불, 각탱화, 방2, 부엌, 집기일체
● 가액: 보증금 4천만원 월 50만원 협의절충

016-542-10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구미 진평동 신도시. 위치 좋음
● 평수 : 38평, 1층
● 가액 :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없음

※ 즉시 법회 가능시설. 일체 완비

010-3993-5270

사찰터 안내

● 위치: 서울 중랑구 망우3동 면목역도보 10분거리
● 평수 : 4층건물, 3층 약70평
● 시설 : 법당, 방3, 거실겸주방 욕실,창고,주차장,환기시설
● 가액 : 전세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271-7603

토굴 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 법당 : 10평
● 삼존불 호신불(30분) 모셔져있음 방3칸 동굴조각상(산신)
● 가액: 2천5백만원

010-4577-456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 서구 소재
● 법당 : 70평
● 특징 : 교통편리, 건물3층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없음

053)565-3494
011-529-3494

포교당 안내

● 위치 : 일산
● 평수 110평 (7층 중 3층)
● 법당 50평, 요사 60평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0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최상의 포교당으로 사정상 안내함

011-9366-112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근교
● 평수 900평정도, 실평수 2000평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봉각 2평 요사채 방6개 온방시설완벽
● 특징: 부산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천하 요세의 사찰임 사찰연역 약 60년 도량
● 가액: 5억

010-4877-5900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 중산리
● 토굴 기도처 암자110평 상,하채
● 가액: 6500만원

011-827-8191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무료 전수

011-834-8545 / 055)337-8600

사찰 안내

● 위치: 부산시내 대사찰
● 도량면적 1000평
● 가액: 9억

051)326-1545
011-563-154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산밑 풍경수려한곳)
● 총평수: 460평중 요사 90평
● 법당터 200평 산신각 신축 5평 토목공사 및 법당터 완공
● 가액: 3억3천만원

011-477-7746

사찰안내

● 위치 : 마산시 내서읍
● 대지 약 100평 요사채 주지실 법당 3동 삼존불 16나한
● 즉시법회가능
● 가액: 8500만원 (융자 1000만원 따로)

010-8524-2253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 송현동
● 2층건물중 2층
● 평수 75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즉시법회가능 대형주차장 있음

011-450-557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읍 (44번도로 10분) 삼태기터 350m
● 임야 12364평(평당28000원) 전답 1556평(평당 10만원) 요사채(황토방2채)45평 식당겸방(5개) 70평

011-669-2503

암자안내

● 위치: 옥천 (대전 20분거리)
● 평수: 250평중 100평 등기필
● 법당,산신각 요사채2동 주차장
● 가액: 1억5천만원

011-9405-8186

사찰안내

● 위치 : 동해안 명산 자락에 위치한 사찰
● 사찰부지: 종교부지등 2000여평 사용중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삼포 건물 1층건물: 현대식 스라브건물 요사채 방4개 2층건물: 1층 황토방3 공양간, 2층 회관 사찰전용 포장된 도로 2곳 주차장완비
● 공익법인에 부임하는 관계로 장기전세

010-3660-2867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수동면
● 임야 13,000평. 과수원 4,300평 대지 100평
● 남향 주택 30평 (황토방 있음)
● 가액 : 6억5천만원

※산머루, 옻나무 심어져 있음 산에는 밤나무 정원 잘 꾸며져 있음. 누각 있음

011-232-1993

포교당 안내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5분거리
● 7층. 평수 50평. 방大3개. 법당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30만원 시설비 2천9백만원

02)2699-9358
016-533-5151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절충가능)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포교당(급) 안내

● 위치: 대전시 유성구 (시장부근)
● 평수 25평, 3층중 2층 전체
● 법당 신설완비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25만원(시설비 250만원)
● 철학이나 침술하시는 스님, 처사, 보살님 환영

※ 해외 사찰 파견으로 급히 안내

019-619-3231

암자 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
● 대지: 80평
● 법당, 요사채, 산신각, 스님방
● 가액: 1억5천만원

017-563-1188

토굴,사찰, 선방부지 안내

● 위치: 지리산~덕유산 사이 백두대간 주능선 50m
● 관리지역 : 대지,잡종지,전 합1600평
● 건물현황: 황토방5동,강당1동, 창고2동,사무실1동,취사동1동
● 이전관계로 매매 합니다.
● 매매가격 5억2천

주인직 010-3684-9288
오후 2시 ~ 6시사이 통화

사찰(부지)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금마리
● 임야 5천평, 준농림지

※ 종교용지, 팬션, 휴양지로 적합

● 가액 : 평당 7만3천원

※ 제천경계 구역. 제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15분거리
※ 입구까지 트럭 진입가능

영신부동산 031)382-8945

포교당 안내

● 위치: 서울 마포구 빌라 5층중 3층(27평)
● 법당, 방2, 주방, 욕실, 거실, 삼존불, 탱화
● 가액: 전세 1억1천만원 시설협의절충

010-6234-0149

포교원 같이 운영하실분이나 인수하실분

● 위치 : 서울 동작구 사당동 전철역 3분, 3층건물중 2층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 법당 20평, 접견실, 주방겸거실 총 40평
● 바닥전체 도시가스보일러 시설완비 ※ 포교하는데 특단의 비법을 전수해드림

0505-229-1472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제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래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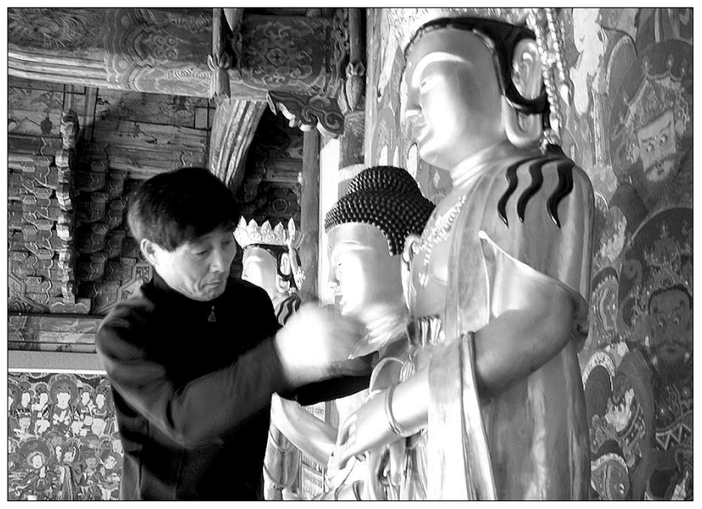
상담문의 경북 군위군 효령면 매곡동 팔공산 계곡 전화번호 : (053)324-1289 지수 대진 합장

사찰 찾아가 성보관리요령 전수

조계종 2006년 문화재 관련 주요사업

국내 문화재의 상당수가 불교계 문화재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1707건 중 65%에 해당하는 1105건이 불교 문화재다. 이 가운데 482건을 조계종 사찰이 소유 · 관리하고 있으니, 문화재 보존 측면에서 조계종의 역할은 막중하기 이를 데 없다.

조계종 내에서 문화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문화부(부장 탁연)가 올해 가장 공들이게 될 사업은 △성보보존지원사업 △방재대책 수립 △신계사 복원사업 △불교문화재소유권 확립 등이다. '성보보존지원사업'과 '방재대책 수립'이 문화재를 잘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계사 복원'은 사라진 불교를 되살려 맥을 다시 잇는 작업이며, '불교문화재 소유권 확립'은 불교문화재들을 있던 자리로 되돌려 본래의 온전함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김홍식 성보전문위원이 천은사 극락보전아미타불의 묵은 때를 정성스레 벗겨내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문화부

출토유물 공고기간 현실화 등 법개정 적극 추진
부당하게 소유권 상실한 문화재 반환 소송 전개
금강산 신계사 전각 7동 건립 등 복원 더욱 활기

■성보보존지원사업= 조계종 문화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성보보존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찰을 찾아 유물보존상황을 점검하고 유물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관계자들에게 관리요령을 전수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금년에는 20여개 사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중심에는 조계종이 지난해 9월 영입한 '유물포장의 대가' 김홍식 성보전문위원이 있다. 김 전문위원은 '무지' 탓에 잘못 관리되고 있는 유물의 바른 보존방법을 사찰측에 알려주고, 여건에 맞는 최상의 보존환경을 구축해준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70여일에 걸쳐 10개 사찰을 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1개 사찰에 대략 7일 가량 소요된 셈이다.

김 전문위원의 서비스는 직접적인 보존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됨은 물론 사찰 관계자들의 문화재 보존의식을 새로이 하는 자극제 역할도 하고 있다. 김 전문위원의 꼼꼼하고도 정성 가득한 서비스를 받아본 사찰들은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02)2011-1960

■불교문화재 소유권 확립= 현재 문화재보호법 하에서는 사찰 경내에서 불교관련 유물이 출토된다 해도 해당 사찰이 소유권을 인정받기 어렵다. 출토유물의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공고기간 내에 사찰과 유물의 관련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출토유물 소유권 판정을 위한 중립적인 기구 설치, 출토사실 공고기간의 현실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금년 상반기 입법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미 '부당'하게 소유권을 상실한 문화재 몇 점에 대해서는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다. 양주 회암사 출토유물과 현등사 사리구를 둘러싼 소송과 같이 개별 사찰 단위로 진행된 경우는 있지만 조계종이 직접 개입한 적은 없다.

이 점에서 소송 불사 방침은 문화재 소유권 회복에 대한 조계종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방재대책 마련= 양양 산불로 인한 낙산사 화재 이후 조계종은 방재대책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기대했던 통도사 · 해인사 · 송광사 등 3개 사찰에 대한 사찰종합방재시스템 시험운영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문화부는 사찰종합방재시스템의 시험 설치 필요성을 널리 알려 내년 중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조계종 문화부는 현황파악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32개 사찰을 대상으로 방재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계사 복원= 2004년 시작된 금강산 신계사 복원은 3년차를 맞아 올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1동, 산신각을 지은 데 이어 금년에는 극락전, 나한전, 축성전(왕실의 원당 건축) 어실각(사도세자 원당) 등 7개 동이 새로 지어진다. 신계사 복원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부지 발굴부터 설계 · 공사 · 단청 작업에 이르기까지 매 단계마다 남과 북의 문화재 및 건축 전문가들이 함께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 있어 신계사 복원은 인적 · 물적 교류가 동시에 이뤄지는 남북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사찰소장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의 용역을 받아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이 시행하는 사찰소장 불교문화재일제조사(이하 일제조사)가 금년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지역 사찰 250여 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발굴조사단측은 이 지역 사찰에 대략 8000여점의 문화재가 소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충북 · 광주 · 전남 지역사찰을 대상으로 한 지난해 조사에서는 430여곳 사찰에서 5만여 점의 문화재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한국선학' 등재후보誌 선정
논문 인정 · 경비 일부 지원

한국선학회(회장 현각)가 발간하는 학술지 <한국선학>이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의 신규학술지 평가에서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선학회는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분을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받게 됐으며, <한국선학> 수록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불교학 학술지 가운데 등재후보지는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학보>,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의 <보조사상>, 불교학연구회(회장 이중표)의 <불교학연구>,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의 <한국불교학>, 인도철학회(회장 법산)의 <인도철학> 등 5종이다.

<한국선학>은 한국선학회의 학술지로 2000년 창간돼 매년 3회 발간되고 있으며, 현재 '조선 초기 선사상의 전개'를 주제로 한 12호 발간을 앞두고 있다.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백제미술 해석' 등 봄 강좌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원장 강우방)은 봄학기 강좌를 1월 18일 시작한다.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의 '한국미술사 강좌Ⅲ - 백제미술의 새로운 해석', 김기주 동덕여대 교수의 '화론강의 1-역대명화기(名畵記)', 김일권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원의 '한문 고전 강독-<사기팔서> 읽기' 등 세 강좌가 각각 금 · 월 · 수요일마다 진행된다. 한 강좌당 20만원. (02)363-1114

'의상대사의 화엄사상' 주제
삼성출판박물관 강좌 개설

삼성출판박물관(관장 김종규)은 '의상대사의 화엄사상'이라는 주제로 김상현 동국대 교수의 강좌를 개설한다.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매주 수요일(오후 7~9시)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수강료는 10만원이며 전화로 접수 가능하다. (02)394-6544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35>

미분과 적분

17세기는 서양에서 천재의 시대로 통한다. 신으로부터 이성을 해방시킨 데카르트부터 수학의 천재 파스칼에 이르기까지 천재가 넘쳐나는 시대였다. 태양의 왕이라고 불리는 루이14세가 프랑스에서 학술회의를 만들었던 것 역시 이 무렵이었다.

'천재의 시대'는 1690년대 뉴턴의 출현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행성의 운동에 대한 일반 법칙을 발견했다. 그리고 미분과 적분의 법칙을 발견했다.

미분은 잘게 쪼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서, 세계 인구의 증가, 그것도 이 시점에서의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자. 오늘 12시에 인구를 측정하고, 내일 같은 12시에 인구를 측정해서 차이를 알면, 증가율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측정 간격을 하루로 하지 않고 1초, 아니 더욱 짧게 한다면 순간의 증가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짧게 해서 측정한 증가율을 미분이라고 부른다. 하루 후 측정한 증가율은 하루 동안 순간 순간의 인구 증가를 모두 다 더한 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자연 현상에 적용한 사람이 뉴턴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 만약 측정하고자 하는 양이 인구가 아니고, 바람이 지나가는 플럭스라고 하자. 흔히 과학자들은 이양을 단위 면적에서 1초에 지나가는 공기분자 양으로 나타낸다(바람의 세기라고 해도 좋다). 서울과 부산의 바람의 세기 증가율은 서울과 부산의 바람의 세기 차이를 측정해서 거리로 나누어주면 얻을 수 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매우 짧은 거리를 지난 지점 사이의 공간적 증가율을 구했다면 이것이 미분이다.

바람의 세기의 미분은 곧 그 공간에서 생기는 공기분자의 시간적 증가율을 나타낼 것이다. 즉 서울에서 들어가는 바람이 부산에서 나가는 바람의 세기보다도 더 크다면, 두 지점사이(한반도)에 공기분자가 시간적으로 늘어나는 것일 뜻한다. 이러한 관계를 식으로 나타낸 것이 공기분자에 대한 미분방정식이 된다. 실제로 기상청에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가능하다. 한 예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현대과학에서 미분 방정식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미분이나 적분 또한 매우 주관적이다. 즉, 수만년을 다루는 사람에게서는 하루는 미분에 해당할 만큼 짧은 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 과학기술자들에게 미분의 시간은 1초의 수조분의 일이 된다. 2GHz짜리 개인용 컴퓨터는 1초에 약 20억 번의 연산을 수행한다. 따라서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전자파, 혹은 전자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짧은 시간이 미분시간이 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서 인간의 심장의 박동, 그리고 안이비설신의로 외부세계를 이해하고, 뜻을 내는 것은 빨라야 천분의 1정도의 시간을 요한다.

이유없이 마음 허덕일때 차분히 관찰해 보라
오래된 인연의 '적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유 없이 마음이 허덕일 때 , 하루에 한번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 보자. 이 마음을 있게 한 오래된 나의 인연의 적분을 느낄지 모른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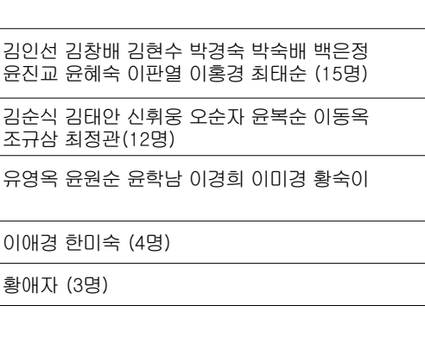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월 4일개강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8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2년 교과목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김상현(동국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차차석(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김형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불교한문학과 (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불교학과] 2006년 1월 1일~ 2006년 1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다도학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장례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 학 일 시 불교학과 : 2006년 2월 4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불교한문학과 · 불교다도학과 · 불교미술학과 · 불교장례문화학과 : 2006년 3월 6, 7, 8일 개강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본 대학사무국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쉼터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DONGSAN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 산 불 교 대 학

공 제4회 연합회 포교사 합격자 고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에서는 불교(교양)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2005년 12월 4일 시행된 제4회 포교사 불교교육능력평가고시를 실시하고 필기 및 면접에 최종합격자를 공고함.

동산불교대학	강영길 권영애 권현숙 김범남 김영민 김종필 남동창 박경숙 박종표 박찬원 박춘수 배소정 백종훈 송 엽 송규익 심영모 예강환 오정숙 유재정 이상철 이인섭 이종현 이향옥 이호득 임동관 임종덕 정동민 진선관 차성남 최상곤 최탁환 하경숙 황현주 (33명)
경인불교대학	권재만 김영숙 김인선 김창배 김현수 박경숙 박숙배 백은정 부현철 신종님 윤진교 윤혜숙 이판열 이홍경 최태순 (15명)
보현불교대학	강순희 김경호 김순식 김태안 신휘웅 오순자 윤복순 이동욱 이윤형 조관식 조규삼 최정관(12명)
덕산불교대학	박시자 박은주 유영옥 윤원순 윤학남 이경희 이미경 황숙이 황현모 (9명)
새세계불교대학	안재덕 박병선 이애경 한미숙 (4명)
금강불교대학	김태웅 한정임 황애자 (3명)
경북불교대학	백부진 (1명)
불이선원불교대학	강희혁 (1명) (이상 78명)

■ 등록기일 : 2006년 2월 4일 까지 ■ 품 수 식 : 2006년 3월 25일 ~ 26일
■ 장 소 : 만해마을(강원도 인제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등록 및 품수교육비 : 6만원 (소속학교 일괄접수바람)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문의 02)734-9595

일주문



박태화 스님 49재 봉행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회장 법타 스님은 지난 12월 29일 통일법당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 박태화 스님 49재를 봉행했다.



화엄산림대법회 회향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지난 12월 30일 화엄산림 회향법회를 봉행하고 평양예술단을 초청해 국악한마당을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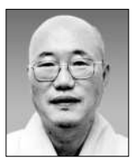
어린이 단기출가 수련회

김천 직지사 주지 성웅 스님은 1월 9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동안거 어린이 단기출가 수련회를 개최한다. (054)436-6084



천일불사기도 500일 회향

서울 금강선원 원장 혜거 스님은 1월 9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천일불사기도 500일 회향 특별기도 법문을 한다. (02)445-8484



일본속의 한국문화 탐방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회장 원택 스님은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청소년 자율탐사 '일본속의 한국문화 탐방' 행사를 개최한다. (02)723-6165



인드라망 회원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1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인드라망생명교육센터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사업계획 등을 논의한다. (02)576-1886



우수통일교육위원에

경주 오덕선원 주지 정허 스님은 통일부 우수통일교육위원으로 선정, 지난 12월 28일 정부 종합청사 별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인도 워크캠프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은 1월 13일부터 27일까지 수자타아카데미 등에서 제4차 청소년 인도 워크캠프를 진행한다. (02)587-8993



한국박물관협회 신년교례회

한국박물관협회 김종규 회장은 1월 16일 오후 4시 국립중앙박물관 으뜸홀에서 신년교례회를 개최한다. (02)795-0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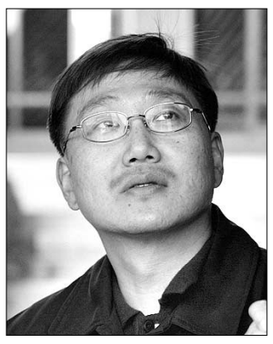
광주 운불련 10대회장 취임

광주 운전기사불자연합회 김재덕 회장은 1월 11일 우산복지관에서 개최되는 13차 정기총회에서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한다.

"전통사찰 콘텐츠 가치창조 무한"

'전통사찰총서' 완간 '불교문화사전' 착수 신대현 위원

2006 큰일 준비해요



"1000 사찰 참배를 평생의 원으로 삼고 생활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절 위주로 몇 개 사찰만 찾아갑니다. <전통사찰총서>를 보고 다양하게 사찰을 순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4월 <제주도>편을 끝으로 총 21권의 <전통사찰총서>를 완간하는 사찰문화연구원 신대현 연구위원(45 · 문학박사 · 사진). 신 위원은 15년 동안 전국 1000여개 사찰을 답사했으며, 이중 800여 사찰을 <전통사찰총서>로 묶어냈다.

<전통사찰총서> 21번째권을 집필하기 위해 1월 12일 제주도로 떠나는 신 위원은 2월 말까지 40여 사찰을 답사하고 돌아올 예정이다.

신 위원은 "민간 신앙을 포용하며 불교의 장점인 원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 불교의 특성을 잘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올해 새로 추진할 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사찰의 역사와 문화, 문화재 등을 분야별로 수록할 <불교문화사전> 편찬 작업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대화된 사지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사람으로 말하면 명함이나 족보가 바로 사지인데, 대부분의 사찰에 사지가 없다"며 "큰 곳 작은 곳 가릴 것 없이 사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법등을 밝혀온 만큼 그 역사를 기록한 사지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찰문화연구소(02-2004-8284)는 현재까지 봉은사 보문사 낙산사 용주사 선본사 금산사 등의 사지를 제작했다.

사찰문화연구소는 1992년 이용부 前 종무관, 김규철 불교방송 당시 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명호근 쌍용양행 사장, 신대현 연구위원 등이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알리고 불교를 현대화하는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이후 <전통사찰총서> 시리즈와 <한국사찰의 현판1> <북한사찰연구> <불교의 효사상> 등의 책을 펴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암투병 · 잠적 · 불교귀의 과정 시집에 담아

'가슴 적시며 피어 오르는' 펴낸 전규태 교수



"정년퇴임을 며칠 앞두고 받은 췌장암 선고는 저에게 불자로서의 새 삶을 열어준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전규태(70 · 사진) 前 연세대 국문과 교수. 미국 하버드대와 콜럼비아대, 호주 국립대 등의 교환 · 연구교수로 활동하며 누구보다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다 어느 날 돌연 자취를 감춰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인물이다.

그런 그가 지난 7년간의 투병생활과 불교에 귀의한 인연 등을 담은 시집 <가슴 적시며 피어오르는>을 펴내고 모습을 드러냈다.

"췌장암 수술을 받고 난 후 의사는 저에게 '출가하는 마음으로 속세와 인연을 끊고 절에서 생활하라' 고 하더군요. 그래야 앞으로 3년 정도는 더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모든 인연의 끈을 놓고 사찰을 찾게 됐습니다."

평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지인이 석주 스님의 유발상좌였던 인연으로 그는 석주 스님을 찾아갔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어디로, 무엇을 하러 가는지 얘기하지 않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가 사찰을 찾아간다는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힘들 거란 생각에서다. 보문사에 머물던 그는 병마와 싸우며 하루 16시간씩 누워있어야 했지만, 틈틈이 불경을 읽고 글을 썼다. 석주 스님에게 직접 <금강경> 강의를 듣기도 했다.

"사실 저야 불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오직 생명을 이어보고자 절을 찾았던 것인데도 스님께서는 절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스님께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면서 몸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호주 정법사와 일본 고려사 등에 머물며 통역과 번역 봉사를 하고, 국내에서는 범어사와 은해사 등 석주 스님의 수행처를 참배하며 신심을 다졌다. 최근 호주에 머물던 그는 1개월간의 일정으로 일시 귀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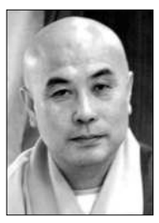
후학들이 그의 건강을 기원하며 고희기념 문집 <전규태의 문학세계>를 펴냈기 때문이다.

"뒤늦게 부처님 품에 안겼지만, 크나큰 가피를 입고 이렇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숨 쉬는 그날까지 글을 쓰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올바른 회향이 아닐까요?"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산림보호 공로 대통령 표창

월정사 사회국장 관행 스님



"수상 소감은, 지금 행사 준비 때문에 바빠요."

지난 12월 30일 대전 산림청 강당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평창 월정사 사회국장 관행 스님(사진). 스님은 산림보호 등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지만 새해에도 여전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었다.

스님은 지난해 백두대간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와 환경단체 및 관련 기관과 조율을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았다. 한민족의 상징인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이 법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옥쇄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자연환경보존과 생활환경개선이라는 두 요구가 맞부딪쳤을 때 어느 한쪽의 손을 들기보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스님의 이러한 생각의 바탕에는 지역포교를 위한 원력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중심사찰로서 지역에 깊숙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어느 것도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난해 스님과 신부들이 참여한 족구대회와 지역주민 축구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능지 스님 세번째 시집 '고구려…' 펴내



부산불교문인협회 회장 능지 스님(사진)이 세 번째 시집 〈고구려 옛 하늘을 날아〉(세종출판사)를 펴냈다. 14년 만에 펴낸 시집에는 69편의 시가 실렸다. 66년 출가한 스님은 65년부터 70년까지 〈현대문학〉 3회 추천을 받아 등단했으며, 1972년 승려시인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8차례 항암치료… 골수증 앓는 정의성씨

생명나눔 '이달의 환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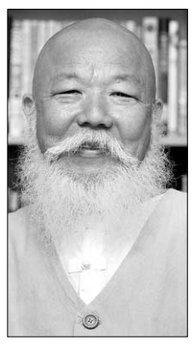
생명나눔실천본부에서 1월의 환우로 선정된 정의성(36 · 사진)씨.

2004년 11월 병원을 찾았던 정씨는 다발성골수증을 앓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8차례의 항암치료와 말초혈액조혈모세포 이식수술을 받았지만 앞으로도 타인골수이식 등의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

정씨는 병을 앓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니던 자동차 영업직도 그만둔 상태라 생계가 막막하다.

더구나 9년 전 결혼해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오던 하나뿐인 아내는 유방암을 앓다가 2004년 11월 결혼기념일에 사망했다. 현재는 9세의 아들만이 정씨의 병상을 지키고 있다. (02)754-8050

이은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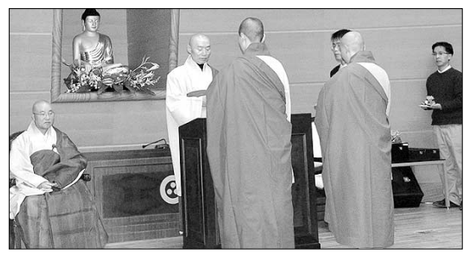
횡성 죽림산사 선원으로 탈바꿈

마음의 쉼터로 대중포교도량 역할을 해온 횡성 죽림산사가 최근 참선 정진하는 선원으로 모습을 바꿨다.

죽림산사 창건주 선행 스님(사진)은 이번 동안거부터 죽림산사를 수행정진을 위한 도량으로 제공해 현재 네 명의 스님이 안거에 들어갔다. 선행 스님은 "법당 산신각 등 원력세웠던 모든 불사를 회향하게 되었으므로, 참선정진 하고자 하는 스님과 재가자들이 이곳에서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강원학인 논문공모전 시상식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은 지난 12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전국강원학인 논문공모전 시상식을 봉행했다. 대상에는 운문사 대교반 종률 스님의 '법현, 현장, 의정 혜초 스님의 기행문을 통해서 본 서역구법활동 고찰'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비한 손

天一氣功

이재복 회장(독일 동서의학 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天一氣功硏究會

경찰대학교, 중앙경찰학교, 삼성종합화학(주)
한솔개발(주), 육군73사단, 한국중공업 등 수련지도

수련생의 특전

◆ 3박4일 코스 이수자는 중국심양중의학원 침구, 추나, 안마 특별 자격증 연수교육에 참가 하실 수 있습니다. (연수비 혜택) (2월초 예정) **선착순 15명**

◆ 3차교육후 국내 4년제 대학교 총장명의 수료증 수여 (대체의학요법과정)

◆ 본회수련을 마친분 중에 관심있으신분 연락요망

천일기공연구회

소 백 산 수 련 원

수련문의전화 02)3436-3206~7(서울본회)
054)637-9810 (경북영주수련원)

● 수련원 :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자리)

氣功指導師 과정(속성반) 3박 4일코스

53기 - 1월19일 오후 2시 ~ 22일 12시

※ 매월 선착순 20명 마감

천일기공책/300페이지 값 10,000원

◆ 性命雙修(성명쌍수) -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것이 도와 건강에 이르는길 입니다.
◆ 色心不二(색심불이) -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가 아닌데 마음만 닦으면 몸은 언제 닦으시렵니까?
◆ 몸이 마음을 담는 그릇(法器)인데 몸이 병들면 마음이 청정해질 수 있나요
◆ 골격이 틀어지고 숨줄이 막혀 있어서 앉아 있을수록 몸이 뒤틀리고 다리가 저려서 좌선을 할수가 없는데 어찌 도를 닦는다 하십니까?
◆ 숨을 고르는 것과 만들어 쉬는 것이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인데 그 원리를 아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세상에는 숨을 만들어 쉬면서 큰병신의 길을 스스로 걸어 가는 수행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 여기 성명 쌍수와 숨을 올곧게 고르는 수행법으로 인연있는 불자와 스님들을 모시고져 합니다.

※ 수련을 마친 스님들께서 비록 짧은 3박 4일이지만 평생에 소중한 인연 맺은 좋은 기회였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단계수련 : 몸만들기 비결을 배우시면 질병에서 벗어나고 신도님들께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 수련 2일째부터 양손에서 기를 발공하여 환자들의 막힌 경락을 소통하여 사기, 병기, 냉기, 탁기를 배출하여 건강한 양체의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천도재를 많이 지내는 스님들 중 사기를 많이 받아서 빙의에 시달리거나 이유없이 몸이 아프고 몸이 냉하고 병마에 시달리는분은 수련기간중에 해답을 얻습니다. 얼굴이 시커멓케 된 분은 사기가 많은 분입니다. 3박4일 수련으로 얼굴빛이 훤하게 변합니다.
◆ 氣를 발공하면 곧바로 나쁜기운이 빠져나오고 악취가 진동을하고 찬바람이 소용돌이 치면서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손을 대보면 손이 시리고 따갑고 저린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을 일으키는 원흉입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 분들에게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누구나 기치유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 두통,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디스크, 구안와사, 신경통, 테니스엘보, 관절염(통)등 통증 치유법을 배워서 환자들을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장 석 주

시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기

생각은 짧고 몸가짐은 살뜰하지 못했으니, 나는 봄날 담밑에 모란꽃 붉은 움돋듯 청신하게, 혹은 가을날 창공에 매날듯 날렵하게 살지 못했다. 그런 어리석은 내게도 새해는 다가왔다. 아직 집 맞은편 국도엔 가등 불빛이 환하고, 오가는 자동차 한 대도 보이지 않는다. 집앞 얼어붙은 호수와 빈들엔 며칠 전 내린 눈이 하얗고, 엷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 떠오르는 해는 볼 수가 없다.

적막하고 엄숙하게 한 해의 첫 아침을 맞지만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어디선가 해는 떠오르고, 샘물은 퐁퐁 솟고, 새는 너울너울 날갯짓하며 남쪽을 향하고, 땅속에서 모란 작약의 뿌리들은 꽃망울을 준비하고, 구름 속에서 여름에 내릴 빗방울들은 꿈틀거리고, 올해 사랑에 빠질 젊은이들은 금빛의 시간을 꿈꾸며 지금은 단잠에 빠져 있고, 이 새벽 젖내나는 어린 것들은 제 어미 아비보다 먼저 깨어나 막 피어난 연꽃처럼 방글거릴 게다.

내 심장은 이 우주에 생동하는 기쁨에서 나오는 기운을 빨아들이며 펄럭펄럭 뛴다. 나는 주저함없이 그 무상의 기쁨들과 입 맞춘다. 오, 내 앞의 암초, 덫과 바위들이여, 실망하지 않겠노라. 그대들이 있어 나는 지치지만, 아울러 그대들이 있어 나는 살맛이 났었구나! 어둠이 빛을 불러오듯, 배고픔이 식욕의 싱싱한 기쁨을 선명하게 하듯, 나는 그대 때문에 사랑의 고통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인지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불꽃의 빛과 사랑과 충만함으로 그대를 으깨며 건너뛰며 달려 나가겠다. 기꺼이 나를 던져 나를 구하겠노라!

새해 첫날 일어나 가장 먼저 한 일은 추운 곳에서 밤을 지낸 집개들에게 뜨거운 물을 주고, 미명에 잠긴 산 능선들을 바라보며 누리의 새 기운을 호흡한 것이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를 올린다. 나라엔 액운이 끼었던 묵은해는 어둠 속에 묻혔으니, 충직하고 부지런한 개의 해인 올핸 좋은 일만 많았으면 좋겠다.

혼자 기도하는 동안 머릿속에 구름 위로 불끈 해가 떠오르는 심상과, 소(沼)에 몇 백 년 웅크리고 있던 잠룡이 금비늘 번득이며 하늘로 떠오르는 심상을 그려본다.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자꾸 그려보면 실제로 이루어지는 법이다.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시작'에 축복이 함께 하길 빌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의 '꿈'이 울울창창 뻗어나가길 빈다. 아울러 올 한해 내 몸과 마음을 두루 다스릴 글귀로 청나라 문인 장주의 오골불가무(傲骨不可無), 오심불가유(傲心不可有)를 마음 한 귀퉁이에 새긴다. 몸을 꼿꼿이 함은 없어서는 안 되나, 마음을 오만히 함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주변에서 입엔 아첨을 달고 살고 몸은 뼈가 없는 듯 굴신(屈身)이 자유자재라 잘도 구부러지지만, 거꾸로 마음은 사뭇 뻣뻣해서 가난하고 못나 보이는 이웃을 업신여기며 제 잘난 줄만 알며 살아가는 이들을 여럿 보았다. 그 품성이 속되고 비천하기 이를 데 없어 보였다. 그들을 거울삼고 각박과 탐욕을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보다 더욱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자주 하여 몸은 오동나무처럼 강건하게, 마음엔 청품(淸品)과 미풍 이는 봄날과 같은 온유한 인격이 담기도록 애써야겠다.

저 잘난 줄만 믿고 앞뒤 분별없이 달려가는 자는 필경 남에게 누를 끼친다. 저를 돌아보는 분별심을 가져야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살 수 있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저를 돌아보는 분별심이 솟아난다. 기도는 고독의 오롯한 숭고함 속에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기도 중에서 기복(祈福)에의 토로를 되풀이 하는 것은 낮은 기도다. 제 삶을 웅숭깊게 하고 제 품격에 향기를 더하는 기도는 거울에 제 얼굴을 비춰보고 옛 경전을 널리 섭렵하여 제 마음을 여미는 것과 같다. 옛사람은 하루의 계획으로 파초를 심고, 한 해의 계획으로 대나무를 심고, 십 년의 계획으로 버들을 심고, 백 년의 계획으로 소나무를 심는다고 했다.

새해 첫날의 기도는 파초, 대나무, 버들, 소나무를 한꺼번에 심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2001년 3월 어느 날 지율 스님은 '산이 아파 우는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스님은 그 산과 그 속에 깃든 뭇 생명들과 약속을 한다. '지켜 주겠노라' 고. 그리고 스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섯 차례나 단식을 했고, 급기야 병상에 몸을 뉘었다.

이 상황에서 다음 질문은 대단히 잔인한 일이 될 것이다. '지율 스님은 과연 약속을 지켰는가?'

하지만 이 물음에 답할 사람은 지율 스님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지율 스님을 내몰았기 때문이다.

지율 스님의 입장을 지지하는 환경단체나 불교계조차도 천성산보다는 '지율 스님 살리기'에 급급했던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우리는 알량한 도덕적 방어 차원을 넘어서서 단호히 이렇게 말해야 한다.

'스님은 약속을 지켰다' 고. 우리들 마음속에 천성산이 시퍼렇게 살아있노라고.

병상에 누운 지율 스님을 보며

사실 지율 스님의 문제 제기는 천성산에 국한될 사안이 아니다. 전지구적인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구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해법을 담론이나 구호가 아닌 삶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

텔레비전 화면으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지율 스님을 보면서 눈물을 글썽이든 비난을 하든 그건 개인의 자유다. 하지만 적어도 이 엄동에 반팔 옷을 입고 그 장면을 바라보지는 말아야 한다. 자본과 개발의 관성은 그러한 도덕적 방종을 자양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소한 현 단계에서 소비를 멈추지 않는 한 어떤 고상한 형태의 가치도 허구가 될 수 밖에 없다.

생태 가치는 개발의 이익에 비해 비가시적이고, 거대한 시간의 사이클 속에서 발현된다. 심미적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해서 생명 평등의 고공 담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AIDS 조차도 인구 감소의 방책으로 반기는 과격한 인간 혐오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다.

결론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지율 스님이 개발이라는 거대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동안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탐욕이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 않았는지를.

■ 윤제학(동화 작가)

이렇게 들었다

사교육비

"하잘 것 없는 도(道)를 배워 그릇된 견해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 방탕과 사치를 배워 탐욕이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 도리에 맞는 행위를 익히고 배우되, 이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참된 교육이다." 〈법구경〉

연간 사교육비 12조원을 쓰는 나라. 사교육비 부담으로 출산율까지 떨어지는 나라.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조기유학을 선택하는 나라.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06년 교육 현 주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한 초 · 중 · 고학생은 모두 1만6446명이었다. 6년 새 10배나 늘어난 수치이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30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른 지난해 전체 유학비용은 4조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조기유학의 증가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 그 근본원인이 있다. 시험과 진학을 위한 교육만이 우리 교육의 전부가 되어 가고 있다. 사교육에 자녀의 미래를 맡기면서 불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한 자녀로 만족 아닌 만족을 하는 형편이다.

이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돌아보고 반성하자. 입시위주의 단순 지식습득 중심에서 벗어나 지식을 이해하고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의 삶을 가꿀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교육은 돈을 많이 들인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교육비를 많이 들여 잔뜩 가르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그 아이의 몫이 될까?

부처님은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차라리 조금 배워 도리를 이해할지언정, 많이 배우기만 하고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사교육에 목숨 걸고 투자하고 있는 이 땅의 부모들이 새겨들어야할 부분이다.

■ 강지연(취재부 기자)

열린마당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에 바란다

지속적인 캠페인 되길

군포교의 최전선에 있는 입장에서 현대불교와 군종특별교구가 함께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벌인다니 환영할 일이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캠페인이 됐으면 좋겠다.

군종장교 1명이 일주일에 적게는 7번, 많게는 10번이 넘게 법회를 볼 정도로 군포교 현실이 아직까지 열악하다. 군법사가 매번 장병 위문품을 준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넉넉한 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문품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겨울은 군생활 하기에 가장 어려운 계절이다. 개신교의 경우 사랑의 온차 나누기와 같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도 장병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유가 된다면 군법사가 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법문 및 교육을 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기자재의 지원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빔 프로젝터, 전자오르겐 등의 교육 기자재로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면 영상세대인 장병들에게 더 효율적인 포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현직에 있는 군법사들의 의견을 자주 청취해 군법당과 기업, 가정, 사찰을 연계한 결연 체제가 잘 구축되어 군포교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민제(3군단 군법사)

누구나 의무적으로 동참했으면

아들이 군생활을 했을때 군법당에서 마음 잡고 열심히 병영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기뻤다. 그러나 초코파이 하나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최전방 군법당에서 자원봉사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군법당에서 초코파이 하나에 좋아하는 장병들의 모습을 볼 때면 천진불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매번 위문품을 마련하기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현대불교'의 캠페인이 잘 되어 일반 기업들이 군 포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문품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또한 최전방 대대급에서는 아직도 군법사 없이 법회 보는 곳이 많다고 들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법사가 없는 법당, 대대급 이하 열악한 환경에서 법회 보는 법당에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한가지 더 기대를 한다면 보다 많은 불자들이 군 포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후원을 했으면 한다.

김법연심(군법당 자원봉사자)

군포교 새모델 구축 '기대'

군법사로 20년 이상 군포교에 헌신해 온 나로서 이번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 소식을 접하면서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듯 기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불자들에게 군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내가 속해 있는 전역 군법사의 모임인 예비역 법사회를 통해 물질적 지원도 하겠지만 법사가 없어 법회를 보지 못하는 법당에 직접 찾아가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도 발벗고 나서고 싶다. 군의 현실과 장병들의 특성을 가장 잘 알기에 그 누구보다 군 포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부분이다. 이번 캠페인이 활성화되어 기업들과 군법당, 사찰 간의 결연 체계를 확립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후원 관계를 만들어 군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군포교는 포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군 장병들이 미래 불교의 주역이 될 불자라는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캠페인을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정선진(예비역 법사)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위의와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수강생 모집

14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6학년도 제15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교육방법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학습도량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6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우편 · 팩스 접수가능)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www.mahamall.co.kr

마하몰 달마도 지상기획전

달마의 기운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마다 복과 지혜를 구족하게 하여지이다.

달마 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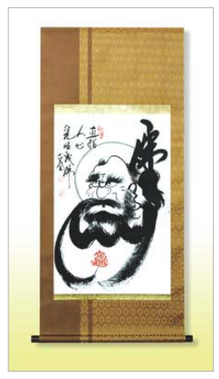
신비의 흑달마
₩500,000
- 그림크기 : 37cm×44.5cm
- 족자크기 : 43.5cm×90cm
- 재 질 : 운용지
- 채 색 : 붕채 ■ 최고급 족자



청곡 흑달마 족자 1호
₩250,000
- 그림크기 : 37cm×44.5cm
- 족자크기 : 43.5cm×90cm
- 재 질 : 운용지
- 채 색 : 붕채 ■ 최고급 족자



청곡 흑달마족자 2호
₩250,000
- 그림크기 : 37cm×44.5cm
- 족자크기 : 43.5cm×90cm
- 재 질 : 운용지
- 채 색 : 붕채 ■ 최고급 족자



고당스님 달마도 족자
~~₩150,000~~ → ₩99,000
- 사이즈 : 55 cm ×115 cm

달마 액자



범주스님 친필달마도액자
~~₩380,000~~ → ₩198,000
- 특별 사은품 : 전신달마도 접시, 달마도 순금카드 4종세트



범주스님의 선(禪)적인 기(氣)가 충만한 참 달마도
40여년간에 걸쳐 수행참선과 달마도 선묵화에 정진해 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 달마도를 소장하기 좋게 표구, 완성한 것으로 선의 정신을 전달하여 우리들의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치유하고 맑은 기운으로서 어둡고 탁한 기운을 막아 맑고, 밝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황금 감투 달마도 액자
- 4호(가로41cm×세로54cm) : 60,000원
- 6호(가로49cm×세로60cm) : 70,000원
- 8호(가로55cm×세로66cm) : 80,000원



황금 달마도 액자
- 4호(가로41cm×세로54cm) : 60,000원
- 6호(가로49cm×세로60cm) : 70,000원
- 8호(가로55cm×세로66cm) : 80,000원



도형 달마도 액자
- 4호(가로41cm×세로54cm) : 60,000원
- 6호(가로49cm×세로60cm) : 70,000원
- 8호(가로55cm×세로66cm) : 80,000원



도형 감투 달마도 액자
- 4호(가로41cm×세로54cm) : 60,000원
- 6호(가로49cm×세로60cm) : 70,000원
- 8호(가로55cm×세로66cm) : 80,000원

달마 도자기



달마도청자도자기
~~₩230,000~~ → ₩120,000
3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 달마도를 소장하기 좋게 청자도자기에 담아 선의 정신을 전달하여 맑고, 밝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사은품



범주스님 친필휘호



용문 달마 흑자 도자기
~~₩250,000~~ → ₩120,000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용문과 달마도를 금분으로 도자기에 담은 최고급 작품도자기



달마도 백자 도자기
~~₩230,000~~ → ₩110,000
백자에 금분으로 달마도와 반야심경을 그대로 담았으며 보기만 하여도 신비함과 중후함이 느껴지는 최고급 작품도자기



달마도 흑자 도자기
~~₩230,000~~ → ₩110,000
흑자에 금분으로 달마도와 반야심경을 그대로 담았으며 보기만 하여도 신비함과 중후함이 느껴지는 최고급 작품도자기



포대화상백자도자기
~~₩230,000~~ → ₩120,000
30여년간에 걸쳐 수행 참선과 달마도 선묵화 정진을 해오신 범주스님께서 한점 한점 축원을 담은 친필포대화상도를 백자도자기에 담은 것으로스님의 상스러운 기(氣)에 의해 맑고, 밝은 기운만을 불러들여 복(福)이 가득한 삶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별사은품



범주스님 친필휘호



전신달마도접시
₩50,000
- 31cm × 3.5cm



포대화상접시
₩50,000
- 31cm × 3.5cm



무불스님 달마선화(達摩禪畵)
₩50,000원(액자별도)
- 가로 450mm × 세로 695mm



선서화 백자 도자기
~~₩250,000~~ → ₩120,000
우리나라 선서화의 최고 권위자인 선필고당스님의 작품으로 경제적인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용문,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거북문, 만사형통을 비는 축원문을 도자기에 담아 작품으로 만든 선서화도자기임

난방기 특판기간 연장실시

유난히 추운 올겨울, 불자님들을 위해 특판기간을 연장하여 판매합니다.

신일 석유열풍히터



연화1호 22평형
소비자가 : ~~₩850,000~~
특별보급가 : ₩690,000

연화2호 32평형
소비자가 : ~~₩980,000~~
특별보급가 : ₩790,000

SBH-011 TSI
- 발열량 : 10,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연료소비량 : 1.02~1.35ℓ/h
- 외형치수 : 950×305×1,180mm
- 자동확인 LCD창 • 리모콘 조절
- 사용전원 : 220V 60Hz
- 미니소음기 및 연통

SBH-041 TMI
- 발열량 : 14,000Kcal/h
- 탱크용량 : 45ℓ
- 연료소비량 : 1.46~1.80ℓ/h
- 외형치수 : 950×305×1,350mm
- 자동확인 LCD창 • 리모콘 조절
- 사용전원 : 220V 60Hz
- 미니소음기 및 연통

신일 전기온풍기



연화3호 6~7평형
품절
특별보급가 : ₩188,000

SBH-3000 CTI
- 최대발열량 : 2,600Kcal/h
- 소비전력 : 강 3,000W, 약 1,800W
- 외형치수 : 390×330×846mm
- 2중 안전장치, 이동형바퀴 채용
- 강,약 터보 풍속조절, 7시간 30분 타이머
- 음이온 발생 • 리모콘 타입
- 프리+헤파+카본필터 채용

참선방석

참선시트
₩145,000

스님용 참선시트
₩180,000

기능성 명상방석
₩38,000
- 크기 : 36cm× 32cm
- 무게 : 1kg
- 소재 : 항균 폴리 우레탄
- 항균제 및 피톤치드향 첨가
- 편안한 착석감

희담석 좌복
~~₩396,000~~ → ₩298,000
- 세로 720 × 가로 390 mm

예불 방석
(스님용 공단적색)
₩90,000
- 세로 720 × 가로 390 mm

예불 방석
(스님용 공단황금색)
₩85,000
- 가로 135cm × 세로 95cm

예불 방석
(신도용 T/C)
₩35,000
- 가로 135cm×세로 95cm
- 각종 법회 및 기도시 사용 가능하며, 폼폼한 바느질 및 고급 천으로 만든 신도용 방석.

마음의 눈 열어주는 '심청이 선생님'

향기도반의

'풍물놀이' 자원봉사자

이은우



휘몰이의 빠른 장단과 중모리의 느린 장단을 넘나들지만 결코 치우치거나 모자람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아닌 귀로 세상을 보고 느낀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사물놀이를 가르치는 이은우씨는 '자원봉사'가 본업이 됐다며 흥겨워한다.

5년째 시각장애인들 위해 풍물놀이 자원봉사
힘들땐 하심과 108배로 단원들과 마음 공유
대회 입상하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심어줘
최근 연구소 열고 일반인 지도, '사찰투어가 꿈'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내게 만약 신체적 장애가 생긴다면 제일 치명적인 부분이 어딜까?"라고. 아마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보지 못한다는 것. 그보다 더한 형벌이 있을까.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앞을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은우(54)씨에게 이런 생각은 용납되지 않는다. 볼 수 있는 사람의 '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는 5년째 일주일에 두 번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김승권)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풍물을 가르치며 육안이 아닌 심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다.

시각장애인 십 여 명으로 구성된 '풍물사랑 휘몰이'.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과 그나마 흐릿하게는 볼 수 있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불의의 사고로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들이지만 5년 전 이씨의 '소리봉사'로 앞을 보는 것만큼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광쾅' '쿵쿵' '둥둥' 신명나는 풍물놀이(꽹과리, 장구, 징, 북)를 통해 즐거워하는 단원들의 모습을 볼 때가 제일 행복해요. 풍물을 가르치는 것도 판소리를 가르치는 것도 오히려 제가 더 흥겨운데 봉사라뇨? 허허허."

이씨의 원래 직업은 한약 도매상이었다. 서울 제기동 한약도매업계에서 잘나가던 그였지만 IMF 외환위기의 한파로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년간 피땀으로 일궈 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으니 가슴에 맺힌 한이 오죽했으랴.

바로 그 때 접하게 된 것이 사물놀이였다. 이씨는 사물놀이를 통해 설움과 눈물을 모두 쏟아냈고 조금씩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학창시절 풍물동아리 활동을 하며 맛만 봤던 풍물놀이는 그렇게 그의 삶을 180도 바꿔 놓았다.

10년 전 그가 풍물을 배우기 위해 가입했던 풍물동아리 '울림패' 회원들과 함께 효창운동장에서 노인들을 위한 공연을 한 뒤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풍물놀이 너무 재미나게 잘 봤다"며 수전증 있는 주름진 손으로 막걸리 한 사발을 건네던 할아버지. "더운데 늙은이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줘서 얼만치 고마운 줄 모르겠다"며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 준 할머니. 그 따뜻한 정 앞에서 "나도 무언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고 마음먹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가 이끄는 '풍물사랑 휘몰이'를 수준급의 풍물단으로 일궈내고 이제는 지역 내 복지관과 경로당, 불우이웃을 찾아다니며 백 여 차례의 공연을 한 이씨였지만 그 이면에는 남모를 고통도 많았다.

초창기 복지관에서 풍물패 식구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자원봉사 한답시고 생색내는 풍물선생이겠지'라고 여기는 단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앞을 볼 수 없는 칠흑같은 일상에서 오는 적대감에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여러 번. 악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들이기에 직접 일대일로 몇 시간씩 가르치다 보면 체력소모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큰 힘이 되어 준 것은 하심(下心) 수행, 바로 108배다. 그런 그의 마음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통했을까. 풍물패를 만들고 1년이 지날 무렵 단원들은 점차 그를 풍물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해준 '심청이 선생님'이라 부르며 마음의 문을 열고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이선생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집에서 잡념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사람 사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풍물을 배우면서 달라졌어요. 뭐랄까, '활력'을 얻었다고 할까요." 휘몰이 풍물패 단원 박영식(64 · 경기도 성남)씨는 풍물을 배우며 세상을 생각하는 각도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남이(62 · 서울 천호동)씨도 "5년째 한 번도 수업을 빼먹거나 지각하지 않고 열심히 지도해 주신 이선생님 열정 덕택에 소리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며 고마운 마음을 털어 놓았다.

또 조순옥(54 · 경기 시흥시)씨는 "처음엔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풍물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는데 지금은 장구를 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며 기뻐한다.

이씨는 좀다른 차원에서 단원들을 바라본다.

"시각장애인들은 청각과 촉각이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일반인의 귀에도 쩌렁쩌렁 울리는 꽹과리와 징, 장구, 북 등 사물놀이가 만들어내는 묘음은 어쩌면 시각장애인에게는 이 세상은 소리로 보는 '화엄법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혼연일체, 일심동체가 된 휘몰이 풍물패는 수많은 자원봉사 이력 못지않게 수상경력 또한 화려하다. 전국장애인풍물 경연대회 장려상, 송파구 한마음축제 대상, 국립국악원주최 장애인예능대회 특상 등이 그것. 이씨는 "2003년 열렸던 전국장애인풍물 경연대회에서의 입상이 가장 인상 깊었다"며 "휘몰이 풍물패 단원들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동기유발의 기폭제가 된 대회였다"고 말한다. 덧붙여 이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열정적인 풍물공연은 출연자도 이를 관람하는 관객들도 모두가 가슴 뭉클한 감동의 도가니였다"며 눈시울을 적신다.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져 울고 웃을 수 있는 풍물놀이가 이제는 본업이라고 말하는 이씨. 그는 지난해 4월 풍물놀이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서울시 응암동에 작지만 그의 소중한 꿈과 희망이 담긴 '이은우국악연구소'를 열었다. 연구소는 일반인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풍물의 전당'이자 사랑방이다.

"휘몰이 풍물패 식구들과 함께 전국의 복지관은 물론 사찰투어를 하며 풍물공연을 여는 게 꿈입니다."

휘몰이 풍물패 식구에게 세상을 보여 준 이씨. 이제 풍물소리는 세상을 느끼고 품을 수 있는 그들만의 '눈'이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 고영배 기자



시각장애인 풍물패 '풍물사랑 휘몰이'가 서울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연말공연을 하는 모습.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등 | 불 | 로 | 전 | 하 | 는 | 자 | 비 | 광 | 명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니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을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속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ChanDuk Lotus Lamp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단등



팔각조립등(반야심경)



주름등(만월봉축등)



공단황금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50> 형과 아우가 뒤바뀌니

(지난호에서 계속)운암은 형을 데리고 약산 사숙에게 가서 전후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속가의 형을 백장 선사가 보내서 왔다고 하니 약산 선사는 그의 출가를 허락했다. 행자생활을 야무지게 했을 것이다.

그 뒤 운암은 형을 데리고 서울로 가서 계를 받도록 하였다. 친히 형을 데리고 서울로 갔다. 무사히 수계식을 마치고 다시 백장산으로 함께 돌아오는 여정이 남아있었다. 절집의 '왕초보'인 형을 위해서 동생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형과 아우가 바뀐 상태이기도 하였다. 수계식을 했으니 법명을 '도오'라고 받았다. 이제 정식으로 동생인 운암이 사형이 되고 형인 도오가 사제가 되었다.

오다가 길에 앉아 쉬고 있는데 형인 도오가 동생인 운암에게 큰절을 하고는 물었다.

"나에게 의심되는 일이 있소. 물어보려고 한 것이 오래인데 그동안 짬을 내지 못했소. 오늘 다행히 기회가 있어 사형(동생)에게 묻겠는데 괜찮겠소?"



정중하게 동생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무슨 일이요?"

운암은 정색을 하고 물어오는 형 도오의 진지한 표정에 약간 긴장하면서도 법랍이 주는 위엄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되물으니 형의 물음은 의외였다.

"이 몸이 껍질을 벗어버리면 뒤에 어디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형제가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이제 혹여 서로 인연이 다하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눈물이 핑 도는' 물음인 동시에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소식'을 묻는 법담이 어우러진 이중적인 질문이었다.

동생은 총림에서 장래의 큰스님으로서 근엄하게 법대로 한마디 하였다.

"불생불멸하는 곳에서 만나리다."

인정은 무시하고 도심(道心)으로만 대답한다.

사실 형만한 아우가 없다. 출가야 늦었지만 소견머리야 형이 나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형으로서 동생에게 들은 대답에 뭔가 미진함을 느꼈을 것 같다. 그리고 동생의 대답 역시 뭔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 느낌이 없지 않다. 형식에 국집하면 말이야 맞지만 건조해서 듣는 사람은 감동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보탐관(報探官)이란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한 마디 쏘아붙였다.

"풀밭에 아무 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누군가가 꼭 살피고 있습니다."

"뭐라구요? 아직 이마에 벼슬아치 시절의 갓 쓴 자국이 그대로 있으니 그런 말을 하지요."

한마디로 속물이 덜 빠진 말이란 뜻이다.

"사형은 그런 말 마시오. 불법에는 승속이 없습니다."

"그럼 사제(도오)의 견해는 어떠시오?"

사제가 된 형 도오선사가 예 갖추고 법 청했으나 법랍만 믿고 미진하게 답한 운암 뒤늦게 깨달아

"불생불멸하는 곳도 아니요, 만나기를 구할 것도 아니외다."

듣고 보니 형의 말이 맞았다. 법랍만 믿고 짬밥경력으로만 지나치게 승속을 나누고 법집에 치우쳐져 있는 자기를 일깨워주는 선지식이었던 것이다.

"이 몸이 껍질을 벗어버리면 뒤에 어디서 우리 둘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에 "불생불멸하는 곳에서 만나리다"라는 묵은 승려의 답변보다는 "불생불멸하는 곳도 아니요, 만나기를 구할 것도 아니외다"라는 새 출가수행자의 말이 훨씬 더 근본적 살림살이에 충실하다. 그래서 이 법은 승속도 없고 노소도 없다고 했던 것이다. 법랍 높은 운암이 이제 갓 계를 받은 도오의 손을 잡으면서 형제가 아니라 도반으로서 이렇게 마무리 말을 짓고 있다.

"안목이 분명하군요. 당신(속가 형)의 안목이 그리도 뛰어나니, 같이 산으로 돌아가거든 서로 이끌어 제도하십시다!" (끝)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거짓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답'을

조사 어록으로 자기공부 점검하기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을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공부 점검은 선지식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데, 찾아갈 여유는 없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야 하는 재가불자에게 이 같은 고민은 연신 머릿속을 스멀거리게 한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조사어록에 실려 있는 기준에 따른 '자기 공부 점검법'이 그 해답이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결코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자기 공부를 냉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 수행에 대한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조사스님들의 어록에 따라 자기 공부의 옳고 그름과 깊고 얕음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 공부 점검법'. 간화선 수행을 체계화한 대혜의 <서장>, 나옹의 <공부십절목>, 영명의 <종경록> 등을 통해 스스로 하는 공부점검 방법을 살펴봤다.

언제 어디서든 생각 생각마다 깨어있는가 화두에 간절한 의심 물 흐르듯 이어지는가

 # 철저하게 스스로 묻고 답하라

<서장> <공부십절목> <종경록> 등의 조사어록에서 내놓은 자기 공부 점검의 핵심은 '자문자답(自問自答)'. 자신의 수행현실을 정직하게 묻고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짓 없고 간절한 마음으로 선사의 공부 점검법을 거울 보듯 하라는 의미다. 특히 의심이 지어 가는지, 경계에 끄달리고 있는지 등에 대해 낱낱이 점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그럼, 말과 사유 그리고 경계를 초월해있는 깨달음의 세계를 어떻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 또 공부가 잘 익어 가는지, 깨달음을 얻었는지 등을 식별할 기준이 있는 것일까?

<서장> 등의 조사어록에서는 결국 스스로의 체험으로 직접 확인하는 방법밖에 달리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 '자기점검 기준' 제시하는 <종경록>

중국 영명(永明:904~975) 선사는 <종경록(宗鏡錄)>에서 "집착에 사로잡혀 '깨달음'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엷애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스스로 마음의 장애를 일으켜 배움의 길을 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10가지 물음으로 기강을 삼는다"고 강조한다.

특히 영명 선사는 '언제 어디서든 생각 생각마다 깨어있어, 한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일상에서 옷 입고 밥 먹을 때, 일을 맡아 처리할 때에도 일일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가' 등의 자기점검 기준도 제시한다.

동사섭 수행을 지도하며 '마음관리법'을 강조하는 용타 스님도 "재가불자들은 습관적으로 일상사에 반응하며 살지만, 그 습관을 뛰어넘으면 역경계든 순경계든 '이 순간 나의 최선은 무엇인가?'하고 자문하라"며 자기공부 점검법을 제안한다.

 # 일상의 언어 <서장>

대혜(大慧:1089~1163)선사의 <서장> 공부 점검법은 재가불자들이 관념의 지뢰에서 빠지기 쉬운 점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상적인 언어로 지침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실적인 자기점검이 이뤄질 수 있다.

20년 넘게 화두참구를 해온 이상호씨(44 · 한강홍수통제소)는 <서장>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는가'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은가'란 점검법이 일상에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이정표가 된다고 한다. 특히 이씨는 "자기 공부 점검이 마음 안팎으로 일어나는 온갖 경계와 상황들에 극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게 해, 평상심을 유지하는데 큰 힘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 요점 콕 짚어주는 <공부십절목>

나옹(懶翁:1320~1376) 선사가 공부점검을 10가지로 나눠 밝힌 <공부십절목(工夫十節目)>은 재가불자들의 자기 수행점검에 지표가 된다. 수행 단계를 순차적으로 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공부십절목>은 단계별로 자신의 수행 정도를 판단할 중요한 잣대가 된다.

가령 이런 식이다. '어떻게 하면 모양과 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한다. 이후 벗어났다고 확신이 들면, 곧장 공부를 시작할 것을 종용하면서 '어떻게 그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라고 되묻게 한다. 철저하게 스스로 묻고 답하게 하는 방식이다.

10년 넘게 '일일수행점검법'을 작성해오고 있는 김의식씨(57 · 국토연구원 연구원)는 "<공부십절목>은 일상생활에서 닥쳐오는 경계의 문제, 병통에 걸렸을 때 대처하는 방법, 화두를 깊고 면밀하게 드는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자상하게 일러주고 있다"며 "바쁜 현대인들에게 화두 참선의 재미를 붙이게 해 엉뚱한 길로 빠질 수 있는 소지를 사전 · 사후로 자기점검해주고 있다"고 말한다.

 # 주의할 점은?

태고 선사는 어록에서 "깨달음의 소식이 있게 되면,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 자신의 살림살이를 다 털어내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열이면 열 모두 마군이 될 것이니 진심으로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한다.

공주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도 "집이든 직장이든 혼자서 공부를 스스로 점검하되, 화두를 타파하기 전에 어떤 알음알이와 경계가 일어나도 '모든 것은 아니다'고 부정하면서 다 떨쳐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직 화두를 반석처럼 움직이지 않게 붙잡겠다는 자기 다짐이 올곧게 서면, 화두에 간절한 의심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지 제대로 자기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서장>의 점검법

① 유유히 한가로울 때에 온갖 마의 경계에 휘둘리지 않는가
② 일상생활 속에서도 화두가 잘 들리는가
③ 움직이거나 고요할 때에 헤아려 분별하지 않을 수 있는가
④ 꿈꿀 때와 깨어 있을 때가 일치하는가
⑤ 이(理)와 사(事)가 회통 되는가
⑥ 마음과 경계가 모두 한결같은가

<공부십절목>의 점검법

① 어떻게 하면 모양과 소리를 벗어날 수 있는가
② 이미 소리 등에서 벗어났으면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③ 이미 공부를 시작했으면 그 공부가 익은 때는 어떤가
④ 공부가 익었으면 나아가 자취를 없애야 한다. 자취를 없앤 때는 어떠한가
⑤ 자취가 없어지면 의식이 닿지 않고 마음이 활동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경계인가
⑥ 공부가 지극해지면 동정(動靜)에 틈이 없고 자나 깨나 한결같아진다. 마치 개가 기름이 끓는 솥을 보고 핥으려 해도 핥을 수 없고 포기하려 해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같나니, 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당 한가
⑦ 갑자기 백이십 근 되는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단박 꺾이고 단박 끊긴다. 그 때는 어떤 것이 그대의 자성인가
⑧ 이미 자성을 깨쳤으면 자성의 본래 작용은 인연을 따라 맞게 쓰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본래의 작용에 맞게 쓰이는 것인가
⑨ 이미 자성의 작용을 알았으면 생사를 벗어나야 하는데, 안광이 땅에 떨어질 때에(죽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⑩ 이미 생사를 벗어났으면 가는 곳을 알아야 한다. 사대는 각각 흩어지니 어디를 향해 가는가

<종경록>에서의 점검법

① 견성해 마치 대낮에 물건을 보듯,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는가
② 사람을 만나고 상황에 대처하는 등 모든 경우에 밝고 뛰어나 도와 상응하는가
③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사들의 말을 모두 살펴도 의심스런 곳이 없는가
④ 온갖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따진 뒤, 능히 사변을 갖춰 모든 의문을 풀어낼 수 있는가
⑤ 언제 어디서든 생각 생각마다 깨어 있어, 한 순간에도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⑥ 일체의 순경계와 역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모두 알아차려 그것을 타파할 수 있는가
⑦ 본체가 일어나는 곳을 알아 생사의 뿌리에 어지럽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⑧ 옷 입고 밥 먹을 때, 일을 맡아 처리할 때에도 일일이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가?
⑨ 부처와 중생이 있다 없다, 칭찬과 비방의 말을 들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가
⑩ 어떤 성인의 말에도 의문이 없을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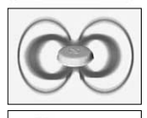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생명체를 컨트롤하는 파워자기장 척추크리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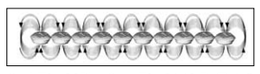


1. 우주와 인체내 자기장의 원리와
2. 척추와 12장부의 상호작용을 설명했습니다.
3.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도 병원에선 괜찮다는 진단결과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 몸에 이상 징후가 있으므로 반드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4. 내몸의 질병을 자신이 직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
5. 12장부의 대표적인 치료법을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분도 도해를 보고 척추를 중심으로 쉽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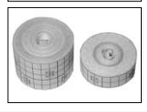
세계최초로 3200 가우스의 강력한 의료용자석 개발!!



◗ 대형자석
1. 크기 : 지름 2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20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소형자석
1. 크기 : 지름 10mm 의료용 원형자석
2. 수량 : 30개 3. 특징 : 3140 가우스의 반영구적인 강력한 의료용 특수자석



◗ 반 창 고
1. 크기 : 대형반창고 – 넓이 50mm 길이 10m
소형반창고 – 넓이 25mm 길이 10m
2. 특징 :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인체에 무해한 의료용 반창고

제품 한세트 구성요소 가격 185,000원
치료용 책 1 권 + 대형자석 30개+
소형자석 30개 + 대형반창고 1롤 + 소형반창고 1롤

파워자기장이 필요하신분들
● 척추와 인체에서 발생한 모든 통증 ● 불치성 심장질환이나 간, 폐, 위장, 대장, 신장등 오장육부의 질환 ● 관절염, 오십견, 좌골신경통, 요통등의 질환
● 여성들의 생리통, 요실금, 냉증등의 부인병질환 ● 남성들의 정력감퇴, 조루, 소변이상등의 질환 ● 고질적인 천식, 숙취, 변비, 치질, 감기, 두통등의 질환

실증자료

가톨릭의대
채정호(여의도 성모병원), 이창욱(강남 성모병원)교수팀과 미국 노스 캐롤라이나 의대의 마크 조지 교수팀은 기존 치료방법으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한 우울증, 강박증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치료를 실시한 결과 확실한 호전반응이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우울증외에도 각종 불안장애, 운동장애, 정신분열등의 환자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서울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팀이 생리통 환자를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환자들이 생리통이 없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뉴욕AP통신에 따르면 뉴욕의과대학 신경과 전문의 마이클 웨인트러브 박사가 루프스등의 질환으로 나타나는 극심한 통증을 겪는 환자들에게 자기장 치료를 4개월간 실시한 결과 90%이상이 통증이 완전 해소됐으며, 당뇨병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작열감, 자통, 저림같은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자기장 치료를 3개월간 실시한 결과 거의 100%에 가깝게 통증이 해소 되었다고 한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치료법에 대해서 문의해주십시오/ 성심성의껏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란에 들어가서 보시면 치험사례 및 파워자기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및 구입문의 : 02)987-3110 / 011-9643-8161
국민은행 824002-04-030421(예금주 : 홍현의)

발명특허 출원중 | 의료기기로 보사부 허가 필 | 보사부 의료기기 허가번호: 제2244호

내 몸의 통증을 내가 지배해야 무명장수
통증을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장이 최고라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질병이 발생하면 관련된 부위에 반드시 통증이 나타나며
이런 통증을 제대로 다스려야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언제나 노력하고 연구하는 한국자기원이 되겠습니다.
韓國磁氣院 서울시 강북구 수유1동 488번지
홈페이지주소 : www.jibub.co.kr /E-Mail : jibub3110@hanmail.net

청동 불상 제작 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대문구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청동불상제작전문
성화불교전시관
서울
상봉터미널
금란교회
채림은행
망우고개
동구능
덕소
팔당
양평
도농삼거리
마지터널 1Km
성화불교미술원(공장)

공불련 업그레이드 전략 '눈길끄네'

'참여하는 공불련, 하나되는 공불련' 로드맵 제시

성지순례 늘리고 가족과 함께 수계
1기관 1불자회 운동 등 포교 본격화



공불련이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여건 조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그동안 단체를 만들고 키우는데 주력했다면, 올 공불련의 화두는 '조직화', '내실화' 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공주 갑사에서 열린 공불련 창립 5주년 기념법회 봉행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공무원 불심이 꿈틀거린다. 국내 최대 직장인 신행단체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성윤갑, 이하 공불련)가 지난 12월 28일 '공불련 활성화 로드맵' 을 제시하는 등 2006년 한 해 살림살이 밑그림을 알차게 그렸다.

활동비전도 선포했다. '참여하는 공불련, 하나 되는 공불련'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4대 중점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추진기획단도 꾸려 내실있는 신행 환경 조성, 인드라망 구축을 통한 조직 구성, 법회 및 포교활동 강화, 재정 보강 및 후원회 조직 등에 공을 들이기로 했다. '공불련의 내실화' 불사의 청사진을 미리 들여다보았다.

 # 신행은 우리 단체의 존재 이유!

공불련이 올해 내놓은 활성화 로드맵의 핵심은 신행활동 강화. 그간 '현상유지' 만 하고 있던 공불련 신행을 한 층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공무원가족에 대한 수계 및 법명 받기. 신행에 있어 일터와 집의 경계를 과감히 허물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차원에서 연 1회 시행하던 성지순례를 분기별 1회로 확대하는 등 공불련 내부의 결속력을 다지고 회원 개개인의 신심을 높일 계획이다.

수행정진 활성화팀 신오룡 팀장은 "직장 신행단체라는 점 때문에 정기 법회 정도만으로 만족했던 점이 있었다"며 "미지근한 신행에서 탈피,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조직력, 이제 '제대로' 챙긴다

"지금까지 내가 공불련에 소속돼 있는지, 체감조차 할 수 없었어요. 스스로 공불련의 한 식구란 자부심이 있어야 직장 내에서도 '신(信)바람' 나지 않겠어요. 이제는 '내가 공불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공불련 회원 최모씨)

한 단체에서의 '조직력' 은 생명과도 같다. 신행여건이 조성됐다면 이번에는 '조직 정비' 가 급선무다. '최대 직장직능 신행단체' 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회원들 개개인의 결속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 공불련의 과제인 셈이다.

공불련이 가입기관 불자회와 미가입 기관 현황파악부터 실시해 조직을 공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도 '조직 정비' 의 중요성을 재인식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적극 반영한 홈페이지 개편도 같은 맥락이다. 인터넷 없이 조직 관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불련에서 새로 개편할 홈페이지(www.gongbul.or.kr)에는 '고충처리방' '우수회원 칭찬 코너', '공불련 119 구조대' 등의 공간이 새로 마련될 예정이어서 인터넷을 통한 불자들의 고민, 신행 나눔도 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좋은 불법 널리 알려야죠

이번 공불련 활성화 로드맵의 또 다른 특징은 활동의 시선을 밖으로 돌린 점. 신행을 기본으로 한 포교활동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불련이 '1기관 1불자회 갖기 운동' 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더 이상 신행단체로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단위기관 불자회 창립비율은 75% 정도. 전국 400여 기관 중 약 300곳이 불자회 깃발을 꽂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공불련이 불자회 미창립 기관에 불교모임 결성지원을 한다는 것은 바로 공불련의 '존재이유' 로 직결되는 것이다.

또 공불련은 서울 · 과천 · 대전 정부청사 내 법당 건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포교기반을 만들기 위한 거점이 법당이기 때문이다. 법당 건립 계획은 우선 대전 청사부터 시작해 서울과 과천으로 서서히 실행될 예정이다.

 # 후원회 꾸려 재정문제 해결

살림살이의 규모와 재정 투명도도 높일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불련의 재정은 몇몇 단체의 분담금과 집행부 인사들의 개인 자금 등으로 꾸려졌던 '주먹구구' 식의 방식을 탈피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재정 공개와 분담금 납부 독려를 전개할 예정이다.

공불련은 이를 위해 회원들의 자율적인 회비 납부와 각 단위기관 불자회의 분담금 자율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공불련 창립취지 및 운영현황 등에 관한 회장 또는 사무총장 명의의 협조서 발송이 분기별 1회씩 시행된다.

또 홈페이지에 단위기관별 분담금 납부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내보이는 한편, 단위기관의 분담금 납부에 대한 의무감도 함께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홍부 감사원 감사의 주도로 '(가칭)공공기관후원회' 창립도 준비중에 있어 정 · 재계 인사, 각 종단의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후원회가 결성되면 공불련에 재정지원도 가능해, 현재 안고 있는 재정 문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불련 활성화 추진기획단 천홍욱 단장은 "지금까지 단체를 키워왔다면 이제부터 확실한 기반을 다져 구체적인 사업범위를 확정, 신행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가족봉사단 활동 시작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수도권 지하철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공사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 회원들이 새해부터 옹골찬 봉사활동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고민의 출발은 같은 일터에 전체 직원들과 '함께' 할 '무엇인가' 를 찾는데 있었다.

그러다 정찬연 교화부장이 무릎을 '탁' 쳤다. 지난해 11월, 법우회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자 결성했던 가족봉사단에 본격적 시동을 걸지 못했다는 것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기본교육까지 마쳤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첫 활동은 1월 3일, 가족봉사단의 이름을 '버팀목' 으로 새로 정한 것부터 시작됐다. 어려운 사람들의 '버팀목'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발원에서 이름을 붙였다.

버팀목이 처음으로 나선 곳은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 선재동자원. 첫날은 버팀목 회원들과 원장 지산 스님의 만남으로 시작됐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스님에게 버팀목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한결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것이기에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다.

직업 특성상 평일에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활동하기로 하며 지산 스님과 손을 맞잡았다.

정찬연 법우회 교화부장은 "법우회 회원은 물론 성북승무사무소 모든 식구들이 '나눔의 해' 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김강진 기자



가족봉사단 '버팀목' 회원들이 1월3일 지산 스님과 봉사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일터가 도량입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는 직장불자들. 직장인으로서도 100점, 불자로서도 100점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일을 신행처럼, 신행을 일처럼 하는 불자라면 가능할 것이다. '일터를 신행도량으로' 삼아 열심히 정진하는 일터불심을 찾아 나선다.

구석구석 빛내며 마음 닦아요
서울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김정애씨

서울 은평구 대조공원 화장실은 늘 '반짝반짝' 빛이 난다. 이곳을 자주 찾는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그저 '요즘 공중화장실이야 다 깨끗하지' 라며 쉬 넘겨버리지만 이곳 화장실의 깨끗함은 남다르다. 은평구청 청소행정과 김정애(48 · 법계심 · 사진)씨가 든든한 이곳 터줏대감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15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김씨는 마음을 닦는다는 심정으로 대조공원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있다. 구청은 물론 불심회원들 사이에서도 '세심(洗心)보살' 로 통한다.

"아직 환경미화원 하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랬죠. 가끔씩 너무 힘들 때 마다 그만두고 싶은 유혹도 많았는데 '불자' 라는 믿음이 저를 지탱해주더라고요."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청소를 하고 있는 김씨에게 모진 말을 던질 때 가장 속상했다는 김씨. <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의 글귀는 김씨의 마음을 꿋꿋하게 지켜내게 했다.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라' 는 뜻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성냄도 섭섭함도 집착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도 일상은 녹록치 않아 부딪치게 될 일은 생기기 마련. 노숙자, 가출 청소년등이 김씨에게 심각한 골칫거리가 되기도 했다.

"처음엔 막 싸웠죠.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하고 있는가'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내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그 사람들에게 비수가 되지는 않을까 다시 생각해보게 하더군요."

'말로 짓는 업' 이 가장 무겁다는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숙자 등과 말싸움을 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마음을 고쳐먹으니 노숙자들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밥 한 그릇 내밀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이런 김씨지만 처음부터 불자의 길을 걸은 것은 아니었다.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 세례까지 받았다. 그러다 17년 전,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부처님 말씀이 지친 김씨의 삶을 지켜줬다.

신행활동은 8년 전, 은평구청 불심회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이 평소 강조하는 '무주상보시' 법문을 듣고 실천하고자 소쩍새마을, 둥지청소년의 집 등 5곳의 복지시설에 꾸준히 후원금도 보내고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야말로 불법을 잘 따르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울을 닦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거울 닦다가 '마음 닦을 것이 뭐 있나, 열심히 주어진 일 하면서 살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해요. 아, 이 일이야말로 내 업장을 녹이는 길이구나 싶어요."

김강진 기자

정월 방생 및 삼사순례

각 사암 대덕큰스님께 아룁니다
본 성모암은 조선 명종때 창건된 사찰로서 동양의 소 석가의 칭호를 받으신 진묵대성사님의 모친 묘소가 있는 무자손 천년향화지지(無子孫 千年香火地之)입니다
진묵대사님께서 열반후 천년동안 향(香)불이 이어지는 명소이며 아울러 근처에 육신방생지가 위치하고 있어 방생 및 삼사순례의 적격지로, 근처 10분거리에 금산사와 망해사,귀신사등등 천년고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모암에 순례하시길 성모암 사부대중이 서원 합니다.

종무소 ☎063)544-0416
www.sungmoam.net
• 점심공양을 무료로 해 드립니다
• 대형주차장(50대 동시주차 가능)에서 평지로 100m이며 노인분들도 참배가 용이 합니다
• 방생물 준비 가능 • 반드시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전통사찰111호) 성 모 암

오시는 길
◎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서 군산방면 - 대야검문소에서 김제방면으로 10분 거리
◎ 서해안 고속도로 동군산 IC. 서김제 IC에서 5분거리

살아있는 동충하초 추출액 100%
● 연구개발자 : 생물자원개발 연구소 이학박사 김홍남 교수
● 식품안전성검사 : 시험번호 제 G02128호
● 상표등록번호 : 40-2001-0031242
● 구입문의 : 성모암 (063-544-0416) 법연 스님 (010-9282-0733)
● 특별판매가격 : 125,000원(100㎖×60포)
◎ 본 제품판매 수익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금에 사용됩니다.

부산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제 14교구 본사
선찰대본산 금정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 지 대 성
부주지 계 전

박물관장,총무국장 경 선
재 무 국 장 원 범
교 무 국 장 성 중
사 회 국 장 지 선
기 획 국 장 정 산
포 교 국 장 무 관
호 법 국 장 지 문
연 수 국 장 혜 수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TEL 051)508-3122-7 / www.beomeosa.co.kr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 잔잔한 바다에 거친 풍랑 일으킨 것

부처님의 세상이고 깨달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무엇'은 본디 밝고 밝아서 신령스럽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일찍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어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다고 한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써 부처님이나 노자, 공자도 '그 무엇'에서 나왔다고 했다. 이런 성인들이 나온 자리를 함부로 중생들이 거론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잘못 거론하다가는 눈썹이 빠질 것이라고 했다.

예로부터 선문(禪門)에서는 진리를 잘못 거론하다가는 눈썹이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가귀감>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佛祖出世 無風起浪

부처님과 조사스님 이 세상에 나오신 건 바람 없는 큰 바다에 거친 풍랑 일으킨 것.

여기서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하고 조사스님은 선종에서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은 가섭 존자를 가리킨다. 우리는 보통 쳇바퀴처럼 돌고 도는 생사의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자비로운 큰마음으로 건져주시는 분이 부처님이고, 목숨을 걸고 공부하는 수행자의 눈을 단숨에 밝혀 주시는 분이 조사스님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선가귀감> 2장에서는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은 잔잔한 바다에 쓸데없이 거친 풍파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꾸짖는다. 본디 이 세상은 평화롭고 조용하다는 것이다. 이 말뜻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부처님의 영역과 중생의 영역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경전이나 어록에서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하고 마음을 드러내며 '그 무엇'을 이야기할 때,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근본자리에서 거론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중생들의 처지에 맞추어서 하는 이야기인지를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의 근본자리란 1장에서 거론된 이름 붙일 수도 없고 모양을 그릴 수도 없는 '그 무엇'에 해당된다. 중생의 영역이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를 시비 분별 속에서 늘 가려내는 일들을 말하니 육조 혜능 스님의 '일물(一物)'이 여기에 해당된다.

근본자리서 보면 우리도 부처
분별망상 때문에 알지 못할 뿐

부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무엇'은 문자로 설명할 수 없는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영역이요 어떤 개념을 가지고도 가르칠 수 없는 교외별전(敎外別傳)의 영역이다. 그런 '그 무엇'의 자리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근본자리에서 보면 이 세상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화롭고 평화롭고 완전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늘 중생이다'라는 표현을 하며 살고 있지만 근본을 알고 보면 우리도 본디 모두 부처님이라는 것이다. 다만 시비분별하는 중생의 업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화엄경>에서는 이런 뜻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菩提樹下 初成正覺 歎曰 奇哉奇哉
一切衆生 皆有如來智慧德相 以分別妄想 而不能證得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처음 성취하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찬탄하며 말씀하셨다. "참으로 놀랍고 놀랍도다. 모든 중생들이 다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는데도 분별망상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서산 스님은 모든 중생들이 여래의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뜻을 드러내기 위해 "그 무엇의 자리에서 본다면 사람마다 본디 얼굴이 오롯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연지 찍고 분을 발라 줄 것을 기다릴 일이 뭐 있겠느냐?"라고 표현하였다. 이것은 중생들의 얼굴은 그 자체로서 본디 부처님의 얼굴인데, 여기에다 다시 부처님의 얼굴을 만들겠다고 연지 찍고 분을 바를 필요가 왜 있겠느냐는 말이다. 이런 견해로 보면 부처님과 조사스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중생을 교화하겠다는 것도 잔잔한 바다에 거친 풍랑을 일으키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허공장경>에서 "글도 마구니의 업이요, 이름과 모양도 마구니의 업이요, 부처님의 말씀조차도 마구니의 업이니라" 한 것이 바로 이 뜻에서 한 말들이다. 이는 바로 깨달음의 본분(本分)을 말하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중생들의 알음알이를 가지고서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 자리에 와서는 천지가 뒤집어지고 눈앞이 깜깜해지게 된다. 서산 스님께서는 게송으로 말씀하셨다.

乾坤失色 日月無光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도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절 이름이 다양한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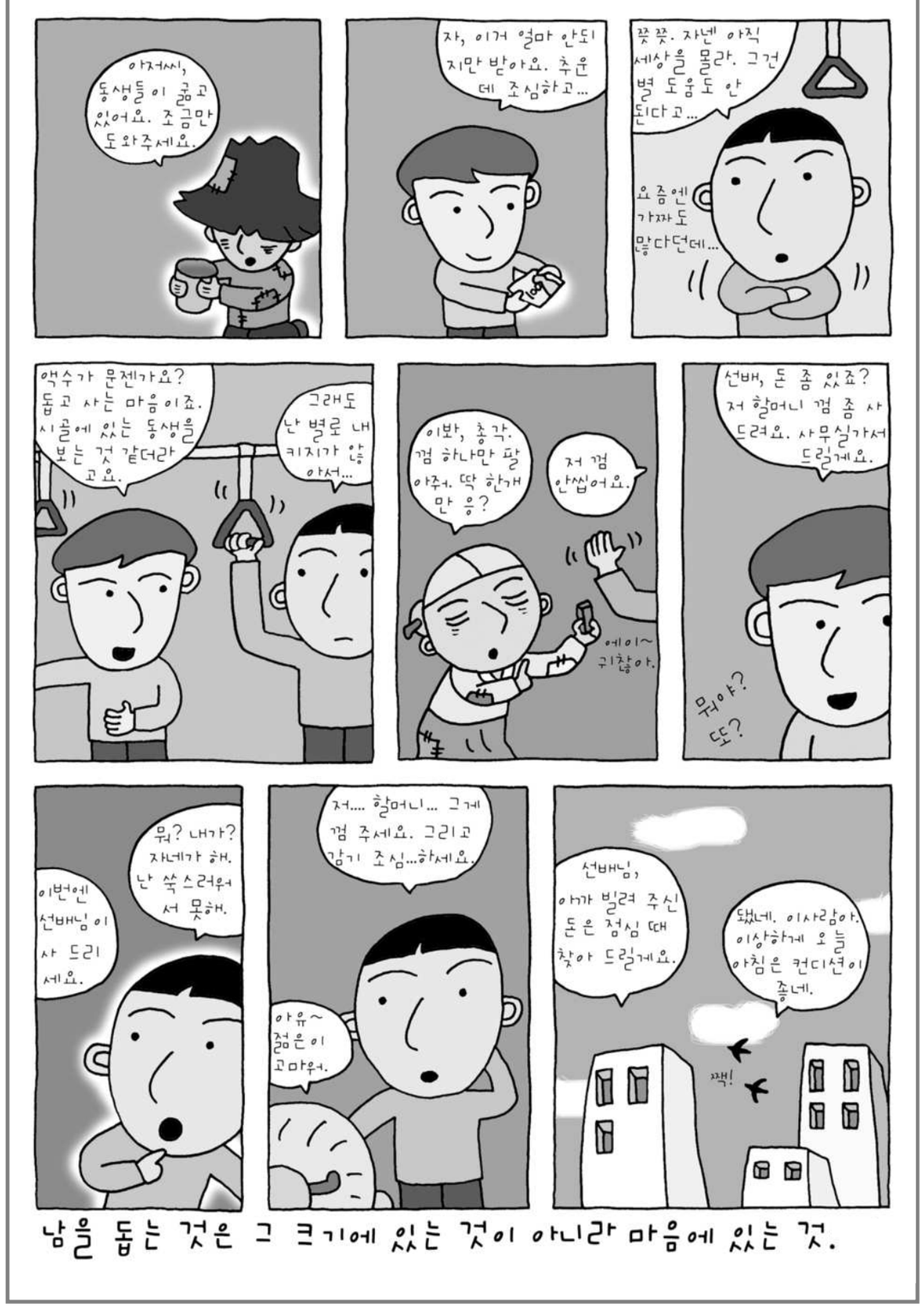
○○사(寺), △△암(庵), ○○정사(精舍), △△선원(禪院). 절 이름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 어떤 절에 이런 명칭들을 붙일까요? 우선 사(寺)자를 쓰게 된 연유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원래 '사'는 중국 한나라 때 외국 사신을 맞이해 임시로 머물게 했던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다 인도의 마등과 법란 스님이 중국에 건너와 이 관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사'란 표현이 일반화됐습니다.

처음에는 암, 정사, 선원 등의 표현이 없었습니다. 이후 유명한 산에 큰 절이 창건되고 이를 중심으로 작은 절이 하나 둘씩 세워지면서, '암' 또는 '암자'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암자'는 본래 '마을과 떨어진 곳에 나무와 풀로 엮어 만든 임시 집'이란 뜻입니다. 정사는 범어 비하라(vihara)의 번역이며, 선원은 큰 절 안에 있는 '별채'를 뜻하는데, 가령 해인사 같은 큰 절에 있는 강원, 율원, 선원 같은 것들이지요. 암자는 대체로 큰 절 인근에 있고, 선원은 큰 절 안에 있는 '별원'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사실상 이들 명칭은 큰 차이 없이 일반적으로 사찰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됩니다. 김철우 기자

행복동 사람들

남을 돕는 마음

배종훈 (bjh4372@hanmail.net)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4강 혜능의 돈교(2) : <금강경 구결>과 <육조단경>

돈교, "번뇌가 곧 깨달음!"

선은 이를테면 불교의 사춘기적 각성에 해당한다. "밥 먹고 학교 가라는 엄마의 말이 지겨워질 때쯤" 사춘기가 찾아온다는 어느 여중생의 말처럼, 불교가 오랜 세월 온축해온 팔만대장경의 가르침이 갑갑해질 때쯤, 선이 태동되었다.

선은 정통 불교에서 보면 문제아들의 반란에 해당한다. 그들은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여 교과서를 내팽개치고, 직지인심(直旨人心)을 외치며, 학교를 떠나 삶의 현장과 대면하겠다고 선언했다. 고의적인 기행과 우상파괴, 의미를 따라잡기 힘든 '선문답'이 그들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것은 그러므로 우연이 아니다.

선의 복음을 보여주는 대표구 하나를 인용한다.

돈황본 <육조단경>의 일절

(40) 志誠(城)聞法, 言下便悟, 卽契本心. 起立卽禮拜. 自言, 和尙, 弟子從玉泉寺來. 秀師處不得(德)契悟, 聞和尙說, 便契本心. 和尙慈悲, 願當敎(敷)示. 惠能大師曰, 汝從彼(被)來, 應是細作. 志誠曰, 未說時卽是, 說[及]了不(卽)是. 六祖言, 煩惱卽是菩提, 亦復如是.

(41) 大師謂志誠曰, 吾聞汝(與)禪師敎人, 唯傳戒定慧, 汝(與)和尙敎人戒定慧如何, 當爲吾說. 志誠(城)曰, 秀和尙言戒定慧, 諸惡不作名爲戒, 諸善奉行名爲惠, 自淨其意名爲定. 此卽名爲戒定惠. 彼作如是說, 不知和尙所見如何. 惠能和尙答曰, 此說不可思議, 惠能所見又別. 志誠(城)問, 何以別. 惠能答曰, 見有遲疾. 志誠(城)請和尙說所見戒定惠. 大師言, [如]汝聽吾(悟)說. 看吾(悟)所見處, 心地無[疑]非自性(姓)戒, 心地無亂是自性(姓)定, 心地無癡自性(姓)[是]惠.

읽기 쉽게 번역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성이 벌떡 일어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는 옥천사에서 왔습니다. 신수(神秀) 스님 밑에서 안개 속을 헤매다가,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듣고, 제 마음의 비밀을 엿보았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혜능(慧能)이 말했다. "신수가 보냈다니, 너는 필시 스파이로구나." "사실을 숨겼을 때야 스파이겠지만, 털어놓았으니 이젠 아닙니다." 혜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이치도 그와 같다."

혜능(慧能)이 지성에게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다. "듣자니 신수(神秀)는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만 가르친다는데,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제발 나쁜 짓하지 말고, 착한 일을 찾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의 불순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정화해 나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계, 정, 혜 삼학을 수행하는 길이라고요." 혜능이 말했다. "훌륭하다! 그러나 내가 가르치는 것과는 좀 다르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가 점진적 단계적이라면 나는 즉각적이며 초월적 방법을 제시한다. 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마음에 아무런 인위나 거짓이 없도록, 마음에 아무런 혼란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음 바탕에 어떤 무지의 구름도 끼지 않도록 하라고만 가르친다. 누구나 자기 안에 계율과 선정과 지혜의 빛을 갖고 있다. 다만 그것을 발휘하기만 하면 그뿐, 달리 별도의 수행체계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돈황본(敦煌本) 육조단경> 40-41)

<돈황본 육조단경>과 선의 정통 시비

20세기 초 돈황에서 발견된 풍부한 자료는 선종사 연구에 획기적 전기를 가져왔다. 선의 역사는 이 발굴로 하여 다시 써야 한다고까지 할 정도였다. 가장 첨예한 논제는 남종(南宗)과 북종(北宗) 사이의 정통성 시비이다.

7세기 중엽, 신비주의에 경도한 측천무후는 불교를 파격적으로 옹호했고, 이와 더불어 동산(東山)에서 큰 5조 홍인의 제자들이 중앙으로 진출했다.

신수의 선은 무후와 귀족들의 후원과 지지에 힘입어 급속히 세력을 확대해 나갔다. 포교의 중심지는 달마가 주석하고 있던 숭산의 소림사였다.

그런데 이 움직임에 하택(荷澤)의 신회(神會 670-762)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732년 낙양 근처 개운사(開雲寺)의 공개토론회(無遮大會)에서, 신회는 수많은 승려와 학자들 앞에서 북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선의 정통은 남방의 혜능에게 있다. 북종은 선의 방계일 뿐이다." 신회는 거두절미하고, 법통의 증표인 가사(옷)가 지금도 혜능의 처소인 조계(曹溪)에 현존한다고 강조했다.

신회는 여기 그치지 않고, 신회와 혜능의 선 사이에 깊은 골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차이가 선의 근본정신과 연관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신회의 활약으로 북종은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 버렸다. 이후 선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혜능의 남종이 주도해 나가게 된다. 현행본 <육조단경>은 이 같은 파란을 거치면서 편집되고 유통되었다. 이 책이 아예 신회와 그 계열에서 정략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다.

일찍이 중국의 근대 철학자 후쓰(胡適)는 '돈황의 발굴' 이후, 선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나는 이 종파적 투쟁이 <육조단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스즈키 다이세츠(鈴木大拙)의 해석에 동의한다.

돈교, 새 불교의 목소리

<육조단경>은 6조 혜능이 창도한 선의 기본 정신을 담고 있다. 책의 전반부는 특이하게도 그의 행적과 이력을 길고 상세하게 적어놓았다. 그런데, 그 안에 선의 정신이 '이미' 다 들어있다.

이 책은 편집부터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 이전까지 해오던 스콜라적 경문(經文) 주석이 아니라 구도의 여정과 삶의 진실을 대중강연 형식으로 풀고 있다.

그는 변방의 오랑캐인데다가 일정한 교육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한다. 이것이 선의 정신에 대한 '상징'이 되었다. "경전에 대한 지식도 없이 일정한 교육을 받지 않고도 불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가 신수의 정신과 혜능의 정신 사이를 갈라놓았다. 선의 역사는 이것을 북종(北宗)과 남종(南宗), 혹은 점교(漸敎)와 돈교(頓敎)로 구분한다.

신수의 점교는 계율과 선정을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정화시켜 가라고 권한다. 이는 <법구경(法句經)>에 나오는 불교의 가르침, 즉 "여러 악한 업을 짓지 말고 뭇 착한 일을 해 나가라. 스스로 마음을 맑게 가라앉힐지니,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니라(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心, 是諸佛敎)"와 같은 정신을 표명하고 있다. 신수는 이 길을 철저히 밀고나가 신비한 위광을 얻고, 이윽고 측천무후의 심복과 귀의를 얻기까지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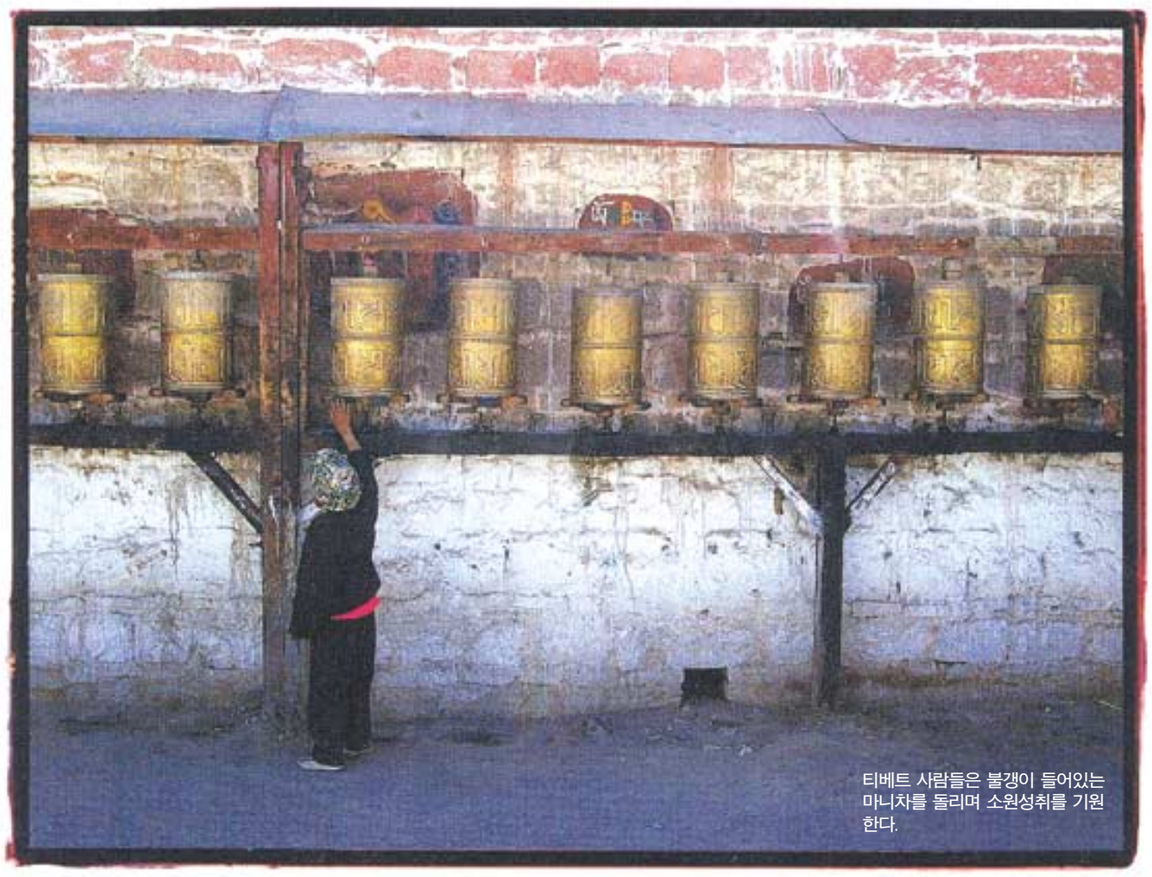
그러나 혜능은 전혀 달리 말한다. "너 자신이 곧 부처이다!"

그동안의 불교는 저쪽 언덕에 거룩한 부처들이 있고, 이편 언덕에서 한심한 내가 그분들을 경배하고, 그분들을 닮기 위해 길고 고된 수련을 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육조의 선은 이 점교(漸敎)의 발상을 일거에 쓸어버렸다. "다시 기억해라. 네가 곧 부처이다. 너를 하찮게 보는 사람들의 혀에 속지 마라!"

이 돈교(頓敎)의 선언으로 하여 그동안 불교를 구성하고 있던 수많은 코드들이 혹은 버려지고, 혹은 전혀 다른 얼굴로 재편되었다. 위에 인용한 '새로운 삼학(三學) 해석'도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믿는 만큼 커지는 마음의 힘


티베트 사람들은 불갱이 들어있는 마니차를 돌리며 소원성취를 기원한다.

"당신의 직감에 따르고, 당신의 꿈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당신을 믿으세요. 원하는 바를 구하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면 그들이 올겁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애리얼 포드 지음
나무심는사람 펴냄| 9천원

마음의 변화로 영혼 치유와 충만 경험한 37명 이야기

사람들의 믿음, 기대, 예측이 대상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Pygmalion effect)'라고 한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 피그말리온이 사랑의 신인 아프로디테에게 기도해 혼이 없는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듯이 간절한 기대는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 말이다.

이렇듯 사람의 마음은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에너지가 아무렇게나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새해를 맞아 따뜻한 변화, 신비로운 기적, 마음의 치유를 원한다면 작가 의사 무용수 음악가 빵집주인 학생 여배우 출판업자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실제로 겪은 39편의 체험담을 모아 출간한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를 권한다.

이 책에 소개된 경이와 축복, 천사, 기적적인 사건, 임사체험, 신성한 힘의 개입, 성자와의 만남, 놀라운 우연의 일치 등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을 자극하는 진솔한 체험담들은 세상을 보는 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이런 체험담들은 삶과 죽음 등 그 어떤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던 문제가 결국 우리의 관점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영혼의 사랑, 영혼의 치유'다. 제2부는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며 제3부는 '우리는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의 대부분이 해피엔딩이라 할지라도, 결말에 이르는 과정은 시시하거나 억지스럽지 않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에 소개된 이야기들을 격은 체험자들의 자세이다. 이들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심하게 넘어가지 않고 자기 인생의 등대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이야기 중 인상적인 것 몇 개를 소개하면 이렇다.

세계적 강사이며 <웃음교실> <마음을 열려주는 101가지 이야기>를 비롯한 8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다이애나 루먼스의 '꿈은 이루어진다'의 감동은 잊을 수 없다. 출판계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된 다이애나가 뜻밖의 방문객,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조언으로 새로운 삶의 전환을 맞게 됐던 이야기다. 열정이 넘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이애나도 처음에는 힘들게 마련한 항공권과 다른사람이 나눠준 숙박권과 초대권을 들고 도서전시회를 찾아갔던 경험이 있다. 그곳에서 용기를 내어 어렵게 출판업자에게 출판기획서를 보여준 뒤 이어진 행운들이 소개된다.. 다이애나 루먼스는 행운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당신의 직감에 따르고, 당신의 꿈을 위해 시간을 내고, 당신을 믿으세요. 원하는 바를 구하고,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면 그들이 올겁니다"

마르시아 비더(강사)의 '기억'은 삶의 전환점이 된 이상한 내면의 목소리와 여행 이야기이다. 어느 날 마르시아 비더는 머릿속에서 '샤스타'라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 그 부름을 따라 캘리포니아의 샤스타 산을 찾아간다. 산 정상에 앉아 그녀는 오래전 샤스타 산의 화산 폭발을 기억해낸다. 그녀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자신이 해설을 안 보고도 타로카드를 풀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작가는 얘기한다. "우리가 신비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크리슨 브라운(작가)의 '마음으로 보는 법'에는 비디오 워크숍에 찾아온 맹인 톰이 삶을 긍정하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과정을 소개한다. 차 사고로 맹인이 된 톰은 어떤 내면의 부름을 듣고 워크숍에 왔지만 매우 거칠고 자기 자신에게 못마땅해 있는 상태였다. "톰, 당신은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사실 눈이란 것은 제일 비효율적인 시각적 도구에 속합니다. 표정은 위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탐지기는 목소리를 읽습니다. 나는 말하는 것이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알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톰. 당신의 보이지 않는 눈이 삶의 모든 피상적인 것을 깨고 사물의 핵심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톰은 워크숍에서 이같은 얘기를 듣고 마음의 눈을 뜬다.

책을 엮은 애리얼 포드(PR전문회사인 '포드 그룹' 대표)는 자상하게도 자신의 책을 읽는 방법도 소개한다.

"차 한 잔을 나누듯 책 속에 담긴 이 체험담들을 나누어보라. 이야기들을 제대로 맛보려면 우선 마음을 열어야 한다. 그럴 때라야 그 목소리가 귀에 닿아 당신의 핏줄을 타고 영혼에 이를 것이다"

마음과 영혼을 노래하게 만들 신비로운 이야기를 접하는 것은 항상 흥미로운 일이다.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코끝이 시큰하도록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 담긴 생각들은 영감과 자각, 그리고 인식 능력을 키워 줄 것이다. 새로운 잠재력과 넓고도 무한한 가능성들에 눈뜨게 만드는 자극제를 만나보는 것이 어떨까?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네티즌 강추

자아의 신화 찾아가는 영혼의 연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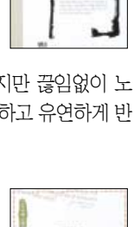
연금술사 문학동네, 파울로 코엘료 지음

진정한 연금술은 만물과 통하는 우주의 언어를 꿰뚫어 궁극의 하나에 이르는 길이며, 마침내 각자의 참된 운명, 자아의 신화를 사는 것이다.

평범한 양치기 청년 산티에고는 마음의 속삭임에 귀를 열고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길을 떠난다. 집시여인, 늙은 왕, 도둑, 화학자, 낙타몰이꾼, 연금술사를 만나 자신의 보물을 찾기까지, 그의 극적이며 험난한 여정은 철학자의 돌을 얻기까지 연금술사의 고로에서 진행되는 실제 연금술의 과정과 닮아 있어 신비와 감동을 더한다. 그렇게, 지난한 연금술의 여정을 통해 그는 만물과 대화하는 하나의 언어를 이해하며 마침내 영혼의 연금술사가 된다.

그러나 사실은, 꿈을 찾아가는 매순간이 만물의 언어와 만나는 눈부신 순금의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그 점에서 산티에고가 도달한 연금술의 환희는 꿈을 잊지 않으려는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하다. 손희정, libro.co.kr

진짜 책을 먹는 여우이야기



책먹는 여우 주니어 김영사, 프란치스카 비어만 지음

인터넷을 휘적휘적 거리다 발견한 눈에 띈 제목 '책 먹는 여우'. 제목이 너무 담백하고 정직하다. 진짜 책 먹는 여우씨가 나오더라. 책 표지는 한 손에 소금병인지 후추병인지를 들고 너무 행복한 얼굴로. 정말 맛있게 책을 먹고 있다.

정말 책을 좋아하고 좋은 책을 발견했을 때 심한 수전증 증세까지 보이는 사람이라면 100% 공감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 인 것이다. 바로 그런 우리들의 이야기!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외치지 않을까? 고쿠센, aladdin.co.kr

더 큰 쾌락을 위해 오늘 참고 즐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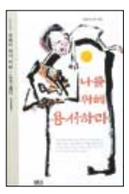


마시멜로 이야기 한국경제신문, 호아킴데 포사 · 엘런싱어 지음

이야기의 주인공은 고졸의 운전수이고 자신이 모시는 대기업 사장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더 멋진 삶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동화같다.

이 책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내가 지금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은 매일의 쾌락을 참지 못하고 즐겼기 때문이고 그것을 견뎌내야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수 있다는 것이다. 즉 더 큰 쾌락을 얻기위해 오늘의 쾌락을 참는것을 즐기라는 것이다. 윤형일, booksetong.com

책속의 밑줄긋기



나를위해 용서하라 미토스, 달라이라마 지음, 도솔 옮김

나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발전 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긍정적인 태도와 생각, 시각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줄일 수 있다. 순간적인 의식일지라도 그것은 수많은 요소들에 의존하는데 , 우리가 이렇듯 다양한 요소들을 변화시킬 때 마음또한 변화한다.

마음은 상당히 고집스러워서 변화에 끈질기게 저항한다.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성에 기초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매우 정직하고 유연하게 반응한다. (37쪽)



인도네팔 순례기 행복 한줌 바움, 문윤정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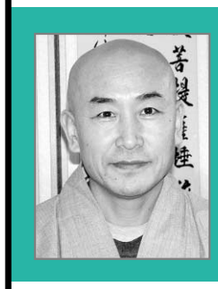
여행지에서는 지금 이순간이 중요하다. 지나간 시간도, 먼 훗날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여행지에서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의 생(生)이 흐르는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 흘러가는 시간도한 그러하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속에서 머물러 산다해도 내앞에 존재하는 것은 현재 뿐이다. (196쪽)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겐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체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이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장뇌산삼(長腦山蔘)을 복용하고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아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변비가 나았다.
● 만성위염이 나았다. ● 혈색이 좋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았다. ● 기력이 좋아졌다.
● 천식이 떨어졌다. ● 백혈병이 나았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몸에 부기가 빠졌다. ● 임파선이 나았다.
● 자궁 물혹이 없어졌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염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 시중가 10㎏당 40만 원을 20만 원에 드리겠사오며, 단, 10㎏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사은행사 :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았습니다.(100분 한정)
● 1Box(60포 ~~20만원~~) ● 2Box(120포 ~~35만원~~)
1Box(60포 : 15만원) 2Box(120포 : 25만원)
●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 033)563-8292 / H · P : 011-9242-8292
홈페이지 www.mansam.net
● 계좌번호 : 농협 315024-52-012392 (예금주 : 심정택)

바로보인의 책을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바로보인 전등록 5권
바로보인 무문관
바로보인 벽암록
바로보인 천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중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출간!!!>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렸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서화당인생풀이 V2.2 (동양철학)
네오헬스 V2.0 (사상체질의학)
인장성명학 V2.0 (작명)
▶할인후 : 총3장 220,000원
동양철학 사주팔자, 궁합, 당사주, 토정비결, 점성술, 성명학, 관상, 수상, 꿈해몽, 만세력제공, 사주사전기능, 방명록기능, 출력기능까지 (그간 3,000여장 판매실적) ☞ "특허받은「사주천하」LG산전 납품실적"
사상의학 나의 체질진단, 약선정보, 사상의학 강의실, 체질별 건강정보 사상체질 식단 및 이로운식생활제공
인장성명학 사주풀이 및 이름자 뒤에 인,장,점 등 표기설명, 성명풀이(한글, 한자), 작명(항렬자, 돌림자 풀이)
■ 그동안 3,000여장의 판매실적과 많은 분들의 입소문으로 입증된 사주풀이의 진수!!! 2045년까지 풀이됩니다.
■ 주문 선착순 100명께는 왕초보도 척척푸는 "사주세상 ₩47,000원" 또는 사상체질의학의 진수 "사상약물방제대전 ₩88,000원"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같이 보내드립니다. ★ 특별선물증정 ★
■ 본 광고의 판매 수량 및 가격 유효기간은 500세트 한정 판매이며, 세트 판매 주문은 2006년 1월 20일까지 입니다. 이후에는 종전대로 가격이 환원 됩니다.
입금처 : 우체국 313049-01-003391 (예금주 :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농 협 453050-55-002174
특가행사 서화당 V2.2 ₩220,000 + 네오헬스 V2.0 ₩110,000 인장성명학 V2.0 ₩110,000
▶CD 총3장 ₩440,000원을 특별할인(-50%) 판매가격 ₩220,000원에 본사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주문후 택배로 익일에 도착합니다>
(사)한국체질의학연구재단 | 감수 : 한국동양철학인협회 중앙회장 최국봉 대전대학교 철학과 교수 송인창
☎ 050-2266-3366 / H · P 010-3366-3366


영험도량
퇴마란?
현 시대는 남을 믿지 못하고 아무리 바삐 뛰어도 만족을 못하는 이기주의 현상으로 말법시대입니다. 자업 자득 법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은복이 소멸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 때 들어나는 것은 전생업마, 현생죄마, 죽은사람마, 동물마, 미생물마, 기타 등등이 마음의 장애가 끼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력이 있는자가 불보살님 힘을 얻어 마를 물리치는 것을 퇴마라합니다.
영가 | 빙의현상(이유)
조상영가 | 집착, 미련 그리움, 애착 때문에
낙태 | 무서워 갈곳이 없어요
타영가 | 여기저기 다니며 놀고 싶어 왔어요
미물영가 | 너무 고통스러워 왔어요
야후 검색창에서 해원사 치세요
연락처 031)736-3734 031)732-3790

읽기 쉬운 선수행 교과서 '몽산법어'



몽산법어
원순 스님 역해
도서출판 법공양
1만2000원

수행중 졸음 올때 대처법
꿈속에서 화두잡는 마음 가짐 등
화두선 참구 방법 상세하게 제시

'어떻게 해야 화두를 잘 참구할 것인가?'

한국의 대표적 수행법인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가운데 선수행의 길잡이로 각광 받아온 <몽산법어>가 한글세대의 입맛에 맞게 발간됐다.

<몽산법어>는 '선의 교과서'로 불리울 만큼 수백년에 걸쳐 수없이 간행돼 많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읽어왔다. 특히 선방에서 화두선을 참구하는 납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책.

원순 스님(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이 역해한 <몽산법어>는 옛 글투에다 한문번역 위주로 된 기존의 책들과 달리 깊이 있는 현대적 해석이 압권이다.

이 책은 고려말 나옹 스님이 원나라에 가서 몽산 덕이 스님(1231~?)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가져온 몽산 스님의 법어 6편과 자신의 법어 1편을 엮어 만든 <몽산법어 약록>과 완산 선사, 동산 숭장주, 고단 스님의 법어 4편이 실린 <몽산법어언해>를 저본으로 재구성해 엮었다.

<몽산법어>에는 수행하다 졸음이 올 때는 일어나 열 걸음을 걸어 정신을 맑힌 뒤 자리에 앉을 것이며 꿈속에서의 화두를 잡는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자세히 후학들에게 일러주고 있다.

몽산 스님은 대중에게 하는 설법에서 세속의 번뇌와 모든 인연을 끊고 외출과 독서도 삼간채 일심으로 선수행을 하면 3년이내에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격려도 잊지 않는다.

완산 선사는 신심을 가진 후에 계행에 힘쓰고 그런 연후에 다시 조주 스님의 무자 화두를 열심히 참구하면 깨달음에 이른다고 가르친다.

동산숭 장주(불서 도서관 관리 직책)는 행각을 떠나는 제자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한시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화두를 참구하며, 앞선 수행자는 모두가 선지식이니 정성껏 법을 청하여 공부해 가라고 당부한다.

뒷부분에는 박산 무이 선사(1575~1630)의 법어를 모은 참선 지침서인 <선경어>의 요긴한 부분도 간추려 놓았다. 무이 선사는 참선법으로 "화두를 공부할 때는 먼저 삶과 죽음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굳세고 이 세계와 몸과 마음들이 다 거짓 인연이어서 실로 어떤 주체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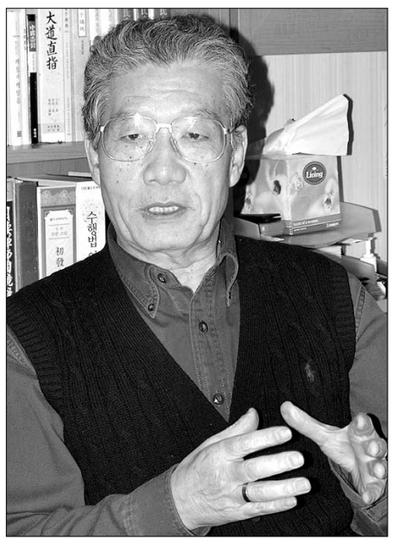
책을 펴낸 원순 스님은 "개인적으로 아직 경전이나 어록을 보는 눈이 밝지 않지만 간화선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작은 힘이나마 정성을 다하여 옛 선사의 가르침을 읽기 쉽게 옮겨보았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퇴임 후 불서 번역에 매진할 터"

■정년퇴임 앞두고 '운명의 변화' 펴낸 이기화 교수

법련사와 1만여권 법보시



오는 8월 정년퇴임을 앞둔 이기화 교수(서울대 자연과학대학 · 사진)가 지난 2년간 법련사 홈페이지(www.bubryun.com)에 연재했던 <요범사훈> 번역문을 책으로 펴내고,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와 함께 법보시에 나선다.

이 교수가 펴낸 <운명의 변화>는 16세기 명나라 원료범 거사가 그의 아들 원천계를 위해 쓴 <요범사훈>을, 대만의 고승 정공 법사가 강술한 <수복속덕조명법 요범사훈강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정년퇴임에 맞춰 형식적으로 펴내는 기념논총 대신,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불서를 펴내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마음을 바꿈으로써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을 담고 있어, 각 가정에서 꼭 한 번 읽어볼만하다고 생각해 번역을 하게 됐습니다."

원료범 거사는 <요범사훈>을 통해 인과사상을 기반으로 허물을 고치고 선행을 함으로써 스스로의 운명을 개조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단순히 '악행을 금하고 선행을 하라'는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청정히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일러준다. 대만에서는 이러한 <요범사훈>의 인성교육 효과를 높이 사 어린 자녀에게 꼭 읽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련사 주지 보경 스님 역시 이 책의 가르침에 공감하고 이 책을 1000권 출간해 여러 사찰에 배포했으며, 이번에 다시 1만권을 펴내 불자들에게 법공양한다. 이 교수는 "아직 불교에는 아마추어지만,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말로 번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퇴임 후에는 본격적으로 불서 번역에 매진해 불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어 준다면 그것만큼 큰 선행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운명의 변화
정공법사 강술
이기화 옮김
불일출판부 | 1만원



붓다의 나라 미얀마
김형규 지음
도서출판 운주사
1만원

붓다의 숨결 가득한 미얀마

"미얀마는 전 국토가 거대한 탑의 밭이다. 번잡한 도시에서부터 한적한 시골, 험한 산 속, 깊은 동굴까지 탑은 어느 곳에나 있다. 심지어 물로 가득찬 호수에도 탑군들이 예외없이 나타난다"

<붓다의 나라, 미얀마>를 펴낸 법보신문 김형규 기자는 붓다의 숨결 가득한 탑의 나라 미얀마를 불국토라고 소개한다.

이 책에는 광활한 평원에 펼쳐진 탑과 황금대탑, 석장경, 탁발하는 스님들의 모습등 미얀마의 다양한 모습들이 150장의 아름다운 칼라사진과 함께 소개돼 있다. 또 단순한 코스 탐방이나 유적 안내가 아니라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모습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내마음의 복전
신화규외 43명 지음
불광출판부
9000원

부처님 만나 행복하여라

부처님을 처음 만나면서 느꼈던 감동. 그리고 달라진 삶. 부처님 그늘에 살면서 느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담 44편을 묶은 신행수기집 <내마음의 복전>이 출간됐다.

'나와 불교의 만남(인연담)' '부처님이 주신 은혜(가피, 영험담)' '일상속의 신행ㅁ;c 수행체험(전법, 수행담)등 <월간 불광> 창간 30주년기념 신행수기 공모작을 포함하여 그동안 잡지에 게재된 내용 가운데 부처님의 가피가 느껴지는 감동적인 내용이 선별됐다.

신행수기는 세상살이가 힘겹고 외로울 때 포근한 위안과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준다.



전통사찰총서 19 · 20 사찰문화연구소 | 각권 1만5000원

통도사 · 해인사 등 경남사찰 71곳 탐방

사찰문화연구원의 <전통사찰총서> 19, 20권이 나왔다. 19권(경남의 전통사찰 II)에서는 양산 통도사를 비롯해 양산시와 밀양시, 사천시, 창녕군, 하동군, 남해군의 33개 사찰을 소개하고 있다.

또 20권(경북의 전통사찰III)에서는 해인사 등 합천군과 진주시, 거제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의령군의 38개 사찰을 탐방한 자료들이 수록돼 있다.

새로나온 책



■ **인간학 불교** (정승석, 정우서적, 8000원)= 동국대 인도철학과 정승석 교수가 풀어낸 불교학 개설서인 <인간학 불교>. 저자는 인간학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 전체의 역사에서 전개된 교리와 사상을 모두 끌어낼 필요는 없다고 한다.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불교의 가치를 인식하고 지향하여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훌륭한 불교입문 혹은 개설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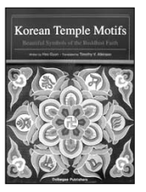


■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 (로버트서먼, 한겨레신문사, 1만2000원)= 서구인 최초로 티베트 불교 스님이 돼 미국에 불교를 대중화 하는데 공헌한 로버트 서먼이 쓴 행복의 길을 제시한 안내서이다. 저자는 한 개인이 삶의 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나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바뀔 수 있으며, 모두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행복의 문을 여는 7가지 열쇠를 7개의 장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지혜, 베풂, 정의, 인내, 창의성, 선, 무한한 삶의 예술 등이 그것이다.



■ **금강경, 깨달음에는 길이 없다** (김광하, 운주사, 9000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은 <금강경>이다. <금강경>은 대부분의 다른 대승경전과 마찬가지로 불멸후 50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운동에 의해 찬술된 경전이다.

무역업을 하며 불교인권복지단체인 작은손길을 운영해온 김광하 대표가 불교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공부하며 틈틈이 공부한 내용을 엮은 책. 김 대표는 금강경을 기존의 불교현실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진 불교도들의 새로운 메시지로 이해했다.



■ **korean temple motifs** (허균, 돌베개출판사, 3만5000원)= 영어권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간직한 한국의 사찰문화를 소개하는 영문판 안내서. 저자 허균이 5년동안 전국 250개 사찰을 답사하며 찍은 사찰 천장을 채우고 있는 조개와 물고기, 토끼와 자라, 닫집속에 감춰진 기운찬 용의 모습, 탑을 바치고 있는 사자의 다양한 입모양등 300여컷의 다채로운 사진들로 채워져 있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21세기 붓다의 메세지** 현지궁현지사, 자재만현스님, 1만5000원
- **욕심을 버리는 방법** 민족사, 철우스님, 8500원
- **섭섭하게 그러나 아주 이별이지는 않게** 도솔, 능행스님, 9500원
- **인연법과 마음공부** 효림, 혜국스님, 3500원
- **영화로 떠나는 불교여행** 이치, 월호스님, 98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일곱 번째 완성자
우리 곁에 오신 미륵
해조음 刊 원통 저 신국판 390쪽

금강경 속에 담긴 사람수명 팔만사천세의 의미

아함경에는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가 되면 미륵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미륵이 오시면 사람 수명이 팔만사천세의 시대가 된다.
이러한 믿기지 못할 내용이 금강경 사상이다.

금강경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1. 후 오백세(말법시대)를 위한 경이다.
2. 이 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이 그를 천대 멸시, 배척 할 것이다.
3. 이 경을 공부해서 얻어질 공덕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머리가 어지러워 미쳐버릴 정도이다.
4. 수명에 대한 상(相)을 가진 사람은 이 경을 이해 못한다.
5. 법신과 세계와 중생은 본래 하나로 합한 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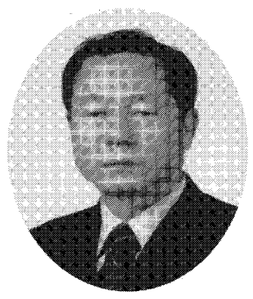
이러한 등등의 내용은 사람 몸이 금강불괴신이 되어 팔만사천세를 사는 진해탈을 암시하고 있다.

※ 전국 유명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보급 총판 운주사 02) 3672-7181 ~ 5 / 010-3699-9120

"운명"을 읽고 나면 대길(大吉) 성공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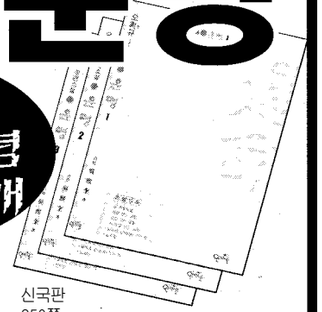
마음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주요수록내용■
궁합이야기
성기가 말을 안들어요
딸이 미쳐가고 있어요
의처증 이야기
바꿔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이야기
성형수술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잉태와 섹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 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체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소설<운명>은
50%의 중간이익금을
독자에게 직접드리기위하여
서점을 통하지 않고
통신판매를 하고 있으며
책값은 책을 받으신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책속 부록■
▶생일로 알수 있는 내 몸의 건강
▶꿈 해몽 비법 ▶띠로 보는 궁합
▶달로 보는 궁합 ▶시(時)로 보는 궁합
▶날짜로 손(살성) 보는 법 ▶삼재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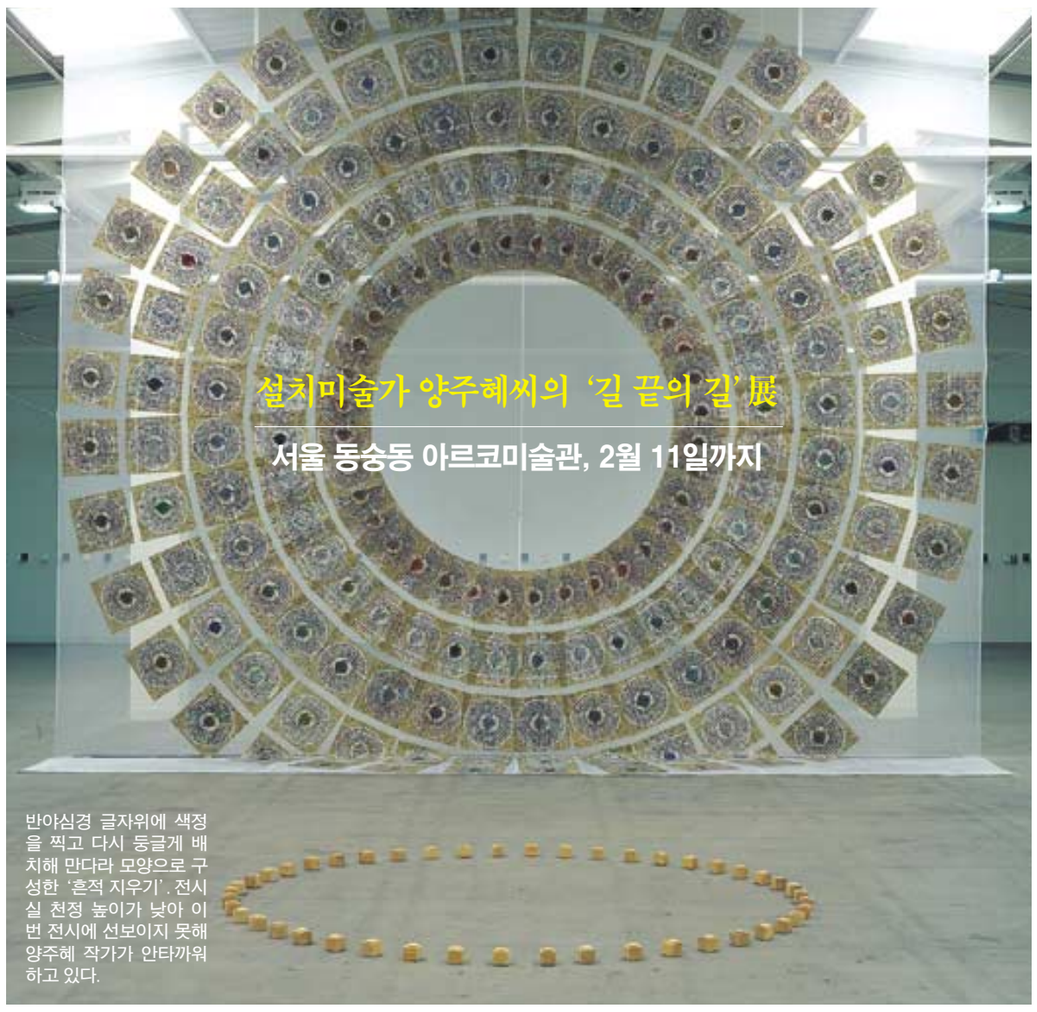
신국판
350쪽
각권정가 10,000원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예금주: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교도소 수감생활 하시는 분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청옥(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

서울 · 마포구 아현3동 618-22
전 화 (02)365-8172
팩 스 (02)365-8173
홈페이지:www.indeenet.co.kr



반야심경 글자위에 색정을 찍고 다시 둥글게 배치해 만다라 모양으로 구성한 '흔적 지우기'. 전시실 천정 높이가 낮아 이번 전시에 선보이지 못해 양주혜 작가가 안타까워하고 있다.

정신을 담은 '형태'의 美

설치미술가 양주혜씨의 '길 끝의 길'展

서울 동숭동 아르코미술관, 2월 11일까지

서울 동숭동 아르코미술관 외벽을 장식한 투명 판 위에는 알록달록 선들이 그어져 있다. 양주혜 작가가 입혀놓은 바코드들이다. '빛이 만들어낸 형태의 재현'이라는 작가의 설명과 함께 모든 존재에 부여된 '가치성'을 생각하며 미술관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휴관일(매주 월요일)이어서 작품들이 다양한 형태로 설치된 전시장을 작가와 함께 일일이 돌아봤다.

작품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양 작가의 말투에서 작품에 대한 진한 애정이 묻어났다.

우리나라 설치미술가 1세대 양주혜 작가의 작품들은 지난 12월 28일부터 '양주혜:길 끝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2월 11월까지 아르코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02)760-4598

소갤러리 전체 법계도 본떠 아카이브로 꾸며

빛 소리 색, 시·공간으로 형상화해 사원 연상

아르코미술관에 들어서면 왼편에 위치한 소갤러리. 소갤러리 전체를 하나의 아카이브(특정 장르에 속하는 정보를 모아 둔 정보 창고)로 꾸몄다. 동시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미술 건축 문화 관련 출판물과 카탈로그 108권을 서가에 채웠다. 투명 아크릴과 바코드 문양으로 구성된 서가는 법계도의 일부를 본떠서 작업했다.

소갤러리에 들어서면 특이한 음악이 들려온다. 사람의 목소리와 플루트의 음율로 채워진 그 음악은 바코드로 표현된 그림의 색에 음을 배치하고 점의 수만큼 박자로 인식해 음악으로 만들어낸 것이다.

빛과 소리, 공간 그리고 물질이 합쳐 하나의 작품이 된 제1전시실에서 양주혜 작가는 평면 속 바코드를 입체적 공간에 세웠다. "누워있는 것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다"는 작가의 말을 화두로 시간과 공간으로 형상화된 바코드들을 감상해보자.

커다란 천들이 늘어져 있고 바닥에는 불이 들어오는 숫자들이 나열돼 있다. 전시실 4면을 둘러싼 하얀 벽에는 작품이 만들어낸 그림자들이 흔적처럼 새겨진다. 이 그림자들 역시 바코드의 모양 그대로다. "이 물질 없는 그림자를 만들어 내기 위해 물질로 조형물을 만든 것"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바닥에 놓인 13개의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색깔은 6초 단위로 변화한다. 이를 기반으로 색상마다 악기를 정했고 색깔이 바뀌는 속도를 박자로 삼아 서로 다른 13개의 악기를 연주했다. 양 작가는 제1전시실을 거대한 사원이라고 표현한다.

미발표 신작을 전시한 제2전시실에서는 기둥 하나에도 주목하자. 기둥마다 바코드 작업이 돼 있다. 초기 색점찍기에서부터 최근 바코드 작업에 이르기까지 전 작업의 경향을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양 작가는 제2전시실을 "색점과 빛, 텍스트와 영상이 어우러진 사원"이라고 설명한다.



색색의 천과 숫자가 만들어 내는 빛, 소리가 어우러진 바코드 작업.



법계도 일부를 본뜬 서가와 108권의 책.



2001년 서울지하철 5호선 봉축열차에 구현한 법계도.

이곳에는 '초기 색점찍기' '흔적 지우기-반야심경' '흔적찾기Ⅱ-치아보형물' 색색깔의 천을 법계도 모양으로 누벼 만든 작품들이 벽면을 메우고 있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2000년 개인전 '空·0·不'에서 선보인 화엄일승법계도. 불교의 윤회사상을 법계도의 모양을 빌어 미로처럼 표현했다.

인터뷰

■ 양주혜씨



"불교는 내게 있어 철학입니다. 반야심경과 법계도를 작업한 까닭도 내 정체성 중 중요하게 각인된 동양인으로서의 정신과 사상에 대한 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자도 아닌데 반야심경·법계도에 몰두하는 이유를 양 작가는 이렇게 대답한다.

양 작가가 화엄일승법계도를 만난 것은 10년 전 부석사를 갔을 때이다. 화엄일승법계도를 응용한 관광상품을 보고 단번에 매혹됐다. 이후 해인사에서 만난 한 스님으로부터 의상대사 법계도의 의미를 들었다.

"법계도를 공간 속에 재현하고 싶었다"는 양 작가는 "법계도를 작업할 때는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돌던 불자의 마음과 같아진다"고 고백한다.

양 작가가 가장 먼저 불교와 만난 작업은 <반야심경>에 색점찍기였다. 1998년 아트선재미술관에 전시됐던 '흔적지우기'는 반야심경 글자 위에 색점을 찍어 만다라처럼 펼쳐놓은 작품이다. 양 작가는 "만다라는 형태로써 정신을 전달하는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한다.

이후 지금까지 법계도에 심취한 작업들을 해왔다. 99년 '여성미술제-팥쥐들의 행진'에서 법계도 책꽂이를 만들어 선보였다. 2000년 개인전 '空·0·不'에서는 타일 위에 시트를 붙여 법계도를 공간으로 불러냈다. 2001년 서울 지하철 5호선 봉축열차에 형광시트로 작업한 법계도는 그 독특함으로 크게 주목받았다.

불교 소재 선택은 동양인 정체성 확인

자연과 합일된 '법계도 공원' 만들 것

같은 해 점자 보도블럭을 활용한 법계도 '디아나의 노래'를 선보이며 시각장애인들에게 법계도를 읽을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양주혜 작가의 행보는 바쁘다. 상반기에는 한국과 프랑스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문화원 측에 건물 외벽 바코드 작업을 제안했다. 가을에는 개인전도 준비 중이다.

양주혜 작가는 "법계도를 따라 물이 흐르고 유리 조형물로 투명한 느낌을 살린 공원과 법계도 형태로 나무를 심어 숲을 거닐며 생각을 할 수 있는 법계도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글=강지연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양주혜 작가는 홍익대학교 조소과에서 수학하고 프랑스 마르세이유-뤼미니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파리 제8대학교 조형예술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80년 서울 공간화랑에서 열었던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8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평면과 설치의 영역을 넘나들면서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양주혜씨는 프랑스문화원, 문화관광부 청사, 공원 등에서 특유의 조형세계를 실험해 왔다. 색점 작가라 불려질 만큼 20여년이 넘게 색점을 그려왔다.

1990년대 중·후반을 거쳐 2000년대로 오면서 기하학적 형태로 배치·기록된 <반야심경>과 화엄일승법계도의 형태에 주목하고 작업에 활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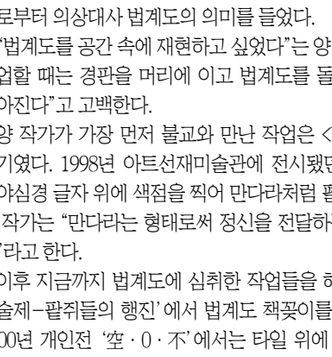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상표등록 : 614981호
의장출원 : 제35872

수제화로 제작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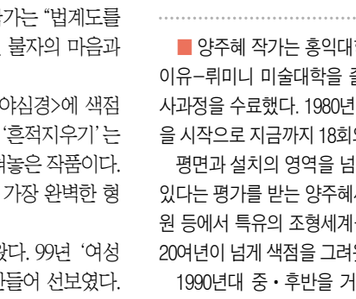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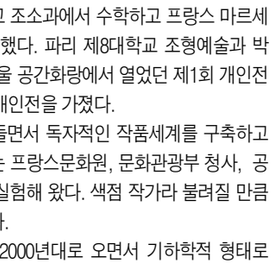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기능성 지압 깔창



• 규격 : 215-290mm
(크기에 따라 조절가능)
• 가격 : 20,000원

최고의 선물

좋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011-9000-5715
(보시용으로 10족이상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제품을 받아보시고 구입결정 송금하세요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이 엄선한 불교의 원류를 찾아서 시리즈4탄

현불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HE HYUNDAE BULKYO TRAVEL TEAM

인도불교성지순례(룸비니,니르바나,마하보디사원)

7박 8일 2월21일-28일 비자신청관계로2월10일 마감합니다
신청금20만원 동참금205만원

제1일 델리도착
제2일 델리, 럭나무, 스라바스티 고속열차이동 스라바스티 | 기원정사(사헤트)
제3일 룸비니 | 마야데비 사원 | 구룡못 | 아쇼카 석주 순례.
제4일 니르바나 사원 | 라마바르 흙무덤 | 다비터 순례후 바이샬리 | 파트나
제5일 나란다 불교대학터 | 죽림정사 | 영축산 | 빔비사라 감옥터 | 보드가야
제6일 마하보디사원 | 니련선하(Niranjana River) | 칠선처 | 금강보좌
제7일 갠지스강의 일출 감상 및 선상법회 및 항하사 순례 | 다메크 수도파 | 아쇼카석주 및 사르나트 박물관 견학 바라나시에서 국내선(비행편)이동
제8일 델리 출발 인천 도착



일본큐슈크루즈여행(구마모토,아소산,벳부,지옥온천)

4박5일 2월16일-20일 동참금55만원

선박료,호텔및식사(선내식),관광입장료,부두세,항만세,
여행보험(1억원)가입,가이드및기사팀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제1일 KTX 15 서울 | 부산 시모노세키 향발
제2일 씨사이드모모치 해변 관광 | 다자이후천만궁 : (수험생어머니들의 합격기원으로 유명한 사원) | 구마모토 이동 | 구마모토성 관광
제3일 사루마와시 원숭이쇼 | 아소활화산 | 쿠사센리 | 유노하나, 해지옥, 지옥옥천순례 | 벳부만 전망대 관광
제4일 벳부 | 하모니랜드 관광 | 우사신궁 관광 | 시모노세키항
제5일 KTX 84 | 서울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현대불교신문 여행사업팀 Tel (02) 2004-8295 Fax (02) 2004-8296 으로 연락 바랍니다



질문을 하며 따라다니는 기자에게 자상하게 답을 해주는 도견 스님.



탤런트 이휘향씨는 도견 스님의 열렬한 팬(?)이다.





틈틈이 <금강경>을 읽는 것도 중요한 일과다.

아침 · 점심 · 저녁 하루 세번의 포행으로 건강과 화두를 함께 챙기는 도견 스님은 일상이 모두 수행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한다(왼쪽).

"마음이 어디 있나 살피며 걷지"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도견 스님 (해인사 동당 수좌)

"가장 귀히 여기는 물건은 무엇인지요" "한 물건이 있지"

"제게 주시겠습니까" "자네에게도 있는데 보이지 않는가?"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목탁소리에 가야산 해인사가 깨어난다.

극락전에도 불이 밝혀졌다. 해인사 동당 수좌 금성도견(錦城道堅) 스님의 오늘이 시작되는 것이다. "극락전에는 나처럼 나이 많은 스님들이 살아요. 우리는 더 이상 대중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자유롭지요." 노스님의 일상을 궁금해 하는 기자에게 일러준 스님의 '자유로운 생활'은 새벽 3시부터 어김없이 이어진다.

뎅 뎅 뎅! 범종 소리가 멀리서 들리면 스님은 방에서 예불을 시작한다. 대중들과 함께 하지 않을 뿐 엄숙하고 경건한 예불로 시작하는 노스님의 하루는 한 치의 허술함도 용납되지 않는 수행자의 시간이다.

새벽 6시. 예불과 정진으로 숙연해진 극락전 뜰에는 아직 어둠이 두터운데 아침 공양을 마친 도견 스님이 포행에 나선다. 바람이 매섭지만 아랑곳없는 스님의 '자유로운 수행'은 휘적휘적 걸음 속에 쉼없이 이어지고 시나브로 날이 밝아온다.

오전 10시 40분, 점심 공양시간이다.

"원래 대중들과 발우공양을 해야 하는데 나이가 많아 노스님네들만 따로 공양을 합니다."

일일이 설명하는 스님의 자상함이 따뜻하다. 스님의 인자함은 후원에서 공양 찬을 준비해온 보살에게도 이어졌다. "보살, 오늘은 사진 찍는 날이야. 보살도 같이 찍어."

카메라를 들이대는 기자를 가리키며 불쑥 내민 스님의 한마디가 천진난만한 동자승을 연상케 한다.

"스님,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습니까?"

"밥 먹으면 그게 제일 좋지. 찬 가운데는 김치가 제일 좋아. 마냥 먹어도 좋아. 그래서 평생 먹지."

괜한 질문이었다. 오직 하나를 향한 수행자에게 중생의 분별심은 관심 밖의 일인데 말이다.

도견 스님의 포행은 오후 1시에 다시 시작됐다. 스님은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포행을 통해 건강을 챙기고, 뭇 중생들과 소통한다. 새벽에는 일주문 쪽으로 나가 한 바퀴를 돌아오고, 점심때는 극락전 뒤쪽으로 나 있는 포행 길을 따라 지족암 희랑대 암자 주위를 거쳐 성철스님 사리탑을 돌아온다.

혹 날씨가 좋을 때는 일타 스님이 주석하던 토굴에도 올라가는데 45분가량 걸린다. 육각형으로 만들어진 토굴은 가야산이 한 눈에 들어오고 일반인의 출입이 없어 정진하기 안성맞춤이다.

"스님, 포행을 하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나 살피지."

스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것을 보기 위해 용을 쓰며 따라나선 길. 스님의 대답에서 서릿발 같은 서늘함이 배어나왔다.

"스님도 화를 내십니까?"

"진심을 내지 않아야 수행이 되는 것이지. 간혹 가르치기 위해 야단을 치지만 진심이 나서 야단치는 것은 아니지."

"스님도 발원하는 것이 있으세요?"

"부처님 제자가 발원이 없을 수가 있나. 해인사에는 '속성 정각하여 중생제도하여지이다'하는 좋은 발원문이 법당에 있어요. 광범위한 발원인데 모든 강원스님들이 새벽예불에 교대로 나가 읽지요."

"포행하면서 뭇마땅한 모습을 본 적은 없습니까?"

"공부만 하고 다니는데, 그런 여유가 있나?"

"찾아오는 수행자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물어오는 것에 대답을 해주지."

스님을 따라 나선지 1시간 여 만에 다시 극락전으로 돌아왔다. 방 입구에는 주장자가 여럿 있다. 방 안에는 스님의 자취가 어린 일상의 물건들이 시선에 들어왔다. 주장자는 노스님들이 방문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몇 개를 비치해 둔 것. 스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물건은 과연 무엇일까?

스님의 작은 눈이 반짝 빛났다.

"물건? 한 물건이 있지. 푸른 것도 검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닌데…"

스님의 목소리엔 단호한 힘이 실렸다. 또, 얼굴엔 싱그러운 기운까지 감돈다.

"스님, 그 물건 저에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가져갈 것이 아니지. 자기에게 있는 것인데. 감춘 것도 아닌데 뭐. 동 서 남 북, 또 그 사이사이 상 하 이렇게 시방세계에 다 있는데 물질을 주장하는 사람들하고는 그런 말이 통하기 어렵지."

스님이 귀한 물건을 내 놓았는데 볼 줄 아는 눈이 없어 보지 못했다.

"공부하는 스님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대답할 게 그것 밖에 없어요."

스님은 다시 자상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다. 스님을 졸졸 따라다닌 하루, 스님을 많이 괴롭혀 드렸다는 생각에 죄송함이 가득하다.

"누구든지 공부를 하기 위해 찾아온다면 만나주고 또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이 스님이 할 일입니다." 죄송함과 감사함조차도 둥글려 부처님 전에 내려놓으라는 듯 스님은 다시 본래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하루 종일 움직인 바 없었던 것처럼.

해인사/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60여년 전국 선방서 수행해온 선사 도견 스님은

도견(道堅) 스님은 1925년 인천시 강화군 화전면 부곡리에서 태어났다. 백련사의 화주보살이었던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 백련사에 다녔던 스님은 뭔가에 이끌리듯 발심하여 1944년 오대산 동관암에서 지월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1945년 오대산 상원사에서 한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고 3년간 교학공부에 몰두했다. 나이 25세에 해인사에 온 후 해인사가 좋아 지금까지 머무르게 됐다는 스님은 순천 송광사, 선산 도리사, 부산 범어사 등 전국 각지 선방에서 수행했다.

스님은 80년대 중반 중앙종회의장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을 지냈다. 해인사 율원에 주석하면서 <금강경> 1천부를 인쇄해 해인사 율원 교재로도 사용하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으며, 해인사의 큰어른으로 눈 푸른 납자를 이끌기도 했다. 현재 스님은 해인사 동당수좌로 극락전에 주석하고 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토르말린,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장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만곡을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허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자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석: 180,000원
- 참선방석 : 145,000원
- 절방석 : 75,000원
- 건강좌욕방석 : 94,000 ~ 98,000원
- 자동차방석 : 58,000/88,000원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땀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있습니다.
- 최고급원단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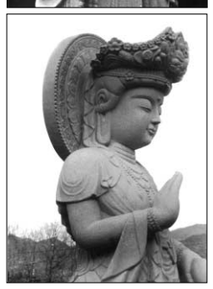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5349 / 휴대폰: 010-7474-5349

내 마음의 부처를 만나자

도견 스님의 가르침

"摩訶大法王(마하대법왕)이여 無短亦無長(무단역무장)이로다 本來非組皂白(본래비조백)이로대 隨處現靑黃(수처현청황)이로다."

이것은 중국 송나라때의 야보(冶父) 스님이 <금강경>을 풀이한 <금강경송>의 서문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마하대법왕이란 부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 가르침의 정수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언어로도 표현 못하고 문자로도 표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으며, 본래 흰 것도 아니고 검은 것도 아닌데, 푸른 것 있는데 가면 푸르게 나타나고, 누런 것 있는데 가면 누렇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전 육조 스님의 법문도 그랬습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한사람도 대답을 못했지요. 그런데 남악회양 선사가 8년 만에 다시 와서 "한 물건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육조 스님이 '한 물건'이라고 했지만 '한 물건'이란 말도 석연치 못한 말이죠. 이 자리는 입만 떼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기 몇 년, 몇 년 하는데 역시 맞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법하신 때를 그저 '한 때(一時)'라고 했는데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기에 '한 때'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몇 년, 몇 년이라는 말은 중생들이 다 자기네 소견을 붙인 것입니다. 또, 형상 있는 것은 모두 업보대로 나온 것이니 형상에 얽매이지 말고 자기 마음을 찾으라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간혹 법을 물으러 오는 수행자 중에 '비결(秘訣)'을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결이라면 스님네들이 일러준 예언 같은 것인데 <정감록>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비결에는 장차 사람의 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말도 있는 모양입니다. 다 죽어도 죽지 않는 도리가 있는데, 비결을 믿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사가 물거품이고 하잘 것 없는 것인데 형상에 집착하는 중생심을 따르니 비결을 믿고 잘못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부처를 찾으면 불교를 다 안 것이니 참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견성성불 하겠다고 출가했으니 땅에 눕지 않은 채 일주일 용맹정진도 하고 3년결사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스물다섯 살에 오대산에서 해인사로 와 3년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효봉 스님도 함께 결사에 들었는데 좀처럼 끄덕이지 않아 '절구통수좌'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해인사 3년결사는 한국전쟁으로 끝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범어사에 갔는데 동산 스님이 입적하시는 통에 또 이루질 못했습니다. 결국 송광사에서 3년결사를 했습니다. 3년간 이불과 베개 없이 하루 3시간만 자고 정진했습니다. 어렵지만 부모형제 버리고 견성성불하겠다고 출가했으니 부처님 법을 알아야겠기에 계속해서 3년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3년결사를 하는 동안 부처님 법문이 저절로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자동적으로 그 뜻이 자꾸 알아집니다.

'여기 한 물건이 있는데 무슨 물건인고?'라는 법문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물건도 맞지 않지만 당처를 말하기 위해 한 물건이라 한 것이니 알고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물건이 있는데 곳에 따라 푸르고 흽니다. 모든 것은 보는 대로 물이 들고 하는 것입니다. 잘 공부해 마음을 깨치면 도인이 되고 중생의 나쁜 경계를 자꾸 따라가면 나쁜 업을 많이 짓게 되고 사람구실을 못하는 그런 도리에 듭니다.

그래서 보통 수행자에게는 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계율 말입니다. 해인사에는 율원이 따로 있는데 조선조 500년 동안 없었던 것을 성철 스님이 율을 잘 알아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계율은 첫째, 절에 들어오면 사미 십계가 있고, 비구 250계가 있고, 비구니 348계가 있습니다.

본래 희지도 검지도 않은데
곳에 따라 희거나 검어지니
모든 것은 보는대로 물이 드는 법



<금강경>에 부처님 가르침이 다 들어 있다는 도견 스님은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를 찾으면 불교를 다 아는것이라고 강조한다.

또 마실(마을)에는 보살계와 오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율문에 나오는 계율입니다. 수행자가 생활에서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재가자에게는 <범망경> 보살계가 있는데 10중대계(10가지 무거운 계)만 지켜도 부처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48경계(48가지 가벼운 계)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날날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지 말라는 계가 있고 술그릇을 들어 한 잔을 권한 행위로 500생을 손 없는 과보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구계에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계가 있지만 환자인 경우 스스로 죽은 고기, 죽이는 소리를 안 들은 고기, 세 사람의 손을 거친 고기는 부득이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범망경> 보살계에는 세직도 많고, 물건을 훔치는 것, 훔치라고 시킨 것 등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설명이 아주 상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집안이나 사회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싸움도 많은 모양입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되는 법은 없는데, 간혹 TV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이 서로를 존중할때 가정이 평화로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해도 무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씩 양보도 해야 해요. 요즘 사람들은 부처님 법문을 해주면 재미없다 하고 우스갯소리 따위를 들려줘야 좋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마음을 이르는 부처님 법문이 참법문인데 말입니다.

이런 부처님 법문이 모두 <금강경>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금강경을 한권으로 엮어 율원과 선원 스님들에게 모두 나눠준 적이 있지요.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세상의 진리가 다 있지요. 선방스님들은 걸망에 이 책 한권만 넣고 다니면 의심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내마음의 부처를 찾으면 불교를 다 안 것이니 열심히 정진하기 바랍니다.

정리=배지선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7>



참 살기 어려운 이 세상

사바세계- 바로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이름입니다. 참아야만 하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토(忍土)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로 살아가기가 힘들고 고단한 곳입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벌어지기 보다는 괴롭거나 슬픈 일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세상에서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반증하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어렵다며 그 실상을 스무 가지나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여 남에게 베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베풀려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을 표시하고 싶을 때 가난한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둘째는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풍요로워지고 명예가 올라가면 마음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없고 가난할 때는 일단 그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만 돈과 명예를 얻고난 뒤에 마음공부를 하려들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셋째는 목숨을 버리고 죽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자는 죽게 마련이지만 가까운 이의 임종의 자리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도 괴로운 일인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넷째는 부처님의 경전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차분히 성현의 말씀에 자신을 쏟아 붓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다섯째는 부처님 계신 세상에 태어나기 어렵다고 합니다.

여섯째는 색욕을 이겨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이 아름다울 때는 욕정이 정화되었을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곱째는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지요. 그런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덟째는 모욕을 당하고서 화내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잡보장경>에는 나보다 못한 이에게 참는 것이 가장 훌륭한 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홉째는 세력 있는 사람이 세력을 쓰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남보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열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무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급한 일이 벌어졌으면 어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만 감정이 그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속만 끓이게 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열한번째는 널리 배우거나 진리를 탐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열두번째는 아만심을 없애기 어렵다고 합니다. '나'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라는 것은 인연이 화합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나는 이렇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며 남을 인정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열셋째는 자기보다 배우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열넷째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을 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열다섯째는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비는 분명하게 가려져야 하지만 그러기까지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열여섯째는 훌륭한 스승이나 좋은 벗을 만나기 어렵고, 열일곱째는 도를 배워서 깨닫기가 어렵고, 열여덟째는 방편을 풀어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어렵고, 열아홉번째는 어떤 일과 마주쳤을 때 마음이 동요되지 않기 어렵다고 합니다.

열스무번째는 방편을 잘 알아서 쓰는 것 또한 어렵다고 합니다. 방편이란 목적을 향해 '다가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서두르지도 게으르지도 않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사십이장경> 제12장)

그야말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온통 어려움과 고통의 연속이요, 이 세상은 고해인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이 기적 같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조언자를 구하고 궁리하고 고민하고 부딪치고 좌절하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진실한 나의 모습인가를 애써 찾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바다, 참아야 하는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수행도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스무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은 참 살맛나는 곳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바세계는 온통 어려움과 고통으로 가득합니다만
뒤집어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나의 수행도량 아닐까요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世界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
초대형범종의 밀랍주조공법 개발 성공
- 에밀레종, 상원사종을 초월하는 초정밀 범종 제작 실현 -

聖鐘社가 지난 2004년 중소기업청이 전개하는 기술혁신
개발사업을 통해 본사 전매특허인 蜜蠟鑄造工法으로 10,000관 이상의 초대형 범종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법당종에서 입증된 성종사 작품종의 섬세한 문양과 부드러운 소리를 이제 大鐘에서도 만나보실수 있습니다.
聖鐘社는 최고의 범종 제작을 위해 항상 연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종사가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공법 보유 업체
지난 9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공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원광식대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밀랍주조공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종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향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 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함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도입함으로써 갈색, 구리색, 녹청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된 강릉시민의 종
높이 3.15m, 직경 1.85m 중량 3000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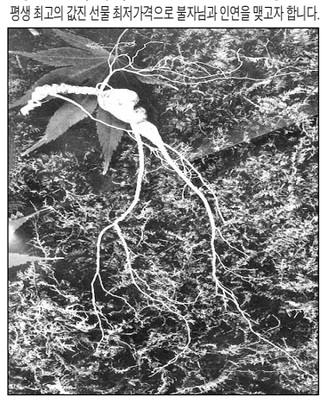


정교하고 아름다운 성종사 범종의 하대 문양 !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oungjou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대표 : 범산 원 광 식(인간문화재 112호 • 대한민국 명장)

元·氣·回·復 송년 및 새해맞이 특별할인가 대 판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향과 온기 몸과 마음 다스려요

차명상과 차훈명상법

차와 명상. 최근 3~4년 사이에 우리사회의 '웰빙' 코드로 자리 잡은 소재다. 최근 차와 명상을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내는 '차 명상법'이 잇달아 소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문을 연 초의차명상원(원장 지장)과 차훈명상문화원(원장 이경희)은 각각 '차명상'과 '차훈명상' 보급에 나서고 있다. 두 명상법의 기본원리와 수련법을 들어본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초의차명상원에서 회원들이 차명상을 배우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인 종로에 초의차명상원을 개원한 지장스님은 초의차명상법을 정립해 최근 본격적인 전수에 나섰다. 차명상은 사념처(思念處)와 팔정도(八正道) 수행을 기본으로,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자각력과 집중력, 통찰력을 계발하는 수행법이다. 이런 수행과정을 통해 자신을 올바로 알고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이 차명상의 지향점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차'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를 앞에 두면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졸음을 물리쳐 정신을 맑게 하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게 하는 약리효과가 명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차를 우려 마시는 과정이 일정하고 체계적이라는 점에서도 차가 명상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차명상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치는 않다. 찻잔에 따뜻한 차 한 잔만 담으면 된다. 머그컵이나 종이컵이라도 상관없고, 차 역시 티백이라도 관계없다. 찻잔을 손으로 감싸 쥐고 찻잔의 질감과 온도, 차향을 느껴본다. 차를 마시는 순간에도 차가 입 안에서 움직이는 느낌, 목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차명상법

사념처 · 팔정도 수행이 기본
찻잔 온기, 입안 茶 움직임 관찰
음다 통해 집중 · 통찰력 계발

"명상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등의 오감(五感)을 통해 나를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의식하면서 느끼는 과정, 즉 사띠(sati, 알아차림)를 통해 자신을 깊이 꿰뚫어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제거해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의 존재하는 모습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의 느낌에만 온전히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보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나를 의식하는 상태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나를 지켜볼 수 있는 통찰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

"차명상을 하다보면 차를 마실 때뿐만 아니라 걷고 숨 쉬는 일상 자체가 명상의 대상이 됩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잊고 지내기 쉬운데, 매순간 자신의 움직임을 의식하다보면 집중력이 강화되고 어느 순간 통찰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현재 초의차명상원에서는 50여 명의 회원이 차명상을 배우고 있으며, 이들이 전국 각지에 지부를 오픈할 예정이다. 그 첫 결실로 오는 3월에는 독일에 차명상원이 문을 연다.(02)733-7209

지장 스님의 차명상이 차를 마시는 행위를 통해 몸과 마음의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라면, 차훈명상문화원(원장 이경희)의 차훈명상은 차의 약리효과로 명상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중국 종남산에서 차훈명상수련을 받고 온 이경희 원장은 광주에 차훈명상문화원을 열었다. 이 원장은 "차훈명상법은 다선일여(茶禪一如)의 다도정신과 양생수련을 융합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함께 가꾸는 건강법"이며 "번잡한 준비과정이 없으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질에 열을 가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의 '훈(熏)'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차훈은 뜨거운 찻물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얼굴과 눈, 귀에 쐬어주고 들여 마시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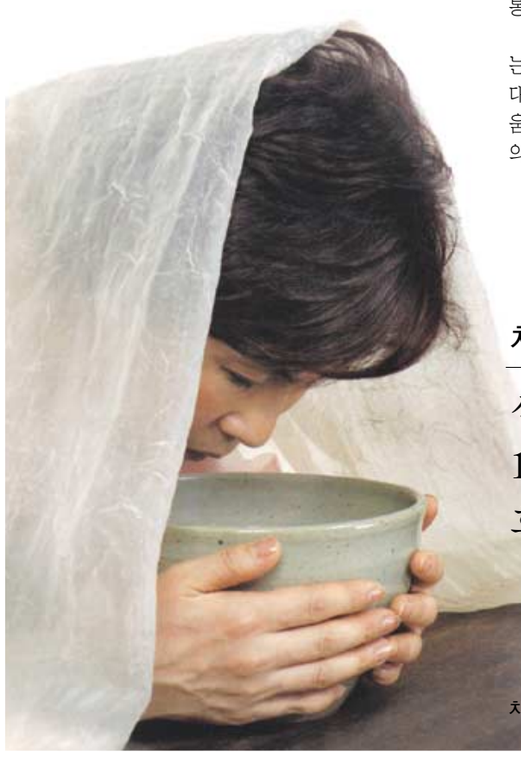
차훈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고 안정된 방에서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한 후 도자기로 만든 차훈완에 찻잎을 넣고 100℃의 물을 붓는다. 이때 찻잎은 철관음 등의 반발효차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황차 · 홍차 등이 적합하다.

녹차의 경우 100℃의 물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찻잎이 펴지는 것을 관찰하다 열기가 나기 시작하면 타월을 어깨에 두르고 두 손바닥으로 차훈완을 감싸 쥔다. 이마를 차훈완 위에 놓고 차향을 코로 깊게 들이마시는데, 완전히 들이마신 후 그 상태를 1~3초간 유지한다.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팔목과 팔꿈치 등으로 전이되고, 들이마신 차향이 온몸으로 전해지는 과정을 관찰한다. 손바닥을 탁자 위에 놓고 몸을 바르게 한 후 심호흡을 3회한다. 이 과정을 '차훈득기'라고 하는데 차훈득기를 마친 후 도인호흡, 정좌명상 등의 수련을 곁들인다.

이 원장은 "차훈명상을 지속적으로 하면 호흡기능 강화, 기혈순환 촉진, 소화기능 활성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차훈명상문화원은 현재 차훈명상 지도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062)375-2773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차훈완에 찻잎을 넣고 100℃ 물에 우려 그 열기를 쐬는 차훈명상. 사진제공=차훈명상문화원

차훈명상법

선과 다도정신 융합한 건강법
100℃ 차훈 마신 뒤 3초간 유지
호흡 · 기혈 기능 강화 등 효과

짱유화 교수의 보이차 이야기



1. 연재를 시작하며

병술(丙戌)년 새해, 우리는 을유년의 첫날이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희망과 행복을 품고 한 해를 시작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마다 '새해의 소망'란에 빠지지 않는 항목이 바로 '건강'이라고 한다. 건강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영원한 숙제다.

지난해 건강에 관해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아프게 했던 일이라면 단연코 즐기세포 논란이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건강과도 직결되었던 문제이기에 그 공허함이 한층 컸다. 한편 젊은 층 사이에 불었던 '웰빙(Well-being)' 열풍은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 정도로 무섭게 확산됐다. 그 열풍은 새해에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

폴리페놀은 피를 맑게 하고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탁월한 성분이다. 이러한 폴리페놀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 바로 차다. 그리고 차 중에서도 보이차 속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21세기 중국에서 생산된 차 중 가장 돋보인 차를 꼽는다면 단연 보이차다. 보이차는 중국차의 또 다른 대명사로 굳어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 중국 내에 보이차 전문판매상점은 무려 2만여 곳이 있다고 한다. 작년 한해 출간된 보이차 관련도서는 18권이며, 보이차만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도 5개나 되는 것을 보면 중국인들의 보이차에 대한 관심도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차의 장래가 그리 밝지 않아 보이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보이차에 대

중국차의 대명사 · 폴리페놀 성분 다량 함유
세계적 차임에도 제작 방법 논란 관심 싸늘
연재 통해 보이차에 대한 지식 향상 되길

웰빙의 핵심은 물질적 가치에 매달리지 않고 정신과 신체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삶을 추구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웰빙 문화 속에 그 동안 영양보충제의 대표적 상품이라 여겨왔던 비타민, 무기질제제 등 식이보충제들이 서서히 지고, '웰빙 건강 기능성식품'의 시대가 도래했다.

웰빙 건강 기능성식품의 대표주자 중 으뜸은 바로 차(茶)다. 차는 기호음료로서의 가치를 뛰어넘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건강식품에 차가 포함되었던 것도 이러한 반증이다.

건강 기능성식품의 공통점을 보면, 강력한 항산화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산화방지제로 그동안 가장 각광을 받았던 것은 비타민이었다. 그러나 최근 산화방지제 연구의 관심사는 비타민에서 폴리페놀이란 물질로 옮겨가고 있다.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발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폴리페놀 추출물에는 산화에 의한 병폐를 막는 식물성 항산화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비타민류와 비교해 볼 때 적게는 40배, 많게는 100배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다. 한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사실은 중국 보이차를 보는 세계인의 시선은 보이차의 제작 방법에 대한 논란과 관계없이 이미 싸늘해져 버렸다는 것이다.

흔히 보이차를 가리켜 '수수께끼의 차'라고 한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도통 모르는 것이 또한 보이차다. 다시 말해 입문은 쉽지만 졸업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것이 보이차 공부다.

학문이란 언제나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오류를 줄이고 수정해 가는 과정이다. 이에 아무리 세계적인 학자의 연구 성과라도 완전무결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히 필자의 보이차 연구도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차에 관한 연재의 변을 단 것은 지식추구라는 명제 아래 보이차의 베일을 벗김으로써, 독자들이 보이차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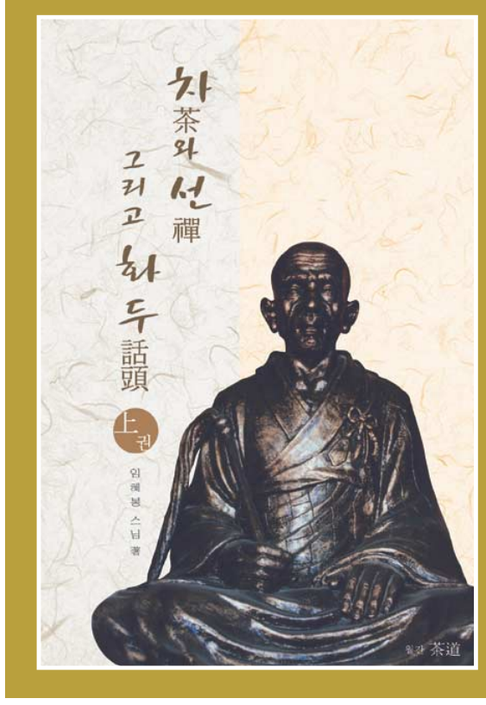
짱유화(姜育發) 교수는?

1955년 대만 生. 2005년 중국정부로부터 '보이차 세계 10대 권위자'로 선정되기도 한 보이차 전문가이다. 현재 한서대 차학과를 비롯해 중국 남경대, 절강수인대, 운남성 국립보이차연구원 등에서 연구 및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예약 주문 신청 문의
전화 : 02)722-7777 / 팩스 : 02)722-7845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37번지
월간 다도 편집부
※ 정기구독자들에게는 할인해 드립니다.

茶와 禪의 깊은 인연을 극명하게 풀이한
차茶와 선禪 그리고 화두話頭

발간예정



곧 발간됩니다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삼귀의 ·정근
·찬양합니다 ·발원 및 축원
·반야심경 ·사홍서원
·입정 ·산회가
·청법가 ·기타찬불가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8. 예불문 15. 사성제
2. 부처란? 9. 삼보 16. 사섭법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10. 삼귀의 17. 십이인연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11. 삼법인 18. 육바라밀
5. 사찰경내 예법 12. 삼업 19. 팔정도
6. 합장과 반배 13. 삼학 20. 보왕삼매론
7. 고두례 14. 신도오계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1년 건강 미리 챙기세요

2006년 건강 캘린더

"올해는 꼭 운동할거야!" "이번엔 진짜 금연한다!" 새해를 맞아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다짐들이 넘쳐난다. 하지만 막연한 다짐 대신 구체적인 건강계획을 세워보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한해를 계획하고 준비하기에 분주한 1월, 올 한해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달력도 챙겨보자. 달력 한 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건강정보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월 갑자기 추운데 나가면 위험

기상청에 따르면 1~2월 중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기온의 변화가 크다고 한다.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협심증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채소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또한 환기를 자주 시키고 빨래를 널어두거나 가습기를 켜 실내 습도를 조절한다. 가습기는 물통을 자주 청소하고 물을 매일 갈아준다. 목욕이나 샤워를 할 경우 너무 뜨거운 물을 피하고 20~30여분 이내로 짧게 한 후 보습제 등을 발라 피부 수분을 유지한다.

2월 우울증 극복 위해 운동을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일조량이 적은 2월에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 일조량이 줄어들면 체내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 무력해지고, 활동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바깥으로 나가 햇볕을 쪼이고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활동을 즐기며 기분전환을 하는 것이 좋다.

아이들의 경우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이 시기에 축농증이나 비염 등을 치료하고, 취학 전 아동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미리 해 두도록 한다.

3월 개학 스트레스 주의

기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3월에는 생체리듬이 급격히 바뀌므로 쉽게 피로를 느끼고 감기에 걸릴 확률도 높다.

특히 개학을 하거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의 경우 복통 · 두통을 호소하고 헛기침을 자주하는 '개학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기도 한다. 또 코를 킁킁대고 훌쩍거리거나 눈을 깜빡거리고 치아를 딱딱 부딪치는 '틱 증후군' 증상을 보이기도 하므로 가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춘곤증 예방을 위해서는 봄나물을 많이 섭취한다. 또 5~6월에 결혼을 준비하는 여성들은 이 시기에 풍진 예방 접종을 한다.

4월 꽃가루 · 황사 무조건 피해야

날씨가 포근해지고 꽃들이 피어나는 4월. 사찰순례나 등산 등의 야외활동이 많은 이때는 꽃가루와 황사에 유의해야 한다. 평소 비염 천식 눈 질환 등의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한다. 외출 후 손을 씻고 손으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한다.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사람은 항히스타민제재를 복용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올 4월 기온은 평년보다 낮고 일시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있으므로 감기에 주의한다.

5월 소아 전염병 예방접종 필수

날이 따뜻해지고 대기가 건조해져 황사현상이 증가한다. 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증상이 심해지므로 실내 습도 유지에 신경을 쓴다. 또한 야외 활동이 늘어나므로 벌이나 뱀에 물리는 사고도 많아진다. 야외에 나갈 때는 응급 처치법을 익혀두고 간단한 구급약을 준비해 간다.

뇌염모기가 활동하는 6~8월에 대비해 1~15세의 아동은 5월에 미리 예방접종을 한다. 홍역 수두 볼거리 등의 소아 전염병 예방접종도 챙긴다.

6월 에어컨 필터 주1회 청소

기온이 높아지고 비가 자주 오는 고온 다습한 시기다. 식중독, 곰팡이 질환, 관절염에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꼭 익혀서 먹고 조리한 음식은 냉장 보관한다. 특히 에어컨을 많이 쐴 경우 무릎 관절이 굳어 관절염 증상이 심해진다. 아픈 관절 부위는 따뜻한 물에 담그거나 마사지를 해준다.

에어컨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필터를 1주일에 1회 정도 청소한다. 에어필터에 붙은 먼지와 오물을 진공청소기로 흡입하거나, 오염이 심할 땐 40도 이하의 물 또는 중성세제로 씻어준다.

7월 당뇨환자 어패류 생식 금지

이질이나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유행하고, 비브리오 식중독과 같은 배탈설사를 일으키는 질환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다. 음식물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주방에서는 식기를 자주 소독하고 물을 끓여 마시는 등 청결에 힘써야 한다. 특히 간장 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환자는 어패류 생식은 절대 금한다.

이 시기 해외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이라면 풍토병 예방은 필수다.

8월 건강의 적 자외선 막자

개학을 앞둔 8월은 각막이 충혈되고 눈 속 이물감과 고통이 따르는 '각결막염(일명 아폴로눈병)'이 유행하는 때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국 각지의 학교에서 눈병이 유행해 휴교를 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눈병 예방을 위해서는 항상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지수가 높으므로 야외활동 시 모자나 양산을 쓰고 자외선차단제를 바른다. 날씨가 덥다고 차가운 물을 너무 많이 마시거나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다.

9월 풀밭에 눕지 않기

가을철 3개 열성질환인 유행성 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쯔가무시병이 기승을 부린다. 야외활동 시 풀밭에 눕지 않고 상처가 난 부위가 풀에 닿거나 베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할 때는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지 않도록 주의한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을 핀셋 등으로 제거하고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독사에 물렸을 경우에는 물린 곳을 심장보다 낮게 하고 상처 10cm 위쪽을 넓은 끈이나 천으로 묶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가야한다.

10월 검진으로 건강도 '추수'

결실의 계절 가을, 건강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계획을 짜 본다. 값비싼 '패키지 검진' 대신 전문의와 함께 개인의 생활습관, 위험 인자 등에 대해 충분히 상의한 후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만 받는 '맞춤형 검진'이 각 병원별로 많이 운영되고 있다.

10월 초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생활리듬이 깨지기 쉽다. 과식과 장기운전에 따른 피로누적을 조심한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감기에 걸리기 쉽다. 특히 소아의 경우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고열이 지속되면 반드시 진료를 받는다. 독감예방도 해 둔다.

11월 뇌졸중 · 심근경색 '위험'

날씨가 쌀쌀해짐에 따라 활동량과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몸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작스런 동작을 취하면 어깨 허리 무릎 등의 인대를 다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한다. 기온이 낮아 혈관이 수축되므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경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난방을 시작하면 실내가 건조해져 안구건조증이 나타나므로 가습기를 틀어준다.

12월 숙취 · 수면부족 · 과식 피해야

송년회 등의 모임 많아지는 연말에는 숙취와 수면부족, 피로 등으로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술자리에 참석할 때는 빈속에 마시는 것을 금하고 과음 · 과식 · 흡연을 자제한다.

노인들의 경우 낙상에 의한 골절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춥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지 말고 장갑을 꼭 착용한다. 심혈관계 환자들은 갑작스런 추위를 주의해야 하며 중이염, 빌딩증후군, 안면신경 마비 등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여수령 기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1. 연재를 시작하며

요리가 좋아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과 대학원에서 음식을 공부하고, 사찰에 머물며 요리를 배운지도 벌써 10여년. 서울에서 제2의 직장생활을 시작한 뒤, 제가 배운 음식에 관한 지식을 건강이 안 좋은 분들에게 전하고 싶어 시작한 인터넷 사찰음식 카페는 절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겸허하고, 더욱 진실 되고, 음식 한 가지 한 가지에도 더 많은 정성을 쏟게 만들고…. 항상 저를 지켜봐주는 회원님들의 격려와 감사의 글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찰음식은 곧 대중음식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풀뿌리, 나무뿌리, 들과 산에서 나는 식용 풀들을 뜯어 나물로 만들어 먹던 바로 그 요리법입니다. 사찰음식은 결코 낯설고 특별한 음식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우리가 먹어온 음식의 일부입니다. 현대인들은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과 화학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인공감미료 대신 꿀이나 과일청, 화학식초 대신 과일을 자연 숙성시킨 천연식초, 육수보다는 버섯이나 다시마로 만든 채수로 만드는 사찰음식을 먹는다면 온화한 성격과 맑은 육체를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재료를 고르면서 만든 이의 고마움을, 재료를 다듬으면서 청정한 마음을, 요리를 하면서 음식을 먹을 이들을 떠올린다면 자연스레 음식 만드는 일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집에서도 자연재료를 이용해 손쉽게 사찰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코너로 꾸미고자 합니다.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법부터, 제철 식재료로 소담하고 건강한 식탁을 차릴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할 것입니다. 또 하나, 사찰음식 속에 숨어 있는 약리 효과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공유할 수 있는 코너가 된다면, 제게 사찰음식의 맛을 숨기지 않고 선뵈어 주었던 작은 암자의 스님들도 빙그레 웃음을 보이실 것입니다.



박상혜(법명 공덕심)씨는 아산재단 보령병원에서 10여 년 간 근무했다. 이후 요리에 관심을 갖게 돼 대학원에서 궁중요리를 전공했고, 사찰에 머물며 사찰음식을 배우기도 했다. 지난해 <5000원으로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찰음식>(영진닷컴)을 펴냈으며, 인터넷 카페 '사찰음식을 사랑한 사람들(cafe.daum.net/templecooking)'을 개설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찰음식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GS홈쇼핑에서 요리연구가로 활동하며 극동정보대학에 출강중이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 鳳林寺
● 주 지 : 덕천(백광선)
● 주 소 : 전남 여수시 오림동 291-2 12/5

위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3일

대한불교 일산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주지직인 무효공고

2006년 1월 3일 이전의 봉림사 직인 및 주지인감 사용은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탈종공고

● 사찰명 : 청룡사
● 주 지 : 혜안 (조순자)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산 149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월 11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부처님 호흡법

참선기초 기본수련

"자동 단전 복식 호흡법"의 비밀이란 ?

◆자세법 : 가부좌, 반가부좌, 평좌, 무릎 꿇기, 고두례 변형자세 쪼그리고 앉은 자세, 장궤자세, 일어선 자세, 행선, 와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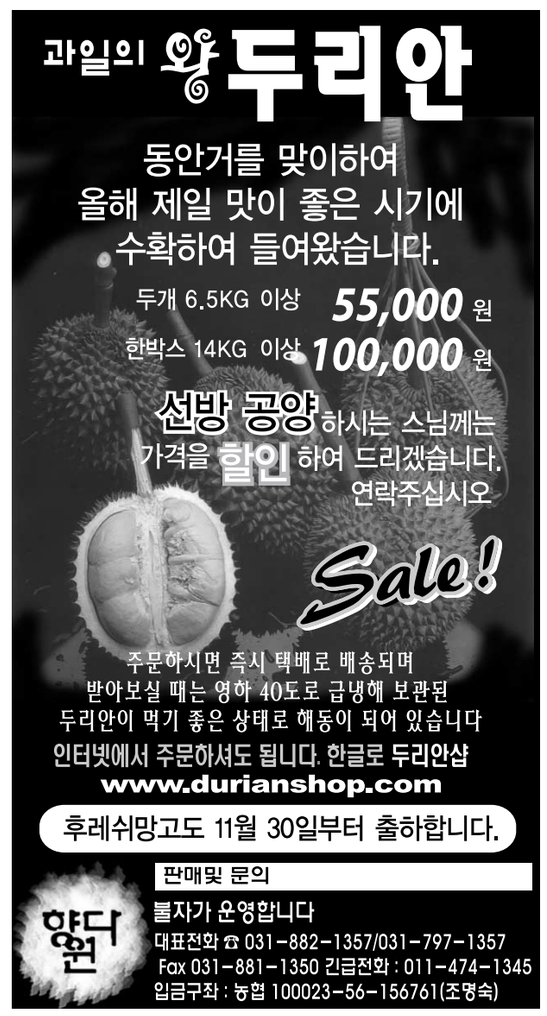
◆호흡법
- 들숨 : 배꼽아래 3치 단전이 아닌 치골부분으로 짧고 간명하게 숨이 저절로 내려가며, 가슴 챠크라와 단전혈이 열려서 부처님과 인연된 가장 밝은 기운이 모이며, 감정통제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끊임없이 나와 마음이 저절로 조율되어 일체의 근심걱정, 성냄,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 날숨 : 가늘고 길고 부드럽고 고요하게 저절로 쉬어지며 엔돌핀, 다이놀핀, 토파민 등의 쾌적 · 쾌락 호르몬이 나와 에너지로 전환될 때 뇌파에서 α파 파장이 나오며 수행 삼매를 체험하게 된다.

「숨을 氣차게 잘 쉬는 법 · 절을 氣차게 잘 하는 법 참고 바람 (청견스님 지음)」
- 몸과 숨의 감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음을 보는 알아차림의 또렷한 경지를 초보자도 쉽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이며 빠른 수행법으로 고요하며 맑고 밝은 지혜를 체득한다.
- 참선, 위빠사나, 절, 염불, 독경, 요가 (컴퓨터 · 수험생) 수행 후,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뜨겁고 하품이 나오면 호흡수행을 잘못한 것으로 수행을 중단해야 한다.
- 코골며 입 벌리고 잠잘 때 가슴이 막히고 몸이 차가워지며 단전복식호흡이 되지 않아 뇌의 산소부족으로 언제나 피곤하고 정신이 맑지 않아 수행의 가장 큰 적이 되며, 만병의 근본원인이 되고 불행의 길이다.
- 가장 완벽한 예방의학이며 치유가 확실한 대체의학으로 「상기병, 홧병,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복부)비만, 손 · 발 · 배 · 허리 냉증, 무릎병, 디스크, 안구건조, 피부거칢, 아토피, 천식, 비염, 불면증, 우울증」 등을 수행을 통해 극복한 수 많은 체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법왕정사 홈페이지와 다음카페 참고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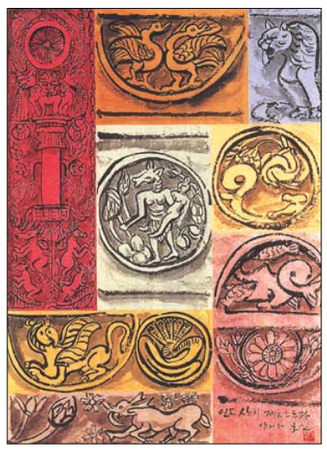
◆수련일시
- 서울 군자법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부산 금정법당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4시,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 신규 수강생은 청강수강 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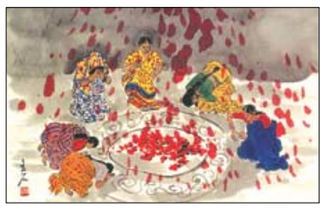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청 견 스 님 011-9088-9449
http://cafe.daum.net/sorisan, www.dkt.or.kr



수묵화로 만나는 인도



인도 산치 제2스투파의 부조.



붉은 꽃송이를 강조한 '꽃송이들의 기도'.

이호신 화백 학고재 2006 첫 초대展(24일까지)

순례의 자취 50여 작품, 현란하면서도 담백하게

사색의 땅 인도, 석가모니부처님과 간디의 나라 인도. 그 인도의 수많은 유물 유적과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들의 삶이 녹아든 문화를 촉촉한 수묵화로 만나보자.

한국화가 이호신 화백이 학고재 2006년 첫 초대전을 장식한다. 인도의 문화와 불교 유적, 인물과 마을을 담은 이 화백의 그림은 1월 11~24일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50일간 인도 순례의 자취를 화폭에 담은 작품 50여점이 선보인다.

1층 전시실에는 인도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담아냈고, 2층 전시실에는 쿠시나가르의 열반당, 아잔타 석굴 전경 등 다양한 불교유적들을 화폭에 옮겼다. 살아 숨쉬는 듯 표정과 동작이 생생한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등 인도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초상화와 정담어린 마을 풍경은 지하 전시실에서 만날 수 있다.

불교의 만다라와 윤회의 세계관. 이호신 화백이 그리고자 한 인도의 모습이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들은 이호신 화백이 인도 성지순례에서 만난 유적, 사람, 그리고 떠나간 영혼들과 조우한 결과물들이다.

이호신 화백은 "여인들의 원색 사리와 빨강파랑으로 채색된 소뿔에 이르기까지 인도를 뒤덮고 있는 현란한 색채들은 움직이는 만다라와 같다"며 "그들의 생생한 삶 속에서 나는 간디를 만나고 테레사 수녀를 만났다"고 말한다.

한편 1월 11일 오후 5시 전시회 개막과 함께 최근 발간한 <나는 인도를 보았는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2)739-4937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노래방서 찬불가 신나게 불러보자

풍경소리 찬불동요 금영 반주곡에 100곡 수록, 법회의식곡 6곡도

올해는 노래방에서 불교의 아름다운 영상이 함께 어우러진 찬불가를 부르는 재미에 푹 빠져보자.

좋은벗 풍경소리(회장 성행)가 만든 찬불동요들이 (주)금영에 의해 노래방 반주곡으로 탄생했다. 풍경소리는 음원을 제공하고, 영상을 비롯한 음원제작과 프로그램 개발은 (주)금영에서 작업했다. 특히 영상작업은 (주)금영이 자체적으로 노래방용에 걸맞는 영상을 구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풍경소리의 정유탁씨는 "찬불가의 노래방 보급을 위해 3~4년 전부터 노력해 왔는데 잘 안됐다"며 "이윤추구에 목적을 두는 기업들이 찬불가 찬송가 등의 반입을 기피했었는데 (주)금영이 발심을 해서 이런 불사가 가능했다"고 말



좋은벗 풍경소리가 금영노래방 기기에 찬불가 반주곡 100곡을 수록했다. 사진은 노래방에서 찬불가를 부르는 불자들.

했다. 풍경소리의 찬불가 노래방 보급 사업과 (주)금영이 추구하는 '가족이 함께 가는 노래방'의 방향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번 작업으로 (주)금영의 노래방 반주곡에는 가릉빈가 쌩쌩꽁꽁 아기백조 참선 졸졸졸 등 찬불동요 84곡과 기원 육환장 축제 등불보살 등 찬불가요 16곡 등 총 100곡이 수록됐다. 찬불동요 · 가요 외에 삼귀의 찬양합니다 등의 법회의식곡 6곡도 추가됐다.

풍경소리 총재 지현 스님은 "금영의 도움으로 찬불가를 노래방에서도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불교포교에 있어 큰 일"이라며 "앞으로도 풍경소리가 계속 울릴 수 있도록 불자들께서 바람이 돼 달라"고 밝혔다.

한편 풍경소리는 지난 5월부터 각종 포털사이트와 음악듣기 사이트 등을 통해 찬불동요를 무료 다운받는 시스템과 찬불가 핸드폰 벨소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강지연 기자

드라마 속 신돈 vs 역사 속 신돈

개혁가인가 요승인가



고려 말 혼란기를 틈타 왕권에 도전하고 왕의 판단력을 흐린 요승으로 평가돼 왔던 '신돈'. 최근 MBC-TV의 특별기획드라마 '신돈'을 통해 개혁가로 대중적인 이미지 변신을 하고 있다.

드라마 속 신돈은 현실적인 고통에 빠진 백성들을 목탁이나 불경이 아닌 바른 정치를 통해 구원하고자 하는 개혁가의 모습이 강하다.

드라마 신돈의 책임 프로듀서인 MBC 드라마국 정운현 부국장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신돈 캐릭터는 개혁가의 이미지와 정치적인 야망을 강조했다"며 "과거 일반에 회자됐던 요승 · 괴승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던 고려에서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치사상가의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한다"고 신돈 캐릭터를 정의했다.

또한 정 부국장은 드라마의 초반 신돈의 무술장면 등으로 초인적인 능력을 과시했던 것은 극에 재미를 불어넣고 신돈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드라마적인 장치로써 활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드라마 속 신돈과 달리 역사 속 신돈은 요승의 이미지가 더 강하다. <고려사>나 제문집류의 기록을 찾아보면 '신돈은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간통을 일삼았기 때문에 당대에도 용승(庸僧) 요승(妖僧) 신승(神僧), 늙은 여우의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식의 비난 일색이다.

과연 그는 요승인가. 이에 대해 황인규 교수(동국대 역사교육과)는 신돈이 환속하기 전 화엄종의 고승으로서 현세를 구원하려 했으며 민중들로부터 성인이나 '문수보살의 후신'이라고 칭송됐음을 상기시킨다.

천출이었던 신돈은 고려시대 권문세족 중심의 불교계에서 배척당하는 미미한 존재였다. 그러한 그가 개혁을 주도하면서 기득권 세력과 대치하다가 모반죄로 처형당한 이후 다시 득세한 기득권 세력에 의해 역사적으로 매도당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바른 정치로 중생 구원하는 개혁가로 재조명

환속하기 전 '문수보살의 후신' 칭송되기도

문화비평가 김헌식씨는 "최근 역사학계에서는 요승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걷어내고 개혁가로서 재조명되고 있다"며 "드라마 신돈에서는 불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신돈 캐릭터 창출은 조금 부족하지만 최근 학계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교적 관점에서 폄하됐던 신돈에 대한 나쁜 인식을 걷어내는 긍정적인 효과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강지연 기자

부처님오신날 · 성탄절

TV 프로그램 비교

성탄절은 국민 명절?

"불교계 적극적 언론포교 필요"

"기획성 성탄 특집 프로그램은 즐어든 반면 기존 프로그램들은 성탄특집을 마련해 용서와 화합 정신을 이야기했다."

보리방송모니터회(회장 김재일)는 2005년 성탄절과 부처님오신날 TV 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한 결과 성탄절 프로그램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다.

프로그램 비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탄절은 개신교의 예수탄생기념일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즐기는 명절이 된 것 같다. 기존 프로그램들이 일제히 성탄특집을 진행한 결과 사랑과 나눔이라는 기독교정신은 산타크로스의 이미지와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특집 프로그램의 숫자에 있어서는 개신교 관련은 KBS EBS에서 제작한 3편뿐인데 반해 불교는 KBS MBC SBS 등에서 16편의 특집이 제작됐다.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이제는 불교를 이렇게 알려달라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제작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언론포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10대 선사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상세한 법문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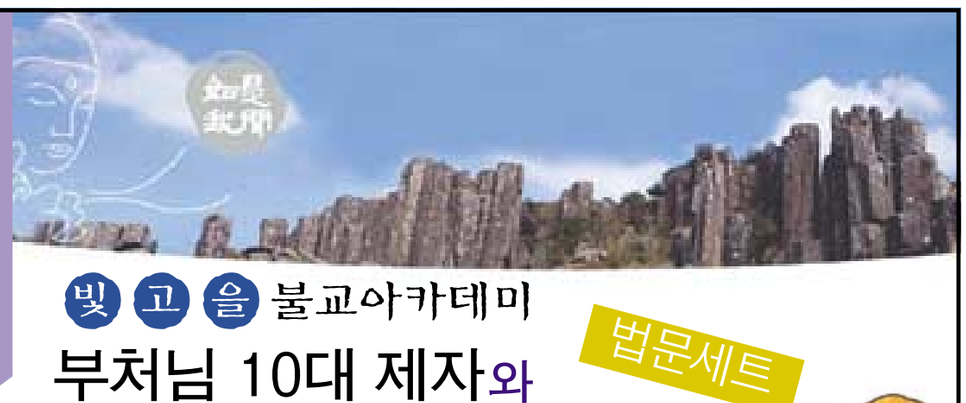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법보시
(연말연시 도반선물로 최상의 선택)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
법문세트

이 법문 세트는 광주 동구불교협의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부처님 10대 제자와 행복한 삶에 대한 이야기'의
열분의 법주(미산 정무 현봉 혜거 자광 지운 재연 호진 도법 철우)
스님들이 2005년 10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동구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30,000원 (무료배송)
낱개 3천원



400세트 한정판매

■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 농 협 053-01-265785 현대불교신문사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제 560 호 현대불교
서기 2006년 1월 11일(음력 12월 12일) 수요일

마음을 좀 툭 틔어놓고 편안하게 사세요!

꼭 알아 둬야 할 게 있다면

문 새해를 맞이하여 재발심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인간의 몸을 받아 가지고 부처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꼭 이것만큼은 알아 둬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지요.

답 세세한 인간 사회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꼭 알아 둬야 할 문제는 바로 마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고 세상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을, 여러분이 각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벌어졌고 바로 상대가 생겼고 고통이 생긴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생활 속에서 업업이든 악업이든 인과로써 업보를 짊어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불가에서 오신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 가운데 바로 숙명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숙명통을 우리가 깨달아 과거를 전부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숙명통은 컴퓨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대로 이 세상을 걸어가면서 지은, 아는 그 모두가 거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입력이 된 그 자체가 현실로 나오는 거고 지금 사는 것이 미래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또 마음으로 전달을 하고 통신을 하면서 이끌어 가는 것은, 이 세상에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끝없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길잡이로서 바로 그 도리를 일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몸 바꾸기 전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면 세세생생에 끄달리면서 인과성이라든가 또는 유전성이라든가 세균성이라든가 또는 영계성이라든가 하는 그 모든 죄업이, 즉 말하자면 고(苦) 덩어리가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나온 자리에다 다시 되입력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카세트에 입력을 해 놨다가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게 만약에 죄업이라면 거기에 다시 죄 없는 마음을 입력을 해 놓는다면 그 앞서 입력된 건 다 소멸됩니다. 그와 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서 죄 불을 자리도 없고 병 불을 자리도 없고 업보가 불을 자리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관습 때문에, 습관 때문에 그것을 떼 놓지 못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지 저렇게 하는 것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될 거다.'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량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습입니다.

우리가 인생 항로를 걸어갈 때 여러분이 꼭 알아 둬야 할 것이 자기로부터 이 세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기로부터. 그리고 자기부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을 믿는다든지 고상을 걸어 놓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는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이시여! 칠성님이시여! 독성님이시여! 신중님이시여!' 하고 온통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한 군데만 안 놔도 '아이구, 이거 저기 안 놔서 우리 아들이 잘못되면 어떡하고 우리 남편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의 그 습관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습입니다. 그러한 습관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되지' 하는 그 걸림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아이구,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될까, 안 될까?' 이러니까 그것이 활이 제대로 쏘아지질 않는 겁니다.

밝고 밝은 이 세상에서, 지금 인공위성이 오르고 또는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를 두루 하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인공위성보다도 더 위대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빛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빠르고, 한생각이 중요하고 보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라는 걸 여러분은 스스로가 느끼셔야 합니다.

마음은 체가 없어요. 만약에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고 뚜껑을 닫아 놨다가 열어 보면 여름에 그냥 생명들이 우루루루 나옵니다.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데선 한생각이 그렇게 원자에서 입자가 그렇게 많이, 그 입자에서 분자가 그렇게 많이 화해서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눈도 부처님의 손도 부처님의 이름도, 부처님은 그렇게 아니 계신 데가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죽은 세상에나 산 세상에나,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나 생각이 있는 사람이나 다 건져 주시는 그 자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삼라대천세계는 조화를 이루고 바로 불바퀴가 더하고 덜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돌아가는 진리의 뜻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수박 맛을 보고 싶은데…

문 스님,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진짜 알맹이를 알지 못하고 쳇바퀴 돌듯 그 자리만을 뱅글뱅글 돌고만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에는 허망한 껍데기에 끄달리지 않고 수박을 쪼개서 수박 맛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답 우리 마음들이 계발이 되고 달라져야 세계도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못하다면 영원히 쳇바퀴 돌듯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생기고요. 만약에 지구의 모든 재료가 부족하게 된다든가 태양계에 어떠한 팽창력으로 인해서 열이 생긴다든가 타버린다든가 또는 은하계에 어떠한 분제가 생겨서 별성이 껍데기를 벗고 활력을 띠지 못한다면 우리에 직결된 이 마음부터 벌써 잘못돼 돌아가는 겁니다. 염주알 돌아가듯, 우주가 지금 한 염주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빈약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복으로만 나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꽃 한 송이를 생각해도 바로 네 뿌리 내 뿌리가 둘이 아니요, 이 마음에 천만 개의 마음을 한데 합쳐도 둘이 아니어서 내 주인공에, 직접 네 꽃 한 송이를 내 꽃 한 송이에 바로 갖다 놓는 것입니다. 저 부처님 형상도 여러분의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의 생명도 여러분의 생명과 둘이 아닙니다. 이런 컵도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과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광대무변한 법을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길을 인도하시면서 '과거심 · 현재심 · 미래심이 둘이 아니니라. 과거 · 현재 · 미래가 둘이 아니니라. 너희 마음먹기에 달렸느니라. 너희가 악한 마음을 쓰면 악한 일을 하고 악한 행을 하면 악업을 짓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한다면 바로 선업을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바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뿌리를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쥘 수 없고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여러분의 뿌리, 그 불씨! 내가 나오기 이전의 바로 내 씨가 있다더라 하고 일러 주셨는데도 바깥으로 휘휘 전부 찾아요. 바깥으로 휘휘 둘러 찾거든요. '아휴, 부처님! 나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과거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야단법석이지요.

그러나 수박에 비유해 봅시다. 수박씨를 작년에 받았으면 바로 올해 심죠? 심어서 수박 싹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수박 싹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수박이 벌써 모두 열렸습니다. 그래서 수박 속에 단맛이 나고 씨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수박씨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과거의 씨는 현실로 나왔는데, 작년 씨를 올봄에 심어서 싹이 돼서 열매가 열려서 지금 수박이 데룽데룽 매달려 있는데 말입니다, 그 수박씨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수박 싹에, 수박 열린 거기서 찾아야지요? 그 씨는 벌써 화해서 싹이 돼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디 가서 부처님을 찾습니까? 나로부터 부처님이 계신 겁니다. 법당에 모셔진 부처님은 그렇다는 사실을, 그런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방편의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니 제일 급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내 안에 수박이 있고, 수박 맛을 봐야 내 씨를 내가 찾는다고 봅니다. 수박 맛을 보지 않고는 수박 속의 씨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거기에다 맡겨 놓고 관찰해서 지켜보는 그 자체가 참선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체험하는 것이 참선의 기초적인 문을 찾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거를 실험해서 체험하는 것이 수박 맛을 보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가정도 유유하게 되고 애고도 없어지고 병고도 없어지고 업식이, 유전성이, 영계성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음의 지혜는 세세생생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은 금방에 갈 것이고 넝마는 넝마전에 갈 것이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세세생생에 자동적으로 끼리끼리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평등공법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나 아님이 없이 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림 · 최주현

답 어저께 누구 따귀를 때렸는데 맞은 그 사람이 이를 북북 갈고 있다가 그 이튿날 와서 아주 작살나게 팼더랍니다. 그것도 바로 과거에 지은 것대로 현실에 받은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받고 현실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도 오늘이요, 미래도 오늘입니다. 연방 연방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이고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음공부를 하면, 전에는 팔자 운명이 주어져 있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모든 악업 선업을 다 거기다가 놓는다면, 악업을 선업으로 돌리는 것도 거기서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에 의해서 오간지옥이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오간지옥이 무너지고 유전성이나 영계성이나 업보성이나 세균성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무너진다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에 입력이 됐던 것이 새 거를 자꾸 넣으니까 앞서 넣었던 것이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 앞서 넣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 들어간 것이 자꾸 입력이 돼서 자꾸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래 나오는 대로 또 놓으니까 앞서 새 거라고 어저께 넣은 것이 또 다 없어지고, 현실에 생각하는 대로 넣고 그러니까 그릇에 잔뜩 담겨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새 그릇에 새 거를 자꾸자꾸 넣을 수 있는 거죠. 잘된 거든 못된 거든 그렇게 잔뜩 넣어 놓은 데다가는 아무리 좋은 게 닥쳐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녹여라 이겁니다.

업이 본래 불을 자리도 없는데 모두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붙어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이 그 관습에 의해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붙어 있는 거지, 붙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붙어 있겠습니까. 꿈을 꾸고도 '아이구, 인제 죽었다. 이게 살 꿈이 아니고 이게 다 무너질 꿈이야.' 이런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무너질 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무너지는 걸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 업이 다 무너져서 다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없느냐 이 소립니다. 좋게 생각을 하면 좋게 현실로 나올 것이고 언짢게 생각을 하면 언짢게 현실로 나와요. 꿈이 생시고 생시가 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헌 쇠든지 새 쇠든지 쪼가리든지 간에 그냥 재생처로 들어가는 데는, 업을 녹이는 데는 어떠한 물건으로 돼 있다가 그냥 그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면 재생이 돼 나가는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재생이 돼서 나오니까요. 그러면 그 쇠를 주문이 오는 대로 그냥 찍어서 또 내보내죠. 만약에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좀 끼고 다니다가 찌그러지거나 또 돈이 없거나 그러면 금방으로 가지요. 금방으로 가지 넝마전으로 가진 않죠. 금방으로 가면 금방에서는 목걸이 했던 것을 녹여서 다시 목걸이로 만들 수 있고, 팔찌로도 할 수 있고, 별 걸로 다 나가요. 그러니깐 자꾸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마음은 저 달나라에도 지금 한 찰나에 갈 수 있고, 한 찰나에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광대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프로펠러가 돌아가듯이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수레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는 먼지 앉을 자리도 없을 거고 고가 있을 자리도 없을 거고, 그러니 죄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하나 점프해서 돌리는 데에 모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간다면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벌고 써야 하는지

문 진리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다고 하지만 어렵기만 하던 한해를 지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스님, 송구영신이라고 하던가요. 모든 것을 다 나온 그 자리에 내려놓고 새롭게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새롭게 걸림 없이 살아갈 수 있을는지요. 그리고 어려운 이 시대에 어떠한 마음으로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요?

답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지만 회사에 가면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듯이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움죽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움죽거리는 것은 무엇이 움죽거리고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살던 인연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의 정자 난자에서 배출된 그 몸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몸속에는 바로 여러분이 과거에 살던 인과로 인해서 뭉쳐진, 간단히 따진다고 하더라도 16억, 10억이나 13억이나 이렇다고 봅시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또 생명이 있으니 그건 헤아릴 수도 없는 문제죠.

그러나 마음은 체가 없어서 의식 하나가 생각하는 데도 천백억화신으로서 화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 봐도 우리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운행을 해 주니까 지금 이렇게 내가 산다고 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잘했다고 하고. 천년만년 살듯이 말입니다. 남이 그랬으면 남이 망하게 해 줬다고 하고 남의 탓 하고 남을 원망하고, 한 식구도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항상 악의적인 말이 나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식을 기르나 부모를 모시나 사대 성인들이 가르쳐 주신 것은 자비한 마음, 즉 사랑하는

☞30면으로 계속

여러분에게 제일 급한 것은
지금 내 안에 수박이 있지만
쪼개서 맛을 보지 않는다면
수박 속의 씨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음 하나 점프해서 돌리는 데 모든 게 달려있어

☞29면에서 계속

마음으로써 내 몸, 내 아픔과 같이 생각하고 내 생명같이 생각해서 모두 내 탓으로 돌리고 바로 한 마음, 지금 내면에 여러 의식들이 있는 그 자체를 한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줏대를 바로 주인공으로 생각해서 '한마음 주인공만이 이렇게 이끌어 줄 수 있고, 가정을 이끌어 줄 수 있고 자식을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속이 상하더라도 거기다 한번 맡겨 놓고서 부드러운 말로 또는 웃는 얼굴로 대하며 한 가정에 조화를 이룬다면, 화목하고 너무나 복이 들어오고 또는 공덕도 받을 수 있고 아주 화합도 되고 그럴 것입니다. 또 돈도 웃는 얼굴에 들어오지 그냥 악의적으로 나가는 데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계발이 되고 달라져야 세계도 달라지고 모두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어리석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회사를 운영하거나 장사를 할 때, 사람이 안 온다 온다 뭐 이런 문제들, 뭐 이(利)가 부진하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런 공부를 하고 부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러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든 거를 진짜로 믿는다면,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간다면 그냥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까닭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지 않을까요?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거기 걸려요?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내가 또 많이 번다고 하는 '내가'라는 생각이,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선지식들은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죽인 사이가 없고, 깨치지 못한 자는 개구리 하나를 죽여도 살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증득해야 알아져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여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라고 그러는 것은 돈도 아니고 종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써야 하느냐. 자기를 자기답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깐 잘 써야지 못 쓰면 자기가 망한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면 돈이 달아나가죠. 스스로 자동적으로 돈이 오게 하고 자동적으로 선의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 바로 50%의 무의 세계를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50%의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 50%를 같이 쥐고서 우리가 중용을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꽃이 필겁니다. 여러분이 삶의 보람을 느끼며, 또는 부처님께서 49년 설해 주신 그 뜻을 당당하게 떳떳하게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제자라고 하실 겁니다.

만약에 그 도리를 모른다면, 즉 말하자면 부처님께서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서도 전달을 했고 이렇게 3000년 후 오늘까지도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이 아닌 도리를 배우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그러한 도리도 배울 거지만 바로 무심 축지법도 배울 수 있는 것이고 원자에서 입자가, 입자에서 바로 분자가 화해서 이 세상을 두루 하면서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통신하고 결정하고 들이고 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내 몸속의 의식들이 나가서 내 보호를 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혹성뿐만 아니라 저 지구나 어떠한 혹성에도 다 그렇습니다. 지구에 주인들이 살기 때문이고 생명들이 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뜻을 모르고야 어찌 부처님 제자라고 하며 어떻게 불제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가난과 병고와 우환을 생각할 때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거를 자기 자신들이 재료로 삼아서 실험하고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발견을 해서 물이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또 시공을 초월한 이 진리를 알고 그것을 초월했으면 바로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한 군데로 모으고 맡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생활속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도리를 배우기 위해서 게을리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여 아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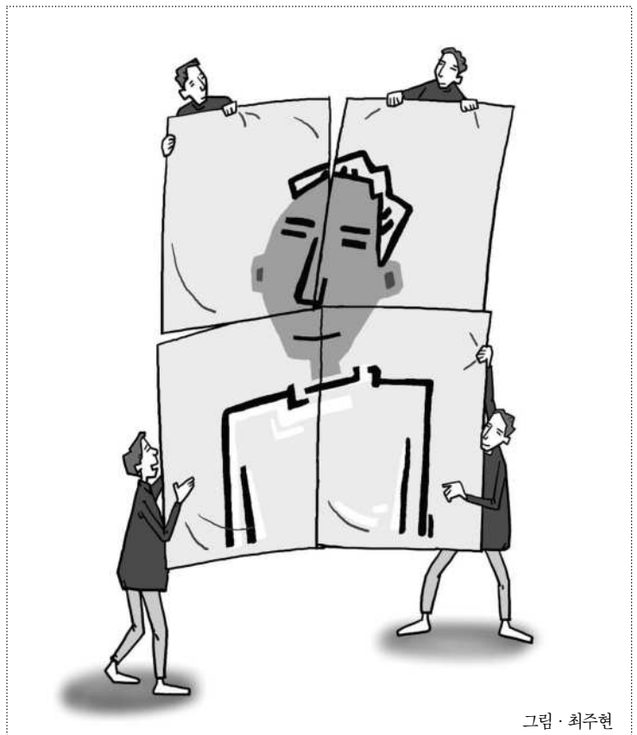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욕망과 야망을 충족시키려면

문 스님께서는 전부 다 놓으라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자기가 목표로 하는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그 다음 야망이 생깁니다. 그게 남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올라가고 싶고 그 위에 닿으면 또 야망이 있고, 그 야망을 향해서 그렇게 자꾸 가려면 자기를 놓지를 못하잖아요. 그렇듯 끊임없는 야망으로 인해서 삶의 행복도 불행도 느끼면서 사는 것 같은데 자기 안의 욕망과 야망을 어떻게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지요?

답 어느 학자가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바로 그렇게 말을 합디다. 그래서 "야망이라는 것도 그냥 놓고 가는 거다.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것도 없고 야망이라는 것도 없다. 나무 하나 한 발 디뎌 올려놓으면 뒤쫓아서 또 올라옵니다. 그렇게 인간의 모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대기까지 올라가면 뒤에서 받히는 것 때문에 떨어져 버리고 말죠. 그런데 야망은 가져서 뭘 합니까? 그렇게 떨어질 것을." 그래서 떨어지는 그 자체가 자기가 떨어져서 죽기 위해서 그냥 올라가는 거지, 그게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생활하면서 그냥 놓고 가고 있잖아요. 아니, 본 거 고대로만 보고 있었소? 들은 거 고대로만 듣고 가만히 있었소? 또 가는 것도 한 군데만 갑니까? 말 갈 데 소 갈 데 다 가죠? 가고 싶을 때 다 갑니다. 또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그래요. 한 사람만 만나나요? 요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러죠? 그러니까 놓고 가는 겁니다, 그냥. 공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사는 게 그냥 연방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되놓고 가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게 놓고 가는 건 줄 모르기 때문에 또 놓고 가라고 그런 소리가 되나오는 거예요.

아니 글쎄, 부처님께서 49년, 아니 49년이 아니지, 49년 하면 벌써요, 이 세상 전체, 또 과거 현재 미래, 이건 헤아릴 수가 없이 말씀하셨다는 얘기고, 헤아릴 수 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한 사이가 없느니라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고 가십니다. 아 그런데 글쎄 그냥, 그렇다고 놓고 가는 게 죄가 되는 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블랙홀이라는 게 그냥 막 돌아가는데, 우리의 불성 자체가 그냥 같이 막 돌아가는데, 자기 마음이 그냥 괜히 '나는 놓지 못해. 이거는 안 돼.'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이 돼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에 좋게, 가정에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놓고 사세요. 놓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하, 내가 지금 말하고 돌아서니까 또 놔졌구나. 내가 또 이 길로 갔다가 이 길로 오니까 또 놔졌구나. 내가 아무리 먼 데를 가고 오고 이랬지마는 그 발자취를 걸머지고 다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지금 금방 남편을 만났는데 또 금방 아들을 만나니까 '아이구, 남편 만난 사이가 벌써 없구나.' 자식을 만났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또 금방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이구, 자식 만난 사이가 벌써 지나갔구나. 그러니 놓고 가야지.' 아,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실 여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을 좀 푹 틔어 놓고 편안하게 사시구요.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 좀 그렇게 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하세요"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으세요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은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2004-8211, 8212 팩스(02)737-0697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새해를 맞이 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로,
불자님의 가정에 더 큰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백년가약
사랑스런 자녀의 혼인을 현대에서....

2006년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쿼주신 은혜,
보은에 감사드립니다.



원장 이영숙 합장

위치안내
1호선 영등포역 3번출구
신세계 백화점 맞은편
금강약국 200m지점
※ 전화 상담 후 방문약속

■ 大幸,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 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

현대결혼연구원에서 좋은 느낌,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원 장 이영숙(법명 : 無生子)

사 무 실 : 02)2677-5442
소 연구원 : 032)345-5411
휴 대 폰 : 011) 288-2944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 월간난방비 비교표 ◆ *실내평수 10평기준 *하루 10시간 사용 * 2005 8월 기준

구 분	필름난방	심야전력	도시가스	전기판넬	LP.G	보일러 등유
소비자 가격	64.9원/kw	34원/kw	494원/㎥	64.9원/kw	1100원/㎥	900원/ℓ
월간 난방비	38,200원	56,100원	70,150원	101,800원	136,400원	163,800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 시공 : 전국 사찰 시공 전문 업체입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

041)545-5593, 010-8120-3592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 초 과 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위주 강좌
▶ 개강 : 2006. 2. 2
월 · 화 반, 수 · 목반, 금 · 토반(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토 · 일 전문가 과정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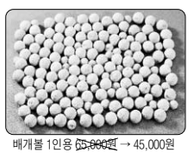
명리전문가과정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 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 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 부 산 : 부산시 진구 전포동 부전동지하철 8번출구
문의 : 051)804-8571. 018-312-7110

베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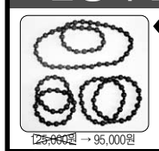
베개봄 1인용 ~~65,000원~~ → 45,000원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죽어가는 것도 살리는 은행석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 분재 등 죽어가는 것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며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손발이 자주 붓거나 저린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발저림,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 氣를 고루 전달 기력회복, 심장박동이 원활하여 마음을 안정 시킴,신진대사촉진, 피가 맑게 하며, 다이어트에도 효과

~~125,000원~~ → 95,000원

은행석 108염주, 손목압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지장행자의 길 가렵니다 (상)

- 현대불교 제11회 신행수기 공모 수상작 -

총화종 총무원장상 / 김남기 (강원도 원주시 학성동)



그림 · 문병성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64년 8월경,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천년 고찰 치악산 구룡사에서 10세 때 5계를 받은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재소를 경영했는데 구룡사 앞산에서 산판을 하셨던 관계로 여름방학이 되면 자연스럽게 구룡사에서 한 달 동안 자연을 벗 삼아서 공부도 하고 심신도 단련하면서 불교와의 인연은 이어져 갔습니다.

주지스님을 따라서 새벽 3시 30분에 시작하는 새벽예불과 저녁 6시 30분에 시작하는 저녁예불에 참석해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 반야심경을 독송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은 차차 부처님께로 향했고 어린 마음에도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은 지금은 작고하고 안 계신 외할머님 김대원경 보살님이었습니다.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영세도 받으셨지만, 불교 집안으로 시집오신 이후에는 시아버님을 따라서 불교를 믿으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제가 큰외손자다 보니 저를 끔찍이도 귀여워해 주셨고 절에 가시면 항상 큰외손자가 잘 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원을 하셨답니다.

저도 그런 외할머님이 고맙고 존경스러워서 불교에 귀의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연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1군사령부 법당 법웅사-청담 큰스님께서 직접 터를 잡아주시고 사명(寺名)도 지어 주심-에서 불교학생회장을 맡으면서 법사님으로부터 <금강경>과 <법구경> 등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을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초보적인 수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에 입대를 해서는 논산에 있는 수용연대와 광주에 있는 상무대 무각사에서 법사님의 설법을 들으면서 어렵고 힘든 군 생활을 기도를 통한 불심으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갔으며, 양평에서는 제대를 하는 1년여 기간 동안에 법당에 나가서 괘도도 직접 제작을 해서 장병들에게 찬불가를 지도하면서 보람있는 군 생활을 잘 마무리 하고 사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청년회를 조직해서 불교의 불모지 원주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신심 있는 청년 불자들의 장을 마련하면서

아버지·외할머니 불심 영향속 성장
지장보살님 원력에 크게 감동받아
집안에 기도처 마련하고 기도 시작

불교성지로서의 면모를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기면 유산이 되고 해서 참으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던 외할머님께서 다니시던 절에서 새로운 법당을 완공하고 부처님도 새로 모시는데 점안식날 부처님 머리에 올렸던 삼베로 된 고깔을 주지스님께 부탁을 해서 하나를 얻으신 다음, 그 자리에서 반바지를 만들어서 부처님 앞에 올렸다가 저의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제 아내에게 주시며 입으면 효험을 볼 것이니 입으라고 말씀하시고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때만 해도 아내는 종교가 없었고 그다지 신심이 없었던 터라 의아심을 갖고서 선뜻 입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삼베가 까칠까칠 하니 더욱 입기를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고 때가 되면 입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안생기고 자꾸 유산을 하는데 자신이 생각해도 속으로 은근히 걱정이 되는지 한번은 저에게 그것을 입어볼까 하고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들은 얻으려고 해도 얻기가 어려운 것을 외할머님께서 당신을 생각해서 어렵게 구해서 만들어 주셨으니 성의를 봐서라도 입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이후 반신반의 하면서 반바지를 입더니 100일이 채 안되어서 몸에 이상한 기운을 느꼈는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하고서 저도 은근히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병원을 다녀오더니 화색이 도는 얼굴로 임신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외할머님께 전화를 드려서 소식을 전하고 감사한 마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말씀을 드리니 축하한다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즐거움이었기에 부처님께 달려가서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 자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훌륭하게 잘 키우겠습니다"하고 다짐을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주신 그 귀한 큰아들이 지금은 인제군에 있는 포병부대에서 10개월 째 군복무를 잘하고 있으며 일요일에는 법당에 나가서 착실하게 신행생활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식을 더 낳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계속해서 유산이 되고나니 전생의 업보인 것 같은 생각에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장손이다 보니 아내가 마음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하루는 아내가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앞으로 아이를 갖기가 힘들고 또 인공수정을 한다고 해도 확률이 10% 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내를 위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 언젠가는 부처님께서 자식을 점지해 주실 거라고 믿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장보살님은 죽은 영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미륵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무불시대에 교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부촉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감동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옥 중생들을 위해서 지옥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시는 데 그 장삼 자락이 마를 날이 없다는 이야기도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동적인 것은 일체 중생이 성불하기 전에는 나는 결코 성불을 하지 않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장보살님의 원력에 크게 감동을 받아서 조용한 방에 지장보살님 족자를 모시고 헌다기와 촛대 그리고 향로를 준비해서 지장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셨다는 비보를 접하고서 평소에 큰스님을 친견한 적은 없었지만 마지막 가시는 길에 꼭 참석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아내와 큰아들과 함께 밤 9시에 원주를 출발해서 새벽 4시에 해인사에 도착했습니다. 대적광전에 들어서니 전국에서 모여든 불자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고 간신히 한쪽 구석에 앉아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서 철야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팔공산 기도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교법회
광 법 사
주지 정효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 59
TEL 053)986-5315
H·P 011-501-5315

謹賀新年 佛紀 2550年
丙戌年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종정 학암
宗正 法語
이 모든 우주에 일체한 두루한 한맛의 모습인
승의(체)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 하심과 다름이 없다고 하시네.
만약에 이안에서 다르다고 분별 한다면
그는 결정코 어리석어서(증)상만 의지하리.
大韓佛教 法相宗
종 정 학 암
총무원장 해월 사정원장 혜명
부 원 장 도일 참선원장 강월 홍보원장 수경
포교원장 지우 연구원장 원상
교 육 원 장 교덕 참선부원장 도선
종회의장 무성
종회부의장 경천
총무부장 해명 총무국장 청록
교무부장 천웅 호법부장 진성 재무부장 대광 사회부장 월암
문화부장 지선 홍보부장 종오 교육부장 혜명 포교부장 법정
사정위원 진광 사정위원 덕암
울산종무원장 해암 강원종무원장 대광 경북종무원장 도선
광주,전남종무원장 종오 충북종무원장 대명 충남종무원장 경천
총무원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69-8 전화 031)653-1250~1/ 팩스 031)653-1253

생태 · 수행환경 위협 받는 미륵도량



통영시는 상부 정류장 부지 소유자인 용화사와 조계종단의 허가를 얻지 않고 케이블카 건설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8부 능선에 자리한 탑그레인은 미륵산의 풍광을 해치는 주범이다.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52) 미륵산 용화사

미륵산은 통영시의 남쪽, 미륵도 섬 가운데 해발 461m로 우뚝 솟은 산이다. 산 이름이 상징하듯 미륵산은 미륵보살의 산이다. 신라 고찰 용화사(龍華寺)를 비롯해 관음사(當來禪院), 도솔암(兜率庵), 미래사(彌來寺)가 모두 그 용화세계에 깃들어 있다.

통영에 내리면 항만 건너 미륵산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8부 능선 절벽 위에 거대한 탑크레인이 박혀 있고, 그 상부 정류장 탑크레인으로부터 쇠줄을 타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들이 쉼없이 오고간다. 통영시가 발주한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이다.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로 환경 파괴 심각

통영시는 상부 정류장 부지 소유자인 용화사와 조계종단의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종단의 불허 방침은 상부 정류장 완공 후 속속 들어설 각종 편의시설들이 미륵산의 자연생태와 산내 사찰의 수행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를 막지 못하면 남해안 일대에 계획되고 있는 수많은 케이블카 건설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용화사 경내로 드는 돌계단 오른쪽으로는 풍광 좋게 자란 삼나무 숲이 있고, 왼쪽으로는 연못이 자리하고 있다. 때마침 단풍나무가 꽃보다 아름다운 단풍을 피워 한 폭의 가을 풍경화를 멋지게 그려주고 있다. 연못 또한 인공미가 절제되어 주위 풍광과 잘 어울린다.

용화사는 지명도에 비해 경내가 좁다. 그나마 법당 앞마당은 워낙 습해서 이끼가 끼고, 늘 질퍽거린다. 고심한 나머지 마당에다 네모난 돌을 바둑판처럼 놓았다. 자갈을 깔거나 시멘트로 덮어버리지 않고, 땅을 살려두려는 자비심과 생태지혜가 짠하다.

식재된 난대수종 외에는 눈에 띄지 않아

경내에는 동백나무, 치자나무, 돈나무, 팔손이나무, 종려나무 등 몇 종의 난대수종들이 식재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생태조경은 눈에 띄지 않는다. 법당 뒤 석축 사이에 때늦은 꽃향유가 안간힘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법당 옆으로 난 오솔길은 관음암으로 이어진 길이다. 팔손이 한 그루가 담장 밖에 꽃을 피우고 있다. 외모는 사뭇 이국적이지만, 남해안 곳곳에 자생하는 우리의 난대수종이다. 8개의 잎사귀가 마치 손바닥모양으로 갈라져서 팔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관음암 가는 길은 호젓한 숲길이다. 키 큰 소나무들 아래로 맥문동과 함께 자금우, 야생차, 고비, 청미래덩굴 등등이 있다. 마치 밭처럼 군락을 이루고 있는 맥문동은 자생력이 강해서 기후가 온난한 남쪽지방에서는 겨울에 잎이 죽지 않고 지상에 남아있다. 미륵산은 맥문동이 지피식물처럼 전역을 덮고 있는 맥문동 최대 군락지이다.

관음암은 용화사의 산내암자로 선원이 개설되어 있다. 당래하생미륵존불(當來下生彌勒尊佛)이라고 했던가. 당래선원(當來禪院)이라는 현판이 석루에 덩그러니 걸려있다. 석루는 접합 부분의 시멘트물이 빠져 나가면서 화강암 육추가 기우뚱한 모습이다.

선원답지 않게 불사에 욕심을 부린 흔적이 곳곳에 비친다. 잔디 마당도 그렇거니와 연못 한가운데 섬을 만들고 세운 칠층석탑도 주변 풍광과 그리 잘 어울리는 그림은 아니다.

그 연못 석축에 두꺼비 모자가 조각 되어 있다. 개구리와는 달리 헤엄을 못치는 두꺼비 모자, 장마철에 연못에 물이 불어나면 걱정이다.

도솔암은 효봉 · 구산 스님 머물던 곳

관음암에서 도솔암까지는 비포장길로 300여미터 거리다. 주변 숲은 소나무, 팽나무, 서어나무, 때죽나무 등이 어울린 혼효림이다. 송악들이 죽기 살기로 나무 줄기마다 기어오르고 있다.

칡덩굴이 광합성만을 방해한다면, 송악은 거기에다 수분과 양분까지도 착취하기 때문에 송악의 공격을 받은 나무는 고달프기 그지없다.

도솔암은 효봉(曉峰) 선사가 6 · 25 전쟁때 상좌인 구산(九山) 스님을 데리고 머물면서 후학을 지도했던 곳으로도 유명하다.

경내 동국선방 앞 치자나무들이 잎에 윤기가 흐르도록 청청하게 자랐다. 때마침 꽃보다 아름다운 노란 열매를 내달았다. 젊은 납자가 치자를 따다가 정성스레 처마 밑에 말리고 있다.

멋쟁이나비는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나비이다. 연 2~4회 정도 나타나는데, 날씨가 따뜻한 이 지역에서는 연 4회 나타난다. 늦가을에 보이는 것들이 올해 마지막 태어난 것으로, 성충 상태로 겨울을 난다. 더 추워지기 전에 열심히 꿀을 따서 몸속에 저장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겨울을 성충으로 나는 것으로는 참나무겨울자나방이 미륵산에 보인다. 주로 활엽수가 많은 숲에 나타나며, 날개의 길이는 약 4cm 정도에 연황색을 띠고 있다. 여름날에 자벌레로 살다가 번데기로 탈바꿈한 후 늦가을에 성충으로 나타나 그대로 겨울을 난다. 겨울이라는 이름도 그런 생태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솔암부터는 숲길이 좁아지지만, 경사가 가파르지 않아서 산책하기에 알맞다. 20분 가량이면 정상으로 이어지는 안부에 닿는다. 이 안부는 밤이면 너구리가 마실을 다니고, 눈 내리는 겨울이면 멧돼지가 새끼들을 데리고 이따금 나타나 통영 시민들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주는 곳이다.

많은 등산로에 산림 몸살 휴식년제 시급

미륵산의 포유류상 중 청설모는 가장 개체수가 많은 종이다. 일설에 따르면 부산-통영-여수-목포를 잇는 해안지방에 청설모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것은 청설모가 남방지역에서 배를 통해 들어온 외래종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곳에서도 다람쥐는 청설모와 들고양이의 등쌀에 기를 못 펴고 있다.

미륵산 정상 부근에는 통영병꽃나무 40여 개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통영병꽃나무는 전세계에서 이곳 미륵산에서만 자라고 있다. 통영병꽃나무는 인동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잎은 타원형이며 꽃은 5월에 피며 분홍색이다. 나무의 높이는 2m 남짓하고, 수피는 암회색이다.

미륵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통영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웰빙시대를 맞아 통영시민들이 시도 때도 없이 미륵산을 공원처럼 오르내리고 있다. 그 바람에 등산로가 산에 거미줄처럼 어지러워서 산림생태를 적잖이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주요 등산로에 대한 휴식년제를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것은 시민들 스스로가 할 일이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용화사는 마당에 네모난 돌을 바둑판처럼 깔아 놓았다.



팔손이나무는 남해안 곳곳에 자생하는 난대수종이다.



참나무겨울자나방은 주로 활엽수가 많은 숲에 나타나며, 날개 길이는 약 4cm 정도에 연황색을 띠고 있다.



자금우는 키가 30cm에도 못 미치는 난쟁이 나무이다.

『마음의 거울을 꺼내어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
"살며 생각하며"
시가 있고 음악이 있고 진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슴 뭉클한 감동이 있습니다.
매일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김사인 시인의 온화하고 다감한 말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향기롭게 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
나와 내 이웃들의 삶이 보이는 창 <살며 생각하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ww.bsfm.co.kr 서울 FM 101.9 Mhz
BBS 불교방송
부산 89.9 Mhz/광주 89.7 Mhz/청주 96.7 Mhz/춘천 100.1 Mhz/안동97.7 Mhz /포항 105.5 Mhz